



반파 가야 역사성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2021.06.29(화)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14:00~17:00

장수 군민회관 대강당(장수군청 1층)

주최 및 주관\_

 전라북도  장수군 호남고고학회

후원\_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호남고고학회



## 학술대회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분)			
13:30	14:00	30	등록 및 접수		
14:00	14:20	20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례</li> <li>• 개회사 : 최인선(호남고고학회장)</li> <li>• 환영사 : 장영수(장수군수)</li> <li>• 축 사 : 김용문(장수군의회 의장)</li> </ul>	사회 : 조명일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14:20	14:40	20	내빈 사진촬영 및 휴식, 장내정리		

### 주제발표

14:40	15:10	30	발표1	<b>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과 그 역사성</b> 발표자 :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토론자 : 송화섭(중앙대학교)	
15:10	15:40	30	발표2	<b>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b> 발표자 : 곽장근(군산대학교) 토론자 : 최인선(순천대학교)	
15:40	16:10	30	발표3	<b>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b> 발표자 : 유 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자 : 안선호(원광대학교)	
16:10	16:30	20	휴식 및 장내 정리		

### 종합토론

16:30	17:20	50	종합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 : 최완규(전북문화재연구원)</li> <li>•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김용문(장수군의회 의장), 최재원(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장)</li> </ul>	
17:30			폐회		

## | 목 차 |

주제발표 1 ..... 5      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과 그 역사성

발표자 :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토론자 : 송화섭(중앙대학교)

주제발표 2 ..... 45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발표자 : 곽장근(군산대학교)

토론자 : 최인선(순천대학교)

주제발표 3 ..... 85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발표자 : 유   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자 : 안선호(원광대학교)

종합토론 ..... 117

- 좌장 : 최완규(전북문화재연구원)
-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김용문(장수군의회 의장),  
최재원(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장)







반파 가야 역사성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

발표 1

---

##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발표자 :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토론자 : 송화섭(중앙대학교)

### 【목차】

- I. 머리말
- II. 6가야를 넘어선 가야 諸國들
- III. 伴跂國의 소재지 검토
- IV. 「梁職貢圖」에 기재된 '叛波'의 검증
- V. 맺음말



# 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과 그 역사성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일본서기』에는 513년~515년까지 3년 간의 기사 속에 伴跋國이라는 국가의 존재가 등장한다. 伴跋國은 지금의 하동항을 가리키는 다사진의 장악 문제와 더불어 기문국 지배로 인해 백제와 왜 그리고 신라와 갈등을 빚는다. 이 때 반파국은 백제와 왜군을 처참하게 격파하였고, 신라의 촌락을 초토화시켰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반파국의 소재지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3년 전쟁에서 반파국의 강성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521년 경의 상황을 반영한 「양직공도」에서 백제 곁의 소국 명단에 맨 앞에 ‘叛波’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반파국의 소재지와 관련해 몇 가지 정리가 가능하다. 섬진강 하구의 하동항 장악과 관련한 이해 충돌 요인을 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역이나 영향력이 섬진강 하구 하동 일원에 미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해 충돌 요인은 물길이라는 운송로를 이용해야 하는 물자를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비상하게 중요한 물자일수록 이해 충돌 요인은 증대되는 것이다.

하동항의 운송로인 섬진강 水路 장악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백제와 왜가 개입하였다. 백제와 왜는 함께 움직였다. 이해 일치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반파국의 반경과 관련해 신라도 개입하였다. 반파국이 신라와 접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은 반파국의 소재지 파악의 일차적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반파국 국명과 관련해 기존 지명 등을 대입해서 검토하는 일이 남아 있다.

정리해 보면 왜까지도 넘볼 정도의 중요한 운송로인 섬진강 수로와 항구의 장악을 둘러싸고 서로 충돌했다는 것이다. 왜가 출병했을 정도이니 거의 사활을 건 물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鐵 山일 가능성이 몹시 높다. 섬진강 상류나 주변에 거대한 철산지가 소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반파국은 기문국을 경략했다고 한다. 기문국을 볼만한 고총고분을 조성한 남원 운봉 지역으로 상정한다면, 반파국의 영향력이 운봉고원과 장계분지의 제철산지를 장악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환경 속에 소재한 반파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성주와 고령으로 지목하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성주 설은 오로지 성주가 가야라는 전제하에 음상사에만 근거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그 어느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존립이 어려운 학설이 된다. 그리고 고령 설은 3세기 후반에 집필된 『삼국지』 동이전 변진 조의 牟路國이 伴跋國의 誤記라는 심증에서 출발하여 加羅의 異稱이 伴跋였을 때 성립이 가능해진다. 만약 이 두 가지 전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거나 모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성립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헌 자료를 토대로 반파국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와의 접목이라는 ‘아름다운 만남’도 일부 보여주고자 한다.

## II. 6가야를 넘어선 가야 諸國들

### 1. 가야연맹설의 검증

학계 정설은 가야 단일연맹설이고 그 범주도 경북 일부와 경남 전역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가야 단일 연맹설을 검토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6가야를 넘어 수십 개의 소국을 밝힌다면 관련 문헌 기록을 넘어선 인식이 필요하다. 가야연맹설의 근거는 가야를 접미어로 하는 가야제국이었다.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가락국기』와 『본조사략』에는 다음과 같이 5가야 혹은 6가야 시조 탄생설화가 보인다.

a. 五伽耶[『駕洛記』를 살펴보면 贊에 이르기를 “하나의 자주색 끈이 드리워져 여섯 개의 둥근 알이 내려 왔다. 다섯 개는 각 邑으로 돌아가고, 한 개는 이 城에 있다”고 한 즉, 한 개가 首露王이 되고 나머지 다섯 개는 각각 5伽耶의 임금이 되었다. 金官이 다섯의 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本朝史略』에서 金官까지 그 數에 넣고 昌寧을 더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阿羅[혹은 耶]伽耶[지금 咸安]·古寧伽耶[지금 咸寧]·大伽耶[지금 高靈]·星山伽耶[지금 京山혹은 碧珍]·小伽耶[지금 固城]이다. 또『본조사략』에는 태조 天福 5년 庚子에 5伽耶의 이름을 고쳤다고 했다. 첫째는 金官[金海府가 되었다], 둘째는 古寧[加利縣이 되었다], 셋째는 非火[지금 창녕이니, 아마 高靈의 잘못인 듯하다], 나머지 둘은 阿羅와 星山[앞에서와 같다. 星山은 혹은 碧珍이라고도 한다]伽耶이다.<sup>1)</sup>

『가락국기』와 『본조사략』에는 5가야·6가야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가야연맹설이 태동했다.<sup>2)</sup> 후자에 따르면 940년인 천북 5년 경자에 이미 5가야의 존재가 보인다. 즉 금관가야·고령가야·비화가야·아라가야·성산가야이다. 이와는 달리 『가락국기』에 따르면 아라가야·고령가야·대가야·성산가야·소가야·금관가야의 6가야가 된다. 이렇듯 가야를 접미어로 하는 가야제국은 『삼국사기』에서도 포착된다. 즉 “古寧郡은 본래 古寧加耶國인데, 신라가 이곳을 취하여 古冬攬郡[古陵

1) 『三國遺事』 권2, 紀異, 五伽耶條. “五伽耶 按駕洛記 贊云 垂一紫纓下六圓卵五歸各邑一在茲城 則一爲首露王餘 五各爲五伽耶之主 金官不入五數當矣 而本朝史畧並數金官 而濫記昌寧誤 阿羅[一作耶] 伽耶[今咸安]·古寧伽耶[今咸寧]·大伽耶[今高靈]·星山伽耶[今京山 一云 碧珍]·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畧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二古寧[爲加利縣]·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 阿羅·星山[同前 星山 或作碧珍]伽耶”

2) 李丙燾『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387쪽.



縣]을 삼았다”<sup>3)</sup>고 했다. 고령군은 고려 때 咸寧郡이고, 지금은 상주시 함창읍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모두 함창을 고령가야 故地로 적어놓았다. 그리고 安羅에 대해서는 “법흥왕이 大兵으로 阿尸良國을 멸망시켰다[혹은 阿那加耶라고 한다]. 그 땅을 郡으로 삼았다”<sup>4)</sup>고 했다. 여기서 안라를 아나가야로 일컬은 사실이 확인된다.

고려 문종대(1046~1083)에 금관주지사가 저술한 『가락국기』는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보다 선행 사서였다. 그런 관계로 『삼국사기』 찬자가 『가락국기』를 읽었기에 ‘고령가야국’과 ‘아나가야’를 언급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가야를 접미어로 하는 가야제국 호칭은 『가락국기』 이전으로 소급되기는 어렵다. 『가락국기』 이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가야’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가락국기』에서는 “동은 황산강, 서남은 창해, 서북은 지리산, 동북은 가야산, 남은 나라의 끝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능과 수정궁이 전하는 산청군 금서면은 『가락국기』 영역의 중심에 걸맞다.<sup>5)</sup> 『가락국기』는 구형왕과 관련한 山淸을 기준으로 사방 영역을 설정한 것 같다. 가야의 사방 영역관은 『가락국기』가 편찬되는 11세기대의 산청 지역을 軸으로 하는 가락국 인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구형왕 관련 유구 등이 이 무렵에는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왕산사의 구형왕 유구 등이 조선 후기에 갑자기 조작되었다는<sup>6)</sup> 주장은 따르기 어렵다. 아울러 금관가야 왕실의 역사를 수록한 『가락국기』는 가야사 전반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加羅는 그 범위가 2개 국에 국한되었다. 『일본서기』 신공 49년 조에 보이는 다음의 ‘가라’와 ‘남가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b. …… 그리고 比自怛·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 이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南蠻의 침미다례를 도록하여 백제에 賜하였다. ……<sup>7)</sup>

주지하듯이 위에 적힌 가라는 고령을, 남가라는 김해를 가리킨다. 김해 세력이 남가라였음은 여러 기록에서 보인다.<sup>8)</sup> 게다가 양국이 공유하는 형제시조 설화는 연맹관계를 알려준다.<sup>9)</sup> 그렇다면 가라를 공

3) 『三國史記』 권34, 雜志, 地理1, 新羅, “古寧郡 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爲古冬攬郡[一云古陵縣]”

4) 『三國史記』 권34, 雜志, 地理1, 咸安郡, “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 以其地爲郡”

5) 이도학,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2020.6.26), 10쪽.

6) 권덕영, 『한국의 역사 만들기/ 그 허상과 실상』(새문사, 2015), 42~48쪽.

7) 『日本書紀』 권9, 神功 49년 조, “因以 平定比自怛·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枕彌多禮 以賜百濟”

8) 『日本書紀』 권17, 繼體 21년 조.

『日本書紀』 권19, 欽明 2년 4월 조.

『日本書紀』 권19, 欽明 2년 7월 조.

『三國史記』 권41, 金庾信傳.

9)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08~109쪽.

유하는 연맹은 김해와 고령 2개 國에 국한되었다.<sup>10)</sup> 이러한 가라연맹보다 공간적 범위가 훨씬 넓은 용어는 ‘임나제국’이었다. 즉 임나 멸망 기사에 따르면 임나 안에 가라국과 안라국을 비롯한 10국이 포함되었다.<sup>11)</sup> 물론 전성기의 임나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소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들 제국에 대한 포괄적인 호칭은 임나였다. 그랬기에 ‘任那加羅’나 ‘任那加良’이라는 국호 표기가 나왔을 것이다. 加羅나 加良의 상위 개념이요, 이들을 뭉뚱그린 호칭이 임나였다. 백제 성왕이 왜에 보낸 국서에서 ‘임나제국’이 보인다.<sup>12)</sup> 물론 唐代에 편찬된 『통전』에서는 “(신라) … 드디어 강성하여졌으므로 가라와 임나제국을 습격하여 이들을 멸망시켰다”<sup>13)</sup>고 하여 가라와 임나제국이 별도의 정치체로 기록되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가라는 결코 임나제국과 等値가 아니라는 것이다. 欽明 23년 정월 조에서 보듯이 임나는 가라와 안라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었다. 이와 관련해 「광개토왕릉비문」에 적힌 고구려의 신라 구원전에 ‘임나가라’가 등장한다. 이는 백제 성왕의 발언에 “옛적에 신라가 高麗에 구원을 요청하여 임나와 백제를 공격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이기지 못했다”<sup>14)</sup>는 기사와도 연결된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400년의 신라 구원전을 가리킨다. 후자를 통해 전자에 적힌 ‘임나가라’의 ‘가라’는 임나에 속했음을 읽을 수 있다. 임나가 가라보다는 더 큰 규모의 정치체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임나제국은 현재 한국인들이 머릿속에 상정한 가야연맹 공간과 대략 부합한다.

가라는 김해와 고령 간의 정치적 공동체를 가리키는 국호였다.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는 연맹을 상징하는 건국설화를 공유했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의 다음 기사에서 읽을 수 있다.

c. 가야산신 正見母主가 천신 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 왕 惱室朱日과 금관국왕 惱室靑齋 두 사람을 낳았다. 惱室朱日은 伊珍阿岐王之 별칭이고, 靑齋는 수로왕의 별칭이다.<sup>15)</sup>

10) 이와는 달리 安羅까지 당시 加羅로 호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1992), 30쪽). 즉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大子于老與伊伐浪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還之”(『三國史記』권2, 나해 니사금 14년 조)와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繻音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三國史記』권48, 勿稽子傳) 기사에서 전자는 加羅, 후자는 阿羅로 적혀 있으므로 양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산 정약옹이 후자의 阿羅國을 柯羅國이나 加羅國의 착오로 간주한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정구복 외, 『譯註三國史記』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98~799쪽). 실제 물계자전은 본기의 축약에 가까운 뿐 아니라, ‘八浦上國’으로 기재하는 등 오류가 적출되었다. 그리고 田中俊明은 『일본서기』 欽明 2년 4월 조의 성왕의 발언 가운데 “加羅에 가서 임나일본부에 모여 맹세를 하게 했다”는 구절에 보이는 加羅는 安羅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安羅日本府’를 염두에 둔 이러한 주장은 비판할 값어치도 없다. 더욱이 성왕의 동일한 발언에 安羅와 加羅가 나란히 등장하는데, 어떻게 兩者가 동일한 세력을 가리킬 수 있을까?

11) 『日本書紀』 권19, 欽明 23년 정월 조.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婁國·子他國·散半下國·乞食國·稔禮國 合十國]”

12) 『日本書紀』 권19, 欽明 15년 12월 조.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早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狗同心”

13) 『通典』 권185, 邊防1, 新羅.

14) 『日本書紀』 권19, 欽明 2년 4월 조. “昔新羅請援於高麗 而攻擊任那與百濟 尚不剋之”

1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縣 條.

위의 김해와 고령을 기반으로 한 건국설화는 주지하듯이 연맹설화였다. 이렇듯 당초 가야의 연맹은 2개국에 불과했다. 이는 앞서 b에 보이는 ‘남가라’와 ‘가라’ 2곳의 가야와 부합한다. 이처럼 10세기 초의 저작(c)에서 확인된 김해와 고령 간의 연맹설화는, 11세기 경에 이르러 해당 가야가 6개로 늘었다. 삼국 시대 가야로 일컫는 임나 범위에는 여러 문헌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국들을 열거할 수 있다.

d. 伴跛國 · 上哆唎 · 下哆唎 · 娑陀 · 牟婁 · 南加羅 · 喙國 · 安羅 · 多羅 · 卓淳 · 加羅 · 斯 二岐國 · 多羅國 · 卒麻國 · 古嵯國 · 子他國 · 散半下國 · 乞漁國 · 稔禮國 · 彌離彌凍國 · 接塗國 · 走漕馬國 · 瀆盧國

위에서 열거한 소국들은 문헌에서 포착된 사례이다. 이보다 많은 소국들이 ‘임나제국’으로 소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유동성에 따라 증감이 잇따랐을 것은 자명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할 것 같다.

## 2. 전북가야의 포착

일반적으로 가아는 통념상 경상도 지역을 가리킨다. 반면 전라도 지역은 마한의 소재지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전혀 잘못된 인식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따라 전북 임실의 금성리 고분군을 필두로 전북 지역 가아의 존재가 속속 드러났다. 이제는 ‘전북가야’라는 용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익숙해졌다. 실학자로 알려진 星湖 李瀾(1681~1763)도 전북가아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처음 언급하였다.

e. 신라는 처음에는 낙동강 동쪽에 있었고, 그 서쪽은 6가야의 땅인데, 변한은 그 남쪽에 있었다. 반드시 이곳은 지리산 남쪽의 여러 고을로 아마도 지금의 경상도와 전라도 여러 고을에 걸쳐 있었을 것이다. … 혹은 지금 전라도 동남쪽 여러 고을이 모두 변한의 땅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전해오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신라의 서쪽은 6가야가 되고, 또 그(6가야) 서남쪽이 변한이니, 이것은 의심이 없다.<sup>16)</sup>

성호 이익은 6가야와 변한을 구분했고, 6가야 서남쪽에 소재한 변한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걸쳐 있었고, 그러한 변한은 전라도 동남쪽에도 걸쳤다고 했다. 변한의 소재지가 전라도까지 미쳤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피력하였다. 성호가 언급한 변한은 그 후신인 임나제국에 해당한다. 이렇듯 성호가 상정한 임나제국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전북 동부와 전남 동남부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도 부합한다. 놀랄만한 혜안으로 보인다.

16) 『星湖全集』 제26권, 書, 答安百順 丙子. “新羅始有洛東江以東 其西卽六伽倻之地 而弁韓在其南 必是智異以南諸郡 恐跨居今慶尙全羅諸郡…或今全羅道東南諸郡皆弁韓之地耶 此可以傳疑”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 주석서인 『釋日本紀』에서는 “哆利國·伴跋國: 양국은 임나국의 別種이다”<sup>17)</sup> 고 하였다. 여기서 哆利國은 任那4縣인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sup>18)</sup> 가운데 上哆唎·下哆唎를 가리킨다. 이곳은 “此四縣 近連百濟” 즉 백제와 접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임나4현은 백제의 동부 지역에 소재한 것이다. 즉 섬진강 수계의 서편으로 상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사실은 임나제국의 西界가 『가락국기』에서 언급한 지리산을 넘었음을 뜻한다. 전라북도 동부 지역이 임나제국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면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f. 임나국에서 아뢰기를 “臣의 나라 동북에는 三巴汶의 땅이 있습니다. 上巴汶·中巴汶·下巴汶입니다. 지방이 3백 리인데, 토지와 백성 또한 富饒합니다. 신라국과 더불어 서로 다투는데, 피차가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臣은 장군에게 영을 내려 이곳을 다스리게 하여 귀국의 鄙가 되기를 청합니다”고 하자 천황이 크게 기뻐했다.<sup>19)</sup>

위의 巴文은 『續日本後紀』에 따라 ‘己文’으로 바로 잡고 있다.<sup>20)</sup> 869년에 저술된 『속일본후기』의 837년 해당 조목에는 ‘三己汶’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g. 己未 …… 右京人 左京亮 從五位上 吉田宿禰書主, 越中介 從五位下 吉田宿禰高世 등에게 興世朝臣의 성을 내려 주었다. 시조 鹽乘津은 倭人이었는데, 후에 나라의 명에 따라 三己汶에 가서 살았다. 그 땅은 마침내 백제에 예속되었다. 鹽乘津의 8세손인 달솔 吉大尙과 그의 아우 少尙 등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잇달아 우리 조정에 왔다. 대대로 의술을 전수하였고 아울러 문예에 통달하였다. 자손은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하였으므로 吉田連의 성을 주었다.<sup>21)</sup>

三己汶은 상기문·중기문·하기문을 상정하는 게 가능하다. 『양직공도』에도 백제 결의 소국 가운데 ‘상기문’이 보인다. 따라서 기문이라는 지역을 3곳으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17) 『釋日本紀』 13, 述義9, 第17, 繼體, “哆利國·伴跋國: 兩國者 任那國之別種也”

18) 『日本書紀』 권17, 繼體 6년 조,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19)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 “大春日朝臣同祖 觀松彦香殖稻天皇[諡孝昭] 皇子天帶彦國押人命四世孫彦國菴命之後也 昔磯城瑞籬宮御宇御間城入彦天皇御代 任那國奏曰 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相爭 彼此不能攝治兵戈相尋 民不聊生臣請將軍令治此地 卽爲貴國之部也 天皇大悅 敕群卿 令奏應遣之人卿等奏曰 彦國菴命孫鹽乘津彦命 頭上有贅三岐如松樹”

20) 朝鮮總督府, 『朝鮮史(日本史料)』(朝鮮印刷株式會社, 1932), 5쪽.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吉川弘文館, 1982), 29쪽.

21) 『續日本後紀』 권6, 仁明天皇 承化 4년 6월 己未 條, “己未 …… 右京人左京亮從五位上吉田宿禰書主 越中介從五位下同姓高世等 賜姓興世朝臣 始祖鹽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 往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鹽乘津八世孫 達率吉大尙 其弟少尙等 有懷土心 相尋來朝 世傳醫術 兼通文藝 子孫家奈良京田村里 仍元賜姓吉田連”



원』에서 『팔지지』를 인용한 백제의 江에 대한 다음 서술이 유의된다.

h-1. 웅진하의 근원은 나라 東界에서 나와 서남으로 흐르다가, 나라 북쪽으로 백리를 지나, 또 서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넓은 곳은 300보이며, 그 물은 지극히 맑다.

h-2.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다. 근원은 그 나라 남쪽의 산[南山]에서 나와 동남으로 흘러 大海에 들어간다. 강 안의 水族들은 중국과 동일하다.<sup>22)</sup>

사비성 도읍기 백제 영역에 소재한 2곳의 大水를 언급했다. 당시 백제 영역에서 대수는 금강과 영산강, 그리고 섬진강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영산강은 수계의 흐름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을 수 없다. 반면 h-1의 웅진하는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의 금강을 가리킨다. 전라북도 장수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다시금 전라북도를 지나 서해로 들어가는 수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했다. 이는 基汶河의 수계도 정확하게 묘사되었으리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된다. 이러한 기문하의 발원지인 南山의 후보로는 지리산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한원』 백제 項에서 “또 나라 남쪽 경계에 霧五山이 있다”고 한 무오산이 지리산일 것이다.<sup>23)</sup> 게다가 강의 흐름을 볼 때 기문하는 섬진강으로 지목된다.<sup>24)</sup> 따라서 남산은 섬진강의 발원지인 장수 관내의 팔공산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섬진강 상류·중류·하류에 따라 상기문·중기문·하기문의 위치 비정이 가능하다. 상기문은 섬진강 상류와 인접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청계리 등의 中古塚 고분이 소재한 운봉고원 일원이 적합하다.<sup>25)</sup>

반파국은 기문의 땅을 놓고 백제와 대립하였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에 개입한 倭는 반파국 대신 백제 편을 들어주었다. 반파국은 백제와 갈등하고 전쟁을 치렀지만 왜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패하고 말았다. 반파국이 백제와 영역을 놓고 갈등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i-1. (백제가) 별도로 아뢰기를 “반파국이 臣의 나라 己汶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옆드려 청하오니 天恩으로 판정하여 본국에 속하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계체 7년 6월 조).<sup>26)</sup>

i-2. 冬 11월 辛亥朔 을묘에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 장군,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已奚 및 賁巴委佐,

22) 『翰苑』蕃夷部 百濟. “括地志曰 熊津河源出國東界 西南流 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處三百步 其水 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

23) 이도학, 『백제사비성시대연구』(일지사, 2010), 246쪽.

24)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126쪽.

25)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2011), 99쪽.

전상학,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곡」, 『전북가야심포지움』(전북연구원, 2020. 10.16), 74~78쪽.

26)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반파의 旣展奚 및 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恩勅을 奉宣했다. 그리고 己汶·滯沙를 백제국에 내려주었다. 이 달에 반파국이 戢支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己汶의 땅을 애걸하였다. 그러나 끝내 주지 않았다(계체 7년 11월 조).<sup>27)</sup>

i-3. 3월에 반파가 子呑·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였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고, 麻且奚·推封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했다. 자녀를 몰아내 약탈하고, 村邑을 무자비하게 노략했다. 흉악한 기세가 가해지는 곳에 남는 게 드물었다. 대저 포학 사치하고, 괴롭히고 해치며, 침노하고 업신여기니, 베어죽인 게 너무 많아서 상세히 기재할 수가 없었다(계체 8년 3월 조).<sup>28)</sup>

i-4. 春 2월 甲戌朔 정축에 백제가 사자 文貴 장군 등이 귀국하려고 청했다. 이에 勅하여 그 아래 物部連〈闕名〉을 딸려서 돌아가도록 보냈다[百濟本記에서는 物部至至連라고 한다]. 이 달[2월]에 沙都島에 이르러, 전하는 바를 들으니 伴跋人イ(倭에) 원한을 품고 毒을 부리는데, 강한 것을 밟고 포악한 일을 자행한 까닭에, 物部連이 수군 500을 거느리고 곧바로 帶沙江에 들어왔다. 文貴 장군은 신라에서 돌아갔다. 夏 4월에 物部連이 帶沙江에 6일간 머물렀는데, 반파가 군대를 일으켜 가서 정벌했다. 들이닥쳐서 옷을 벗기고, 가진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帷幕을 모두 불질렀다. 物部連 등은 두려워하며 달아났다. 겨우 목숨만 보존하여 汶慕羅[문모라는 섬 이름이다]에 배를 대었다(계체 9년 조).<sup>29)</sup>

i-5. 夏 5월에 백제가 前部 木笏不麻甲背를 보내 己汶에서 物部連 등을 맞이해 위로하며 인도 해서 입국했다. 群臣이 각각 衣裳·斧鐵·帛布를 내어놓고, 國物을 보태 넣어서, 조정에 쌓아두고, 은근하게 위문했다. 賞과 祿이 보통보다 많았다. 秋 9월에 백제가 州利卽次 장군과 그 아래인 物部連을 보내와서 己汶의 땅을 내려준 데 대해 사례했다(계체 10년 조).<sup>30)</sup>

i-6. 3월에 백제 왕이 下哆唎國守 穗積押山臣에게 말하기를 “대저 조공하는 사자들이 항상 섬의 돌출 부를 피할 때마다[바다 가운데 섬의 굽은 물가를 말한다. 세속에서는 美佐祁라고 한다] 풍파에 고달픈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온 것을 적시고 모두 파괴하여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加羅 多沙津을 臣이 조공하

27)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廷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貢巴委佐 伴跋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滯沙賜百濟國 是月 伴跋國遣戢支 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28) 『日本書紀』 권17, 繼體 8년 조. “三月 伴跋築城於子呑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緬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斯略子女剽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29) 『日本書紀』 권17, 繼體 9년 조. “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副物部連〈闕名〉 遣罷歸之[百濟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 伴跋人懷恨御毒 恃強縱虐 故物部連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自新羅去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 停住六日 伴跋興師往伐 逼脫衣裳劫掠所齎 盡燒帷幕 物部連等怖畏逃遁 僅存身命泊汶慕羅[汶慕羅 嶋名也]”

30) 『日本書紀』 권17, 繼體 10년 조. “夏五月 百濟遣前部 木笏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 助加國物 積置朝廷 慰問慰勸 賞祿優節 秋九月 百濟遣州利卽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는 津路로 삼기를 요청합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押山臣이 듣고 아뢰기를 청했다. 이 달物部伊勢連父根과 吉士老 등을 보내 나루를 백제 왕에게 내렸다. 이에 가라 왕이 勅使에게 이르기를 “이 나루는 官家를 둔 이래, 臣이 조공하는 나루입니다. 어찌 쉽게 바뀌서 이웃나라에 주십니까? 원래 지역을 한정해, 封해준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勅使 父根 등이 이로 인하여 앞에서 (다사진을) 주기가 어려워, 물러나 大島로 돌아왔다. 별도로 錄史를 보내 扶余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가라가 신라와 결당해 일본을 원망했다(계체 23년 조).<sup>31)</sup>

위의 인용은 기문과 관련한 반파국과 백제와의 대립 관계, 나아가 왜와 신라의 개입으로 복잡해진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명이 기문이다. 그리고 임나4현의 한 곳인 下哆唎國과 하동항이 분명한 다사진과 대사강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한원』에 따르면 기문하는 기문을 관통하는 강과 동일한 게 분명하다. 기문하는 백제 영역 남쪽에 소재한 산에서 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꺾이지 않고 大海로 곧바로 들어간다고 했다(h-2). 이러한 기문하는 섬진강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다. 문제는 동일한 수계로 보이는 구간에 대사강이 보인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대사강의 대사는 하동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사강과 기문하의 관계이다. 기문하는 장수 팔공산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보성강으로 갈라지는 수계까지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리고 섬진강 가운데 구례에서 하동 다사진까지는 대사강으로 불렸다고 판단된다.<sup>32)</sup> 참고로 문모라(i-4)의 위치는 섬진강구 밖의 한 섬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3)</sup>

### III. 伴跛國의 소재지 검토

#### 1. 半路國과 伴跛國의 동일 여부 검토

반파국과 백제·왜·신라가 격돌한 3년 전쟁의 배경과 결과가 『일본서기』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면 『일본서기』에 보이는 반파국의 소재지이다. 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본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 조에는 변한과 진한 소국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伴跛國과 연결 짓는 대상이 半路國이었다. 半路國의 존재는 다음에 인용한 『삼국지』

31) 『日本書紀』 권17, 繼體 23년 조. “春三月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恒避嶋曲[謂海中嶋曲碕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茲濕所齋 全壞無色 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路 安得輒改賜隣國 達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因斯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讎新羅 生怨日本”

32) 박장근은 대사강을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일대로 비정했다(郭長根,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百濟學報』19(2013), 19쪽). 충분히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섬진강을 수계에 따라 구분한 본고의 논지와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3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128쪽.

위서 동이전 변진 조에서 ‘弁辰半路國’이 확인된다.

j-1.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次有邑倍

j-2. 有已柢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勤耆國 難彌離彌凍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弁辰樂奴國 軍彌國(弁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戶路國 州鮮國(馬延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馬延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由國

j-3.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위의 인용에서 j-1에 적혀 있는 ‘弁辰亦十二國’의 ‘弁辰’은 변한을 가리킨다. 그리고 j-2에 적혀 있는 소국들은 중복된 馬延國과 軍彌國을 빼면 24개 국가이다. j-3에서 ‘弁·辰韓合二十四國’라고 하였듯이 j-2에는 변한과 진한의 소국들이 섞여 있다. 여기서 ‘弁辰△△國’의 경우는 변한에 속한 소국을 가리킨다. 반면 소속 표시 없이 적혀 있는 소국은 진한을 가리키고 있다. 가령 “弁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에 보이는 사로국은 진한의 사로국이요 곧 신라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弁辰半路國은 변한의 반로국인 것이다. 그러면 반로국의 위치는 어느 곳으로 비정하거나 인식해 왔을까? 지리 고증에 밝은 다산 정약용은 변한과 진한 소국들의 소재지를 상당히 많이 비정했다. 그럼에도 반로국의 소재지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sup>34)</sup> 다만 천관우는 과거에 반로국을 星州說과 더불어 “거제군 장승포에(半路-가위내-거위내-鵝洲-長承浦邑 鵝洲里)로 批擬된 일이 있고”<sup>35)</sup>라고 소개하였다. 천관우는 장승포설의 주창자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가라 즉 대가야를 반과국으로 간주하면서 『삼국지』 등에 보이는 半路國으로 비정해 왔다. 즉 半路國을 半跛國의 誤記로 간주한 것이다.<sup>36)</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취하기는 어렵다. 첫째 『삼국지』나 『후한서』의 諸 板本은 물론이고, 弁辰諸國을 全寫한 후대 사서 어디에도 ‘半跛國’은 확인

34) 『我邦疆域考』其三, 八道沿革總叙 下, “慶尙道 本辰韓之地 漢水逕其中[洛東江] 南至咸安郡 北與清水合流[晉州之清川] 其在漢水之東者 爲辰韓十二國 魏志所載 已柢國·不斯國·勤耆國·難彌離國·冉奚國·軍彌國·如湛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斯盧國[今 慶州]·優由國 今 左道之地也 其在漢水·清水之南者 卽古 弁辰之地 東史謂之 迦羅[今 金海] 亦稱 伽耶[今 咸安·固城] 亦謂之 浦上八國[漆原·熊川等] 其在漢水之西·清水之北者 爲弁辰別部 所謂大伽耶[今 高靈]·古寧伽耶[今 咸昌]·碧珍伽耶[今 星州]之類 是也 弁辰本十二國 魏志所載 彌離國·接塗國·古資國[今 固城]·古淳是國·半路國·樂奴國·彌烏邪馬國·甘路國·狗邪國·走漕馬國·安邪國·瀆盧國[南接倭] 今 右道之地也[瀆盧國 今之 巨濟] 三國史有 押督國[今 慶山]·召文國[今 義城]·骨大國[今屬 永川 亦稱 骨代國]·音汁伐國[慶州之 安康 古縣]·伊西古國[今 清道]·于尸山國[近 東萊]·居漆山國[今 東萊] 皆今 左道之地也 又有 甘文國[今 開寧]·多伐國[近 草溪]·比只國[近 草溪]·草八國[今 草溪]·阿尸良國[今 咸安]·沙伐梁國[今 尙州] 皆今 右道之地也 譯言翻轉 字音訛舛 其實 押督·甘文等國 卽魏志所載 辰·弁二十四國 非別有也 其後 辰·弁二十四國 盡爲 新羅所并 其降附年紀並詳新羅本紀可按而知也”

35) 千寬宇, 『加耶史研究』(一潮閣, 1991), 95쪽.

36)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295쪽, 402쪽. ·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1992), 46쪽.



된 바 없다. 모두 半路國으로만 적혀 있다. 半路가 伴跛의 오기라면 『삼국지』 여러 판본에서도 伴跛와 근사한 국명이 보여야 한다. 판본상으로도 최소한 ‘半路國’이 아닐 가능성이 엿보여야 하는 것이다. 가령 『삼국지』 동이전 부여 조의 東明 설화에 등장하는 ‘橐離之國’의 ‘橐’字만 해도 판본에 따라 ‘豪’·‘高’·‘索’·‘膏’·‘囊’ 등으로 나오고 있다.<sup>37)</sup> 총 6字의 異記가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삼국지』의 술한 판본들은 한결같이 ‘半路國’에서 벗어나지 않았다.<sup>38)</sup> 따라서 ‘半路國’은 ‘伴跛國’의 誤刻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伴跛와의 관련도 희박해졌다.<sup>39)</sup>

둘째 『한원』의 弁辰 관련 조목 主文에서 “國苞資路”라고 한 구절이다. 이 구절의 ‘苞’는 ‘밀동’이나 ‘뿌리’의 뜻이 적합하다. 『詩經』에서 “한 그루터기에 난 세 개의 싹 苞有三蘖”이라는 용례가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國은 資·路를 뿌리로 한다”고 해석된다. 변진제국의 古資彌凍國·甘路國·戶路國 등을 염두에 두고, ‘資’와 ‘路’는 변진제국의 대표 國名을 가리킨다는 뜻이다.<sup>40)</sup> 그렇다면 半路國이 半跛國의 오기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따라서 반파국과 반로국은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정치체였다.

## 2. 반파국=성주설

이와는 달리 일찍부터 半路國은 星州로 비정되었다. 경상북도 星州를 삼국시대 때는 本彼縣이라고 하였다.<sup>41)</sup> 그러므로 兩者를 字形上 결부지어 볼 수는 있다. 吉田東伍와 那珂通世가 주창하였고, 이병도가 지지한 견해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다음과 같은 이병도의 반로국=성주설을 지지하는 소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k-1. 半路國: 경북 성주군: 일본 故吉田東伍 博士와 那珂通世 博士는 ‘半路’의 ‘路’字를 ‘跛’字의 誤라고 하여, 日本書紀(繼體紀)에 나타나는 伴跛 그것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星州 古名 本彼에 比定하였다[註1: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第二編 第三章 第二節 伽耶條, 및 那珂通世, 『朝鮮史考』(三韓考)].<sup>42)</sup>

k-2. 高靈方面에는 任那(魏志의 彌烏邪馬國), 星州方面에는 半跛(魏志의 伴路(跛?)國)…等 小國들이 있었는데<sup>43)</sup>

k-3. 伴跛(今 星山)<sup>44)</sup>

37) 盧弼 集解, 『三國志集解 伍』(上海古籍出版社, 2012), 2220~2221쪽.

38)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증세사연구소, 『中國正史東夷傳校勘』(2018), 41쪽.

39) 李道學,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2019), 55~56쪽.

40) 湯淺幸孫 校釋, 『翰苑校釋』(國書刊行會, 1983), 97쪽.

41) 『三國史記』 권34, 地理, 康州 星山郡 條.

42)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295쪽.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박영사, 1976), 274쪽.

43)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402쪽.

44)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449쪽.

위에서 인용한 이병도가 지지하는 소견에 따르면, 변한의 伴跋國을 『삼국지』에서는 半路國으로 誤記했다는 것이다. 그 소재지는 伴跋와音が 닮은 本彼로 일컬었던 星州로 비정하였다. 단재 신채호의 경우도 입론 근거는 다르지만 半路는 '별'로 읽기 때문에 별[星]의 뜻이니 星山伽耶 즉 지금의 성주로 비정했다.<sup>45)</sup> 상상에 불과한 半路國의 伴跋國 誤記 주장 보다는 단재의 지견이 오히려 공감이다. 그 밖에 內等虎次郎이나 그 설을 당초 계승한 今西龍과 末松保和도 伴跋를 성주로 비정하였다.<sup>46)</sup> 이렇듯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반파국의 위치를 성주로 비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집중 검증해 보도록 한다. 물론 본파와 반파가 음상사하다는 것은 兩者를 일치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증도 여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만 힘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耳懸鈴鼻懸鈴의 소지마저 있다. 예를 들어 성주의 古名인 本彼縣의 '本彼'는, 신라 경주 6부의 하나인 本彼部の '本彼'와 字形까지 동일하다. 명활산성작성비와 울진봉평신라비를 비롯한 중고기 신라 금석문에는 本彼部가 '本波部'로도 기재되어 있다. 本波部の '本波'는 오히려 伴跋國의 '伴跋'나 「양직공도」의 '叛波'와도 近似하다. 그렇다고 本彼部가 伴跋國과 연결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상사에 기초한 접근은 유력한 방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沙上樓閣에 불과할 수 있다. 참고로 伴跋는 일본 음으로 'ハヘ'였다. 『일본서기』에서 安羅는 'アラ', 加羅는 'カラ'로 음을 적어 놓았다. 안라와 가라에 대한 일본 음 표기가 근사하다면, 반파의 'ハヘ' 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伴跋를 本彼와 결부 짓는 견해는 더욱 설득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520년까지 星州가 반파국이라는 이름의 독립국으로 존속했다면, 『삼국사기』지리지에서는 신라에 정복당한 경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즉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 一云阿郡(那)加耶 以其地爲郡(安羅)” · “高靈郡 本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豉王 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九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대가야)” · “開寧郡 古甘文小國也 眞興王十八年 梁永定元年 置軍主爲靑州 眞平王時州廢(감문국)” · “獐山郡 祗味王時 伐取押梁[一作督]小國 置郡(압독국)” 등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라에 점령당해 郡縣으로 편제되거나 독립 小國의 존재가 명시된 경우가 많다. 星州=반파국이 6세기 초까지도 위세를 떨치다가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앞에서 인용한 구절과 유사한 양식으로 『삼국사기』에 수록되는 게 자연스럽다. 물론 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 사서와 「양직공도」에도 수록될 정도의 운동력과 존재감을 감안한다면, 신라 정복 관련 기사에 수록되지 않은 게 의아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성주는 『삼국사기』지리지에서 “新安縣 本本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라고만 적혀 있다.

게다가 『일본서기』계제 7년·8년·9년 조의 伴跋를 성주로 비정했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남원 등으로 비정되는 己汶이나 다사진이라는 섬진강 하구에 소재한 要港<sup>47)</sup> 장

45)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朝鮮上古史』,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上)』(瑩雪出版社, 1987), 108쪽.

46)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近澤書店, 1937), 391쪽, 401~402쪽.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125쪽.

47) 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144쪽.

악 관련한 분쟁인 만큼, 지리적으로 성주 세력이 개입할 소지는 희박하다. 오히려 섬진강 주변에 소재한 세력과 이에 대한 영향력을 소유한 세력에서 찾는 게 합당할 것 같다.<sup>48)</sup> 이러한 맥락에서 계체 7년·8년·9년 조의 기사를 계체 23년 조와 연결 짓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前者에 등장하는 伴跋와 후자인 계체 23년 조의 加羅는 동일시되어졌다.<sup>49)</sup> 그렇다면 伴跋가 곧 加羅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주 지역에 소재했던 伴跋를 고령의 加羅와 等値시키기 위한 논리가 만들어졌다. 伴跋는 성주를 제2중심으로, 고령을 제1중심으로 하는 大加耶國을 표방했다는 것이다.<sup>50)</sup> 혹은 성주의 본피국이 3세기대 이후 고령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상정하였다.<sup>51)</sup> 이러한 주장은 어떡하든 고령을 伴跋國과 묶으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발상이었다. 참고로 高靈은 韓鎭書가 弁辰 彌烏邪馬國의 소재지로 비정한 바 있다.<sup>52)</sup>

그럼에도 최근까지 제기된 성주=반파국설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 때 本彼縣이었던 성주의 本彼와 伴跋가 음통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주는 『삼국유사』 5가야조에 ‘星山伽耶’라는 가야의 일국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반파로 비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三國遺事』 五伽耶條에 의하면 星州는 ‘星山伽耶’ 혹은 ‘碧珍伽耶’가 있었던 곳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지역이 가야지역이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삼국유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야라는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sup>53)</sup> 일부 중복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백승옥의 견해를 집중 검증해 보기로 한다.<sup>54)</sup>

먼저 본피와 반파가 음상사하다는 것은 兩者를 일치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증도 여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만 힘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억지추향 소지마저 있다. 예를 들어 성주의 古名인 本彼縣의 ‘本彼’는, 신라 경주 6부의 하나인 本彼部の ‘本彼’와 字形까지 동일하다. 명활산성작성비와 울진봉평신라비를 비롯한 중고기 신라 금석문에는 本彼部가 ‘本波部’로도 기재되어 있다.

신라는 468년~490년에 걸쳐 대규모 산성축조와 개축을 단행했다. 대략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泥河城：江陵/ 三年山城：報恩/ 芑老城：軍威郡 孝令面/ 一牟山城：燕岐郡/ 沓達城：尙州市 化寧面/ 仇伐城：義城郡 北岫/ 屈山城：沃川郡 靑山面/ 刀那城：尙州市 牟西·牟東面/” 이와 같이 신라는 진한연맹의 범위를 넘어 강원도 방면 동해안과 충청북도 쪽으로도 팽창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구미

48) 물론 다사진을 낙동강유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호응하는 논자는 없었다.

49) 今西龍『朝鮮古史の研究』(近澤書店, 1937), 395~401쪽.

50) 今西龍『朝鮮古史の研究』(近澤書店, 1937), 397쪽.

51) 加羅의 공간적 범위를 뒤에 성주와 고령으로 설정한 今西龍의 견해는 이어졌다(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吉川弘文館, 1978), 206쪽).

52) 『海東繹史 續』 권3, 地理考3, 弁辰 條.

53) 백승옥,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 58(2000), 87~116쪽.

54) 이도학,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와 가야 학술대회』(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2019.11.15); 「백승옥, 「반파국 위치 재론」 토론」 『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와 가야 학술대회』(2019.11.15), 182~189쪽.

와 대구 사이에 소재한 성주를, 신라가 520년까지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星山伽倻를 가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라토기를 주로 사용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성주에서는 가야토기의 사용을 비롯한 가야적인 요소가 고고학적으로 크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 점도 성주=반파국설의 크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백승옥은 “성주 지역 또한 전반적으로는 신라 양식이지만 그 속에서 독자적 요소의 문화 양상을 보인다면 독립국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성주 지역의 ‘독자적 요소의 문화 양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순전한 ‘희망 가정’에 불과하였다.

백승옥은 “반파가 521년 이후 529년 사이에 가라에 복속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주 지역에 그 이후 가야 계통의 토기나 문화 양상이 보여야만 한다. 나타나거나 보이는가?

基汶河의 위치를 “기문은 섬진강 수계의 전북 동부지역 혹은 남강 수계의 경남 서부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영호남 경계 가야지역이 된다”고 했다. 백승옥은 기문하를 섬진강과 남강 모두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북 내륙의 성주 세력이 고령의 대가야 등을 제끼고 어떻게 섬진강이나 남강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 그렇지 않다면 불가사의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반파=장수설의 중요 근거가 되는 ‘置烽候邸閣’ 등의 기사는 중국 고전 등에 의해 윤색되었을 수 있으므로, 백승옥은 “置烽候邸閣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광개토왕릉비문』에도 중국 고전에 의해 가탁된 글귀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 문장의 격을 높이기 위해 『일본서기』에서도 由緒를 간직한 高雅한 문장으로 꾸며진 사례들이 등장한다. 문제는 潤色이 팩트, 즉 사실 자체를 창작했느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접근하는 게 좋을 듯하다. 윤색의 사전적 의미는 “1.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며지거나 미화되다 2. 어떤 사실을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미거나 미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과장과 미화가 덧 붙여지지만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置烽候邸閣’ 기사 역시 꾸며져 품격 있게 치장은 했을 수 있지만, ‘烽候’가 설치된 자체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백승옥은 “置烽候邸閣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봉수 기록이 된다”고 하면서, “장수군에서 시·발굴된 봉화유구가 삼국시대 6세기 초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분명한 것은 삼국시대에 봉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6세기대 한씨미녀와 고구려 안장왕과의 로맨스를 담고 있는 王逢縣과 達乙省縣 지명 유래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즉 『삼국사기』 지리지, 한산주 달을성현 조에서 “達乙省縣 漢氏美女 於高山頭默烽火 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峰”라고 하여 봉화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

그 밖에 최근의 발굴 결과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에서 5세기 후반~6세기 초 비화가야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했지만, 出字形 금동관을 비롯한 장신구 일체는 경주 황남동 신라 귀족 여성 무덤과 판박이 구성으로 드러났다. 결국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주체는 신라임이 확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



다.<sup>55)</sup> 이에 덧붙인다면 『삼국지』 동이전 변진 조의 “有已柢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馬延國) · 弁辰瀆盧國 · 斯盧國 · 優由國”라는 국명 가운데 ‘변진’이 앞에 붙지 않은 不斯國은 진한에 속한다. ‘진한 불사국’은 창녕을 가리키고 있다.<sup>56)</sup> 따라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본조사략』에 적힌 6가야의 하나인 비화가는 기실 ‘비화신라’인 셈이다.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창녕은 신라 연맹체의 일원으로 분류되었다.<sup>57)</sup> 성산가야도 5~6세기에는 신라로 지목하는 게 고고학상 대세를 이룬다. 이렇듯 ‘6가야’는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 3. 반파국=고령설

『일본서기』에는 반파국 기사가 등장한다. 돌연히 등장한 것 같은 반파국은 궁금증을 유발했다. 그러면 어떤 정체 세력일까?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음상사에 근거하여 성주설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설은 사실상 시효가 다한 것이다. 현재 학계 정설에 가까운 위상을 지닌 주장이 반파국=고령설이다. 이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자 한다.

伴跛가 등장하는 『일본서기』 계체 7년 · 8년 · 9년 조의 기사는, 伴跛 대신 加羅가 보이는 계체 23년 조와의 관련성이 언급되어 왔다.<sup>58)</sup> 그러므로 伴跛와 加羅와의 동일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6세기 초를 배경으로 史書에 불쑥 등장하는 伴跛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를 놓고 살펴 보아야 한다. 이때 伴跛는 백제와 영역을 놓고 갈등한 사실이 보인다. 그러한 기사를 통해 伴跛에 관한 몇 가지 정리가 가능해진다. 즉 伴跛는 시점상으로는 무녕왕대(501~523)인 계체 7년(513)~9년(515)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반파는 己汶의 땅을 놓고 백제와 대립하였다. 기문은 백제의 동편이며 반파와의 接界에 소재했다. 이러한 기문은 대체로 섬진강 중류~하류 지역이나<sup>59)</sup> 南原으로<sup>60)</sup> 비정되고 있다. 그리고 반파가 성을 쌓은 帶沙는 하동이며, 帶沙江은 섬진강을 가리킨다.<sup>61)</sup> 이러한 섬진강유역 영유권 분쟁에 개입한 倭는 伴跛 대신 백제편을 들어주었다. 백제 입장에서는 충돌했던 伴跛는 적개감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었다. 백제편을 들어주었다는 왜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정서에 속할 수 있다.

왜의 개입으로 기문은 백제로 반환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반파는 축성과 烽候와 邸閣을 두어 왜와

55) 허윤희, 「가야 무덤이라면서… 유물은 왜 신라인가요」 「가야 무덤이라는 창녕 고분, 쏟아져 나온 건 신라 장신구」(『조선일보』 2020.10.29).

56)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294쪽, 402쪽.

57) 최종규,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釜大史學』 7(1983), 71~73쪽.

58) 이러한 重出論은 平野邦雄, 『大和前代政治過程の研究』(吉川弘文館, 1985), 198쪽에서도 언급되었다.

59)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126쪽.

60)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近澤書店, 1937), 397쪽.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吉川弘文館, 1962; 天山社, 2002), 188쪽.

61)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126쪽.

결전을 준비했다. 동시에 반파는 신라를 공격하여 약탈을 했다(i-3). 그리고 반파는 帶沙江인 섬진강에 정착하고 있던 왜군을 기습하여 격퇴시켰다(i-4). 이러한 반파는 계체 9년 조인 515년까지 등장하였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529년, 즉 계체 23년 조의 새로운 국면 속에서 多沙津 지배권 쟁탈이 현안이 되었다. 백제가 기문을 확보한 516년(계체 10)부터 529년(계체 23) 사이에 이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계체 23년 조의 기록을 통해 그 사이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백제왕’으로 등장한 성왕이 왜와의 교섭로인 ‘加羅 多沙津’에 대한 지배권을 요청했다(i-6). 多沙津(帶沙)은 섬진강 하구의 要港이었다.<sup>62)</sup> 그러자 가라왕이 이에 항의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사진은 왜가 지원한 백제의 영역으로 귀속되었다. 이러한 왜에 대응하여 가라는 신라와 結讐했다고 한다(i-6).

516년~529년 사이에 多沙津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반파와 신라 및 백제와 왜가 갈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갈등은 529년에 백제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반파 대신 가라가 529년에 등장한 것이다. 여기서 반파와 가라의 관계가 궁금해진다. 즉 반파가 등장하는 계체 7년~9년 조와 가라가 등장하는 23년 조 간의 동일한 사건 여부이다. 물론 양자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사로 간주하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랬기에 伴跋와 加羅를 동일한 국가로 간주한 것이다.

김태식은 “가야측에서는 스스로를 ‘加羅王’이라 하고 백제를 ‘扶余’라고 부르는 데 비하여, 백제측에서는 상대를 ‘伴跋國’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 백제와 부여가 동일한 것임과 마찬가지로 가라와 반파도 그 지칭하는 바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sup>63)</sup>고 했다. 그러나 가야가 스스로 가라왕이라고 일컫지 않았다. 왜가 ‘가라왕’으로 일컬었다. 그리고 백제왕의 발언에서 ‘加羅’라고 하였다(i-6). 게다가 가야가 백제를 ‘부여’로 일컫지도 않았다. 왜에서 백제를 부여라고 일컬었다. 따라서 伴跋=加羅라는 전제가 무너졌다. 이와 연동하여 백제에서 일컫은 ‘伴跋國’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伴跋와 加羅가 동일한 국가일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본다. 『일본서기』撰者の 성향이나 당시의 제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표기가 나올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伴跋가 加羅의 蔑稱일 가능성은 상정할 수는 있다. 백제의 입장에서 볼 때 영토 분쟁과 관련해 가라는 적개감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는 백제편을 들어주었다는 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장에 속한다. 실제 계체 8년 3월 조(i-3)에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伴跋에 대한 왜측의 악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惡感이나 적개감은 흔히 국호에 대한 卑稱이나 蔑稱으로 표출되고는 한다. 가령 「광개토왕릉비문」에서 고구려가 백제를 ‘百殘’으로 일컫은 게 著例이다. 백제가 왜에 보낸 글에서 고구려를 ‘貊’으로 일컫은 것도 동일한 사례에 속한다.<sup>64)</sup> 이와 관련해 「양직공도」에서 ‘百濟旁小國’ 명단에 보이는 ‘叛波’가 주목된다. 이 叛波가 伴跋를 가리키는 그 시점이 무녕왕대로 동일하고, 백제가 적개감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일

62)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吉川弘文館, 1962; 天山社, 2002), 190쪽.

63)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02쪽.

64) 『日本書紀』 권19, 欽明 15년 12월 조.

뿐 아니라 국호가 음상사하다는 데 있다. 이로 볼 때 伴跋와 叛波는 분명히 비칭이요 멸칭이다. 그렇지 만 『일본서기』 찬자가 돌연히 가라를 비칭으로 표기해야할 당위성은 없다. 반파가 만행을 저질렀다는 대상은 백제나 왜가 아닌 신라의 민간인이었다(i-3). 더욱이 원전 인용도 아니므로 사료 계통의 차이를 논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술 체재의 일관성을 잃게 하는 돌연한 반파라는 비칭 표기 가능성은 수궁 이 어렵다.<sup>65)</sup> 더구나 i-6의 '扶余' 국호는 529년의 시점이다. 이 때는 백제가 부여로 改號한 538년에서<sup>66)</sup> 9 년 전의 일이 된다. 그러므로 '扶余'는 그 당시의 현장성을 지닌 표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디까지나 소급시킨 표기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빚어진 時點的 가치를 지닌 멸칭으로서 '반파' 가 능성은 희박해졌다.

그런데 i-1~4를 보면 백제나 왜 모두 伴跋로 일컬었던 대상이 i-6에서 돌연히 '加羅'로 바뀐 게 된 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백제·왜와 加羅가 후호 관계를 유지했기에 멸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 i-2 는 己汶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반파와 백제가 대립하면서 倭를 자국편으로 당기려고 했다. i-6은 다 사진에 대한 영유권 다툼과 관련해 가라와 백제가 왜를 자국편으로 당기려는 양상이다. i-2와 i-6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加羅'가 등장한 i-6을 보면 "이 때문에 加羅가 신라와 結儻해 일 본을 원망했다"고 했다. 이 역시 i-3에서 "3월에 伴跋가 子呑·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였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는 정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듯 주변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멸칭을 사용하다가 원래 국호로 환원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파가 가라와 동일한 세력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이 보인다. 514년에 반파는 신라를 공격해 서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했다(i-3). 그로부터 15년 후인 529년에 가라는 신라와 결당했다(i-6). 1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었다면, 신라에 대한 반파와 가라의 행태가 이처럼 판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반파와 가라를 동일시하는 견해의 모순이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반파=가라설의 핵심은 『일본서기』 계체기 7·8·9·10년 조 기사(i-1~5)와 계체기 23 년 조(i-6)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데서 기인하였다. 그 근거로 등장 인물이 동일하다는 점(穗積臣押 山, 物部連=物部伊勢連父根)과 i-2와 i-4에 등장하는 帶沙(帶沙江)와 i-6에 보이는 多沙津을 동일한 곳으로 이해하는 시각(金泰植, 『加耶聯盟史』 1993, 95~105쪽)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위의 기사들을 잘 살펴보면, 계체기 7~10년 조에 백제와 반파가 서로 점유하려던 핵심 지역은 대사가 아닌 기문이 었다. 그럼에도 계체기 23년 조의 기사에는 기문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체기 7~10년 조와 23년 조는 동일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다. 물론 두 사 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은 모두 일본측 인물이기 때문에 13

65) 『日本書紀』 底本에 등장하는 비칭은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冬 狍大軍來(雄略 20년 조)"라는 한성 함락 구절에서 백제가 고구려를 '狍'이라는 비칭으로 일컫고 있다. 백제에서 왜에 보낸 글에도 고구려를 '狍國'이라고 했다(『일본서기』 권19, 欽明 14년 8월 조). 혹은 왜왕의 발언에서도 고구려를 '狍賊'으로 일컫는 바 있다(『일본서기』 권19, 欽明 9년 6월 조). 이렇듯 비칭은 원전 인용이나 당시 발언 을 직접 인용한 데서 주로 보인다.

66) 『三國史記』 권26, 성왕 16년 조. "十六年 春 移都於泗沘[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

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등장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결국 대사와 다사, 반파와 가라는 서로 다른 지역과 정치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67)</sup>

실제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滯沙(i-2)와 帶沙江(i-4)은 ‘滯’와 ‘帶’로서 字形은 닮았지만 相異한 글자이다. 그리고 滯沙(i-2)는 백제 영역이 되었다. 그런데 반파가 축성한 帶沙(i-3)는 자국 영역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의 滯沙와 뒤의 帶沙는 서로 다른 곳으로 보아야 맞다. 게다가 계체 8년 3월 조에서 帶沙와 함께 기재된 子呑은 欽明 2년(541) 4월 조 · 23년(562) 정월 조의 子他와 동일한 곳이라고 볼 때<sup>68)</sup>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이와 더불어 i-2에 보이는 ‘伴跋 既展奚(계체 7년 11월 조)’가 ‘加羅 古展奚’(欽明 2년 4월 조)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sup>69)</sup> 양자 간의 시간은 513년과 541년으로 時差가 무려 28년이나 된다. 그럼에도 既展奚와 古展奚 모두 ‘こでんけい’로 읽혀지므로 동일하다는 데 착안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들의 국적인 伴跋나 加羅는 기실 동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속단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녔다. 계체 9년인 515년 이후에 伴跋는 기록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28년 전의 인물과 그 이후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전제하에, 앞의 국적과 뒤의 국적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검증해 본다. 양자가 설령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加羅가 伴跋를 병합했다면 국적이 달라지게 된다. 일본에 병합된 조선인들의 상황을 연상할 수도 있다. 이와 동일한 사례로 발해인 裴璆는 907년과 919년에 2회나 일본에 사신으로 온 바 있었다. 발해가 멸망한 뒤인 929년에 그는 東丹國 사신으로 일본에 왔다. 이 때 그는 “발해가 이미 멸망하여 東丹國의 신하가 되었다”고 했다.<sup>70)</sup> 이 같은 국적 변동 변수 요인도 작용하므로, 伴跋와 加羅를 동일한 국가로 단정하는 일은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i-3 기사에서 보듯이 반파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사의 사실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더라도 지리적 형세로 본다면 신라 공격의 주체는 高靈의 加羅가 온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반파가 대가야와 더불어 연맹의 일원이라면, 신라 遠征도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었다. 영역국가로 발전한 가라 즉 대가야는 강성한 반파가 백제 · 왜와 대결하여 국력이 소진된 틈을 타서 접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 4. 반파국=장수설

백제는 근초고왕대에 확보한 우수한 철산지인 곡성의 谷那鐵山에서 생산된 철을 대사강 즉 섬진강을 이용하여 운송했다. 그런데 역시 강력한 제철왕국인 반파 또한 섬진강 수로의 장악은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그렇기에 鐵의 통로인 섬진강 수로의 지배권 장악을 위해 양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

67)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2018), 102쪽.

68)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26~127쪽.

69) 井上光貞 外 校注, 『日本書紀(三)』(岩波書店, 1994), 183쪽 註4.

70)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一潮閣, 1995), 232쪽.

었다. 게다가 철을 수입했던 왜 세력까지 개입하여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건으로 해석되었다.<sup>71)</sup> 다음은 반파국=장수설의 논거가 된다.

① 『삼국지』의 고령 지역 정치 세력의 원 표기가 ‘伴跛國’ 혹은 ‘叛波國’이었다면 납득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한다. 통설처럼 ‘반파’가 멸칭 국호라면 고령 세력의 자칭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삼한제국 가운데 유독 고령 세력에겐만 악의적인 표기를 적용했는지 해명이 필요해진다. 내륙의 고령 세력이 중국 군현과 특별히 접촉하여 악연을 맺었을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이 무렵 고령 세력은 『삼국지』에서 두각을 나타낼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sup>72)</sup>

② 고령의 반파국이 5세기 후반에는 ‘대가야’를 표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sup>73)</sup> 479년에 가라 왕이 남제로부터 책봉받은 사실을 염두에 둔 서술로 보인다. 그런데 가라가 대가야를 표방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 고령군 조의 연혁에서 ‘大加耶國’이 보일 뿐이다. 만약 김태식의 논리대로라면 5세기 후반 이전에는 반파국으로 등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반파국은 6세기 초에 처음 등장할 뿐 그 이전에는 단 한번도 비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대가야’는 『삼국사기』 지리지를 제외하고는 本紀는 물론이고 어느 문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5세기 후반 이전에 대가야는 ‘加羅’로만 등장할 뿐이었다. 따라서 반파국과 대가야를 결부 지으려는 시도는 근거가 없다.

③ 『양직공도』에 보이는 백제 ‘旁小國’에 속한 叛波는 伴跛가 분명하다. 그런데 叛波를 비롯한 이들 제국들은 중국으로부터 책봉된 바 없었다. 그러나 가라 왕은 479년에 南齊로부터 ‘輔國將軍 本國王’을 제수받았다. 이처럼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되어 外臣이 된 가라가 백제 ‘곁의 소국’이요, 백제에 ‘의지하는’, 그리고 부용된 ‘방소국’의 반파일 수는 없다. 오히려 가라는 남제의 ‘방소국’이었다. 따라서 백제가 521년에 자국 곁의 ‘소국’이라고 梁에 공언했던 제국에는 가라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sup>74)</sup> 이로써도 가라와 반파는 서로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71) 李道學, 『谷那鐵山과 百濟』 『東아시아 古代學』 25, 2011; 『가야는 철의 왕국인가』 (학연문화사, 2019), 182~189쪽.

72) 田中俊明은 반파국의 소재지를 고령군 성산면으로 비정했다. 그는 “본래 고령군 성산면에 남아 있던 ‘本彼’라는古名이 고려시대에 해당 지역의 중심이었던 성주군 성주읍의古名인 것처럼 오해된 게 아닐까 생각된다(田中俊明, 『大加耶聯盟의 興亡と 任那』 (吉川弘文館, 1992), 45쪽)”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순전히 자의적인 상상에 불과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新安縣 本本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권34, 地理1, 新羅, 星山郡 條)”라고 하였듯이, 本彼縣에 연원을 둔 경산부는 지금의 성주군 성주읍이다. 게다가 지금의 성산면은 1906년에 고령군에 편입되었고, 성산면 지명은 1914년에 생겨났다. 그러니 성산면 지명의 연원이 경덕왕대 星山郡까지 소급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 뿐 아니라 2020년 12월 14일 오전에 성산면사무소의 담당 직원 손정훈에게 문의했더니 성산면에는 ‘본피’ 지명은 없다고 했다. 田中俊明의 허위 기술이 드러난 것이다.

73)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103쪽.

74) 李道學,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2019), 69~74쪽.



④ 13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일본서기』 주석서인 『석일본기』에서 “哆利國·伴跛國: 양국은 임나국의 別種이다”고 하였다. 임나제국은 “임나가 멸망했다. 통털어서 임나라고 말한다. 개별적으로는 가라국·안라국·사이기국·다라국·줄마국·고차국·자타국·산반하국·걸찬국·염례국 합해서 10국이다”<sup>75)</sup>고 했다. 任那本種인 가라국과 任那別種인 반파국은 별개의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맨 앞에 적힌 가라국이 562년에 멸망한 것과는 달리 반파국은 백제에 소멸되었기에 멸망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도 반파국은 임나제국의 서편, 백제의 동편에 소재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⑤ 『일본서기』에서는 고유명사의 표기가 상이하더라도 대상이 일치할 때는 訓讀 역시 동일하다. 백제의 경우 『일본서기』에서의 훈독은 ‘구다라クタラ’이다. 『일본서기』 계제 23년 조에 등장하는 ‘扶余’는 주지하듯이 백제의 異稱이다. 그러한 ‘扶余’를 역시 ‘クタ라’로 훈독했다. 훈독을 통해서 표기는 상이하지만 ‘백제’와 ‘부여’는 동일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 웅략 20년 조에서 ‘高麗’와 ‘狛’을 공히 ‘고마코마’로 훈독했다. 표기는 다르지만 양자가 동일한 세력임을 알려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라와 반파국이 동일한 국가라면 훈독이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加羅는 훈독이 ‘가라카라’이지만, 반파는 ‘하해ハヘ’였다. 이로써도 가라와 반파국은 상이한 별개의 국가로 드러난다. 따라서 ‘백제와 부여가 동일한 것임과 마찬가지로 가라와 반파도 그 지칭하는 바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sup>76)</sup>는 견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⑥ 반파국은 왜를 비롯한 백제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축성과 봉화대 그리고 軍倉을 축조했다. 여기서 봉화대의 축조 주체를 확인한다면 반파국과 가라의 동일 여부가 판명난다. 다음은 앞서 인용한 i-3 기사를 재인용했다.

i-3. 3월에 반파가 자탄·대사에 성을 쌓아 만해에 연결하였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이열비·마수비에 성을 쌓고, 마차해·추봉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했다. 자녀를 몰아내 약탈하고, 촌읍을 무자비하게 노략했다. 흉악한 기세가 가해지는 곳에 남는 게 드물었다. 대저 포박 사치하고, 괴롭히고 해치며, 침노하고 업신여기니, 베어죽인 게 너무 많아서 상세히 기재할 수가 없었다(계제 8년 3월조).

위에서 인용한 ‘烽候邸閣’에 대해 “『삼국지』 張既傳에서 “置烽候邸閣 以備胡”라고 하여 보인다. 봉화는 국경에서 事變이 있을 때 연기를 나게하여 통신하는 신호. 烽候는 봉화를 올리는 장소. 邸閣은

75) 『日本書紀』 권19, 欽明 23년 정월 조.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 合十國]”

76)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02쪽.

兵糧을 비치한 倉庫이다”<sup>77)</sup>고 정의했다. 그런데 봉후 곧 삼국기 봉화대는 고령을 비롯한 加羅 일원은 물론이고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sup>78)</sup> 반면 전라북도 무주 노고산과 장수를 비롯하여 전북 동부 지역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치된 110여 개소 봉화대가 확인되었다. 봉화대는 특히 120여 기의 가야계 古塚이 밀집된 진안고원의 장수권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었고, 또 그곳을 방사상으로 에워싸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동부 지역 봉화대의 설립 주체는 장수 지역 가야와의 관련성 뿐 아니라 독자성을 대변해준다. 더욱이 이들 봉화대는 조선의 봉수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sup>79)</sup> 이 사실은 왜에 대비하여 봉화대를 축조한 반파가 고령의 가라(대가야)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이다.<sup>80)</sup> 물론 봉화대 축조 동기는 왜의 침공 대비로 적혀 있지만 본래 설치한 봉화대를 증설 정비한 것으로 보아야 맞다. 그리고 반파국이 무자비하게 노략한 신라의 村邑은(i-3) 신라가 진출한 전라북도 무주로 상정할 수 있다.<sup>81)</sup> 모두 ‘문헌과 고고학의 아름다운 만남’인 것이다.

⑦ 반파국의 ‘반파’와 지명상으로 연결이 가능한 행정지명은 『삼국사기』 지리지 등에서 지금의 장수군 일대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다음은 『삼국사기』 지리지 기록이다.<sup>82)</sup>

1-1. 벽계군: 본래 백제 백이[혹은 백해]군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 장계현인데, 영현은 2개이다(壁谿郡 李百濟伯伊[一作海]郡 景德王改名 今長溪縣 嶺縣二).

1-2. 고택현: 본래 백제 우평현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 장수현이다(高澤縣 李百濟雨坪縣 景德王改名 今長水縣).

벽계군은 장수군 장계면, 고택현은 장수군 장수읍으로 비정되고 있다. 여기서 벽계군은 백제 때 伯伊郡이었지만 伯海郡으로도 일컬었다. 伯海의 ‘伯’은 字典에서 ‘만 백’·‘길 맥’·‘우두머리 패’의 뜻과 음인데, 모두 좋은 뜻을 지녔다.<sup>83)</sup> 그러한 백해의 ‘伯’ 음을 비틀었다면, 악의적인 ‘배반할’ 叛 자가 나올 수 있다. 백제 입장에서는 강성하여 자국 세력권에서 이탈해 간 백해 세력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叛 字로 변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海’는 뜻을 취하여 波로 변개한 것 같다.

77) 井上光貞 外 校注『日本書紀(三)』(岩波書店, 1994), 187쪽.

78) 정동락, 「고령지역 산성의 분포 현황」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14), 179쪽.

79)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축조 기법과 구조」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호남고고학회, 2020), 146~150쪽.

80)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2011), 95쪽. 조명일,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 41(2012), 82~84쪽.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2017), 17쪽.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2018), 104쪽.

81) 李道學,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全北學研究』 2(전북학연구센터, 2020), 62~63쪽.

82) 『三國史記』 권36, 雜志5, 地理, 新羅.

83) 백해의 의미를 ‘大都’로 풀이하는 견해(곽장근, 「삼국시대 봉화대 분포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가야 심포지움』(전북연구원, 2020.10.16), 19쪽)도 이곳이 반파국의 거점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관동의) 네번째를 波珍滄이라고 한다. 혹은 海干이라고도 하고, 혹은 破彌干이라고도 한다”<sup>84)</sup>는 기사를 주목한다. 여기서 ‘파’로 읽는 ‘波珍’은 ‘海’의 훈독이다. ‘珍’은 ‘돌’ 즉 ‘돌[石]’로도 읽었다. 가령 백제의 珍惡山縣을 石山縣으로 바꾸었다. ‘珍’과 ‘石’의 대응을 읽을 수 있다. 광주 無等山은 본래 武珍岳이라고 했다. 역시 ‘등’ 즉 ‘돌’과 ‘진’은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伯海는 ‘伯波珍’ 즉 ‘백파돌’로 불리었을 수 있다고 본다. 3음절 가운데 앞의 2음절 ‘백파’를 비틀어서 ‘伴跛·叛波’로 표기했을 수 있다. 반대로 伯海가 伴跛의 借用일 가능성도 보인다.

더욱이 『전운옥편』에서는 ‘伯’의 음가를 ‘파’로 적었다. 그렇다면 伯海의 발음은 ‘파해’이다. ‘파해’는 『일본서기』에서 伴跛의 음가인 ‘하해ハヘ’와 音似하다. 『일본서기』에서 安羅는 ‘아라アラ’, 加羅는 ‘가라カラ’로 음을 적어 놓았다. 안라에 대한 ‘아라’ 음은, 『삼국유사』에서 ‘阿羅伽耶’<sup>85)</sup>라고 한, ‘아라’와도 음이 같다. 게다가 加羅에 대한 ‘가라’ 음은 우리가 현재 일컫는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반파에 대한 『일본서기』의 ‘하해’ 음가는 존중할 수 있다.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인 伯海의 음인 ‘파해’는, 반파 음가인 ‘하해’와 연결된다. 게다가 탁음을 붙이면 ‘ハヘ’ 즉 ‘파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제의 雨述郡을 比豐郡으로 고친<sup>86)</sup> 것을 통해, ‘雨’와 ‘비’의 대응 관계가 확인된다. 장수군 장수읍을 가리키는 雨坪縣의 ‘雨坪’도, 훈과 음을 섞으면 ‘비평’이다. ‘비평’은 ‘반파’와 음이 서로 닮았다.<sup>87)</sup> 이렇듯 반파국은 『삼국사기』에서 지금의 장수군 장계면의 백제 때 행정지명 ‘백해’와 연결된다.

⑧ 백제와 충돌했던 반파국은 515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반면, 백제와의 충돌 현장인 다사진의 소유국으로 加羅가 등장했다. 이를 근거로 반파국과 가라를 동일시하였다. 게다가 왜에 사신으로 온 ‘伴跛 既展奚’(계체 7년 11월 조)와 ‘加羅 古殿奚’(흥명 2년 4월 조)가 동일 인물이라는 데서 근거를 찾았다.<sup>88)</sup> 그러나 양자 간의 시점은 513년과 541년으로 시차가 무려 28년이나 된다. 그럼에도 기전해와 고전해 모두 ‘고덴게이こでんけい’로 읽혀지므로 동일한 인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속국인 반파와 가라는 동일 국가라는 것이다.<sup>89)</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순전히 불확실한 추측에 근거하였다.

동일한 『일본서기』 계체 7년 11월 조에 등장하는 인명 賁巴委佐의 훈독은 ‘ほんはわさ’이다. 이에 대해 “賁은 古寫本の 傍注에 따라 ‘ホン’으로 訓했다. 그러나 … 따라서 이 인명을 訓하는 방법은 다

84) 『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 上. “四曰波珍滄 或云海干 或云破彌干”

85) 『三國遺事』 권1, 紀異, 五伽耶.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86) 『三國史記』 권36, 地理3, 比豐郡.

87) 이도학,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2020.6.26), 17~18쪽.

88) 井上光貞 外 校注『日本書紀(三)』(岩波書店, 1994), 183쪽 註4.

89)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02쪽.

시 생각해야 한다”<sup>90)</sup>고 했다. 賁巴委佐의 훈독 ‘혼하와사’는 현대 연구의 결과물일 뿐 전승된 표기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異論이 많아서 옳은 훈독 여부도 확정짓지 못하였다. 이러한 賁巴委佐에 잇대어 적혀 있는 ‘既展奚’에 대해서는 “既를 ‘고코’로 읽은 것은, 巨勢를 既洒로 쓴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sup>91)</sup>고만 적어놓았다. 既展奚을 ‘고텐게이’로 읽은 것은 ‘古寫本の 傍注’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용례에 따른 推讀이었다. 既展奚=고텐게이 훈독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결국 기전해와 고전해에 함께 붙은 훈독 ‘고텐게이こでんけい’는 가변성을 지닌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인 훈독을 보전하고 있는 『釋日本紀』에 따르면, ‘伴跛 既展奚’는 ‘기텐게이키텐케이’, ‘加羅 古殿奚’는 ‘고텐게이코텐케이’로 각각 읽었다.<sup>92)</sup> 조선사편수회에서 간행한 『朝鮮史(日本史料)』에서도 既展奚은 ‘기텐게이키텐케이’로 훈독했다. 그리고 古殿奚’는 ‘고데무게이코템케이’로 훈독했다.<sup>93)</sup> 어떻게 보든지 兩者의 漢字 표기는 물론이고 훈독마저 相異했다. 양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다. 이처럼 既展奚나 古殿奚와 유사한 이름은 ‘加羅國王妹 既展至’<sup>94)</sup>의 既展至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와 더불어 변한 수장층 가운데 중하급 호칭인 殺奚가 있다.<sup>95)</sup> 살해처럼 기전해(고전해)의 ‘해’ 역시 職名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라가 반파를 병합했다면 설령 양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적은 달라진다. 일본에 병합된 조선인들의 상황을 연상할 수 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해 본다. 발해인 裴璆는 907년과 919년 총2회 일본에 사신으로 왔었다. 발해 멸망 직후인 929년에 그는 東丹國 사신으로 다시 일본에 왔다. 이 때 그는 “발해가 이미 멸망하여 동단국의 신하가 되었다”고 했다. 이 같은 국적 변동이라는 변수도 있다. 따라서 반파와 가라를 동일 국가로 단정하는 일은 속단일 수 있다.<sup>96)</sup> 실제 고고학적 발굴과 분석을 통해 반파국이 가라에 병합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97)</sup>

이러한 관련 사안 검토를 통해 반파국과 加羅는 서로 별개의 정치 세력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⑨ 반파=가라설의 핵심은 『일본서기』 계체 7·8·9·10년 조 기사(i-1~5)와 계체 23년 조(i-6)를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한데서 기인하였다. 그 근거로 등장 인물이 동일하다는 점(穗積臣押山, 物部連=

90) 井上光貞 外 校注『日本書紀(三)』(岩波書店, 1994), 183쪽 註3.

91) 井上光貞 外 校注『日本書紀(三)』(岩波書店, 1994), 183쪽 註4.

92) 『釋日本紀』 권17, 秘訓2, 第十七. 『釋日本紀』 권18, 秘訓3, 第十九.

93) 朝鮮史編修會『朝鮮史 第一編第二卷(日本史料)』(朝鮮總督府, 1932), 113쪽, 132쪽.

94) 『日本書紀』神功 62년 조. “加羅國王妹 既展至”

95) 『三國志』 권30, 東夷傳 韓 條, 弁辰 項.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藏 次有殺奚 次有邑借”

96) 이도학,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역사와 담론』 90(2019), 64쪽.

97) 全榮來『南原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75쪽, 78쪽, 80~81쪽.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정음사, 1985), 148~151쪽.

物部伊勢連父根), 양자 모두 己汶·滯沙와 多沙津을 백제에 각각 할양했다는 것, i-2와 i-4에 등장하는 滯沙(帶沙江)와 i-6의 다사진이 동일한 곳이라는 데서 출발했다.<sup>98)</sup> 그런데 기사를 잘 살펴보면, 계체 7~10년 조(i-1~5)에서 백제와 반파가 서로 점유하려던 핵심 지역은 대사가 아닌 기문이었다. 그런데 계체 23년 조 기사(i-6)에는 기문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체 7~10년 조와 그 23년 조는 동일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두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일본측 인물이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등장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sup>99)</sup>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穗積臣押山과 동일한 인물을 i-6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失名한 物部連을 『백제본기』에서는 物部至至連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i-6의 物部伊勢連父根과 인명상 연관이 없다. 따라서 김태식이 제기한 양자 간의 점유 목표 지역과 등장 인물까지도 동일하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

그리고 倭가 己汶·滯沙를 백제에 할양했다는 것은 윤색과 과장으로 일관된 『일본서기』의 서술 태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죽히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양자를 동일한 기사로 지목한 설의 핵심 근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해 본다. 즉 계체 7·8·9·10년 조(i-1~5)와 계체 23년 조(i-6)를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논리에는, 백제 왕에게 내려주었다는 多沙津(i-6)과 “己汶·滯沙를 백제국에 내려주었다(i-2)”의 ‘滯沙’를 동일한 지역으로 지목한데서도 찾았다. 그러나 “滯沙를 백제국에 내려주었다(i-2)”고 했지만 연이어 “3월에 반파가 子呑·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였다(i-3)”고 하여 반파국이 帶沙에 축성하여 倭에 대비했다. 백제 땅이 된 滯沙(帶沙)에 반파국이 축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경우는 滯沙가 帶沙나 多沙津과 서로 다른 지역이거나, 倭가 滯沙를 백제에 주었다는 기사가 오류였을 때만 성립한다. 따라서 계체 7년 조인 i-2에 근거한 滯沙=多沙津說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아가 i-1~5와 i-6을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해진다. 결국 대사와 다사, 반파와 가라를 동일시하기에는 근거가 부적합하다.<sup>100)</sup>

⑩ 伴跛와 叛波를 모두 加羅의 비칭이나 멸칭으로 간주해 왔다. 우선 伴에는 짝·모실·의지할·한가할의 뜻이 담겼다.<sup>101)</sup> 跛에는 절뚝발·절뚝발이·절룩거릴(파), 기우듬히 설(피)의 뜻이다.<sup>102)</sup> 伴跛는 ‘절룩거리며 의지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叛波의 叛은 ‘배반할’의 뜻이다. 波는 물결·물결일·쏟아져 흐를·움직일·발버둥칠(파)·방죽·따라갈(피)의 뜻을 지녔다.<sup>103)</sup> 그러므로 叛波는 ‘배반할 물결’을 비롯하여 ‘배반하여 움직일’·‘배반하여 발버둥칠’·‘배반하여 따라갈’과 같은 부정적인

98) 金泰植, 『加耶聯盟史』(일조각, 1993), 101~102쪽.

99)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2018), 102쪽.

100) 李道學,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2019), 63쪽.

101)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民衆書林, 2007), 166쪽.

102)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民衆書林, 2007), 1998쪽.

103)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民衆書林, 2007), 1136쪽.



의미로 해석된다. 伴波와 叛波는 음은 동일하지만 앞 글자인 伴과 叛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절룩거리며 의지하였다’는 伴波는, 발이나 다리가 성하지 못하여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의지한 상태를 말한다.

伴波와 叛波라는 2개의 국호 가운데 伴波가 원 국호라면, 叛波는 이에 대한 비칭이나 멸칭으로 보인다. 반파는 섬진강유역 소국들을 자국에 붙게 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기획 국호로 간주된다. 반면 叛波는 반파국이 섬진강유역 지배권을 둘러싸고 백제와 대립과 충돌한 직후에 백제가 붙인 멸칭이자 타칭으로 보인다.

⑪ 백제 사신이 梁에 조공한 521년을 하한으로 하는 「양직공도」에 적힌 백제 곁의 소국에 대한 해석을 다시 제기한다. 즉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라는 구절에 등장하는 소국들에 대한 해석이 된다. 여기서 이견 없이 실체가 분명한 소국인 斯羅와 多羅를 놓고 ‘旁小國’의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斯羅는 주지하듯이 신라를 가리킨다. 그런데 신라는 당시 백제 곁의 소국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우선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은 대등한 관계였다. 그랬기에 동성왕은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였다. 비록 521년에 신라는 백제 사신을 따라 양에 조공했다.<sup>104)</sup> 그렇지만 1년 전인 520년에 신라는 올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였다. 집권국가체제로 정비된 것이다. 이러한 신라는 주변의 소국들과는 위상이 현저히 달랐다. 백제 곁의 소국인 이들 제국과는 同列에 설 수 없는 높은 위상을 지녔다. 그럼에도 ‘소국’ 반열에 든 것은 중국을 기준해서 볼 때 책봉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 왕은 565년(진흥왕 26)에 와서야 처음으로 중국의 北齊로부터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에 책봉되었다.<sup>105)</sup>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40여년 전에 신라 사신이 백제 사신을 따라 양에 조공했다. 이 때 신라 사신의 모습은 “하는 말은 백제가 도와 준 후에야 통했다”<sup>106)</sup>고 하였다. 백제 사신의 통역을 통해야만 신라 사신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었다. 반면 가라 왕은 479년에 남제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러한 가라를 백제가 자국의 소국으로, 그것도 백제가 책봉받으로 간 중국 양에서 광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었다.<sup>107)</sup> 이 점에서도 반파국과 가라는 동일할 수가 없다.

⑫ 장수 지역의 가야 문화 현상은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력과 무관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서기』와 「양직공도」에 모두 등장하는 多羅는 가라의 바로 남쪽인 합천 쌍책면을 거점으로 하였다. 이 곳의 옥전 고분군에서 520년대를 상한으로 하여 6세기 중엽까지 조성된 고분에서 신라계 묘제인 횡구식 석실묘가 돌연히 등장한다. 부장품 가운데 피장자의 정체성 지표가 되는 出字形 寶冠과 把手附

104) 『南史』 권79, 동이전 신라 조.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 隨百濟奉獻方物”

105) 『三國史記』 권4, 진흥왕 26년 조. “春二月 北齊 武成皇帝詔 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106) 『梁書』 권54, 동이전 신라 조. “語言待百濟而後通焉”

107) 이에 대한 서술은 李道學, 「伴波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2019), 69~74쪽을 참조하라.

杯는 신라계였다.<sup>108)</sup> 특히 M6호분에 부장된 出字形寶冠은 정치적 상징성이 지대한 것이므로, 문화 교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무렵 다라국 사회에 지대한 변화가 따랐음을 뜻하는 징표일 수 있다. 즉 다라가 근접한 가라를 제끼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신라와 정치적으로 밀착했음을 반증한다. 실제 다라는 가라 사신과 더불어 541년(欽明 2)에 임나제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독자 사신을 파견했다. 다라는 544년(欽明 5)에도 가라와 나란히 사신을 회의에 보냈다. 그리고 다라는 562년에 멸망할 당시의 가라나 안라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남은 임나 10국에 속했다.<sup>109)</sup> 이렇듯 다라국은 가라와 지리적으로 접했지만 멸망할 때까지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다라는 가라에 종속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제(旁小國)와 신라(出字形寶冠)의 입김이 함께 미치는 독자 정치체였다. 그러므로 대가야 분묘 형식과 토기의 존재를 정치적 영향력과 일치시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본다. 장수 삼고리 등의 가야계 高塚의 전성기가 6세기 초까지 이어졌다고 한다.<sup>110)</sup> 이 사실은 장수 지역 고총과 부장품은 가야계이지만 가라 즉 대가야 정치 세력권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장수 지역이 정치적으로 대가야 영향권에 속했다면 고총의 쇠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총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장수 지역을 대가야에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기는 어렵다.

⑬ 반파국은 백제와 대립하여 갈등했지만, 「양직공도」를 통해 521년 이전에 백제에 부용된 것으로 적혀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백제가 반파국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기문의 경우는 백제 영역으로 적혀 있지만(i-2), 「양직공도」의 ‘상기문’은 기실 영향권에 넣은 정도임을 반증했을 뿐이다. 즉 기문하인 섬진강 가운데 상기문인 운봉 지역이 백제에 복속되었다고 하지만, 영향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에서 倭를 축으로 한 과장과 윤색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522년에 가라가 신라에 國婚을 요청한 것이다.<sup>111)</sup> 이러한 양국 간의 국혼은 『일본서기』 제23년 조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주지하듯이 국혼은 정략결혼이었다. 가령 백제 동성왕이 신라 왕녀와 국혼한 것이나, 성왕이 자신의 딸을 신라 진흥왕의 小妃로 보낸 것, 3세기 후반에 백제 책계왕이 대방왕 보과의 딸과 결혼한 것 등은 현안을 타개하려는 정략의 산물이었다. 즉 “고구려가 대방을 정벌하려 하자, 대방은 백제에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백제 책계왕은 대방 왕녀 보과와 결혼하여 夫人을 삼았다. 그런 까닭에 ‘대방은 우리와 장인과 사위의 나라이니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드디어 군대를 내어 이들을 구원하자 고구

108) 조영제, 『옥전고분군과 다라국』(해안, 2007), 120~121쪽, 228쪽, 237~238쪽, 244쪽.

109) 『日本書紀』 권19, 欽明 23년 정월 조.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 合十國]”

110) 곽장근,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경남발전』 138(2017), 50쪽.

111) 『三國史記』 권4, 법흥왕 9년 조.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浪比助夫之妹送之”

려가 원망하였다. 왕은 고구려의 침구를 염려하여 아단성과 사성을 수리하여 이를 대비하였다”<sup>112)</sup>고 했다. 대방은 고구려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국혼을 매개로 백제와 동맹한 것이다. 가라가 신라와 손잡으려 한 이유는 백제의 東進을 막으려는 현안 타개책이었다. 그 이전인 493년에 백제 동성왕의 제의로 신라와 국혼이 성사되었다.<sup>113)</sup>

「양직공도」에 적힌 백제 결의 소국에는 백제에 우호적인 비등한 국력의 신라도 포착된다. 문제는 가라와 신라가 국혼한 522년이다. 이 때 가라는 백제의 동진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바로 그 1년 전인 521년까지의 정보가 담긴 「양직공도」에는 가라와 백제의 대결이 첨예한 시점이었다. 그렇기에 책봉 문제가 아니더라도 백제의 旁小國에 가라를 형편 좋게 신라처럼 기재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맞다. 지금까지 많은 논거를 제시하여 대가야=반파국설의 허구를 摘出하였다. 다음은 사소한 문제점들이지만 본고와 관련해 다음의 견해를 적출하여 검증해 보기로 한다.

m. 子呑은 「欽明紀」 2년(541) 4월 조 등에 보이는 子他和 같다고 보인다. 자탄과 자타의 訓은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에서는 ‘고톤 コトン’, ‘고타 コタ’로 하고 『釋日本紀』에서는 ‘시톤 シトン’, ‘시타 シタ’라고 하였다. 그 발음에 따라 居陀 즉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 한 설과(각주 119: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27쪽), 漆吐 즉 지금의 경남 칠원이라 한 설로(각주 120: 전영래, 『南原 草村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76쪽) 견해가 나뉜다. 그러므로 자탄·자타는 ‘고톤·고타’로서 발음되어 우리 지명에서의 ‘거타’와 같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자탄=자타는 진주로 보는 것이 옳다.<sup>114)</sup>

김태식은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에서는 子呑을 ‘고톤 コトン’, 子他를 ‘고타 コタ’로 하고 『釋日本紀』에서는 ‘시톤 シトン’, ‘시타 シタ’라고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인 岩波本에서는 子呑을 ‘시돈 しとん’, 子他를 ‘시다 した’로 적었다. 그러므로 김태식은 자신이 인용한 『일본서기』 流布本の 出典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태식은 『釋日本紀』에서 子呑과 子他를 각각 ‘시톤 シトン’, ‘시타 シタ’라고 했지만, 『釋日本紀』에서는 濁音を 넣어 子呑은 ‘지돈 ジトン’ 그리고 子他는 ‘지다 ジタ’로 각각 읽었다.<sup>115)</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태식은 『일본서기』 流布本에서 子呑을 ‘고톤’, 子他를 ‘고타’로 발음한다고 하여 동일 지역으로 간주했고, 급기야 居陀로 불렀다는 晋州로 비정했다. 그렇지만 핵심 근거인 ‘고톤’이나 ‘고타’ 발음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末松保和가 『任那興亡史』에서 자탄을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고 했었지만, 정작 同書의 동

112) 『三國史記』 권24, 책계왕 원년 조.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葉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旦城·蛇城備之”

113) 『三國史記』 권26, 동성왕 15년 조.

114) 金泰植,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서경문화사, 2014), 131쪽.

115) 『釋日本紀』 권17, 秘訓2, 繼體. 『釋日本紀』 권18, 秘訓3, 欽明.

일한 쪽에서는 “晉州以西, 섬진강 방면의 山地로 여겨진다”<sup>116)</sup>고 했다. 이렇게 되면 김태식이 반파=대가야라는 전제에서 설정한 진주 혹은 거창을 위시한 방어 체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고로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고 한 출전은, 岩波本『일본서기』註釋에서 “子他(子呑): 임나의 한 國으로 경상남도 거창 또는 진주 땅이라고 한다”고 한 구절이다.<sup>117)</sup> 여기서 두 곳을 동일한 곳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子呑과 子他는 글자도 다를 뿐 아니라 음가도 동일하지 않다. 두 지명이 동일하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

반파국이 왜군의 침공 예상로에 축성한 것이므로 내륙의 거창이나 진주는 타당하지 않다. 섬진강 하구를 비롯한 그 연변 지역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子呑은 轉也山郡이라 불리었던 南海島와<sup>118)</sup> 결부지을 수 있는 여지는 보인다. 즉 轉也山이 轉他山の 刊誤일 때는 더욱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반파국의 영향력은 섬진강 수계 전체를 넘어 남해안 수로까지 미쳤음을 뜻한다.

반파국은 신라를 급습하여 참혹한 타격을 안겨주었다(i-3). 그리고 반파국은 515년에 대서강에 진입한 왜군을 무자비하게 격파했다(i-4). 최성기 반파국의 강성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반파국의 영역과 세력권은 발굴과 조사를 통해 드러난 봉화 체계의 공간적 범위와 더불어, 축성한 지명 등을 통해 볼 때 광대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반파국과 가라는 서로 별개의 국가로 분류된다. 兩者를 동일한 국가로 간주했을 때는 도저히 수궁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빈출하였다.

#### IV. 「梁職貢圖」에 기재된 ‘叛波’의 검증

『일본서기』의 ‘伴波’나 ‘양직공도’의 ‘叛波’는 字義上 모두 어감이 좋지 않다. 반파는 백제와 대결할 정도의 세력이었다. 그로 인해 백제는 加羅의 국호를 폄칭한 것으로 단정했다. 게다가 彌烏邪馬國이 고령에 소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반파의 위치를 고령으로 지목하였다.<sup>119)</sup> 그러나 이러한 정황들은 伴波를 加羅로 지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양직공도」의 다음 ‘旁小國’ 명단을 음미해 본다.

n.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梁 元帝가 형주자사 在任 時인 526년~539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하는 「양직공도」를 보면 백제 걸

116)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127쪽.

117) 井上光貞 外 校注『日本書紀(三)』(岩波書店, 1994), 247쪽, 187쪽.

118) 『三國史記』 권34, 地理1, 新羅 南海郡.

119)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03쪽.

의 小國으로 9개 국이 열거되었다. 이들 소국은 형식상 일종의 백제 위성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반파’가 보인다. 그리고 ‘탁’은 『일본서기』의 卓淳國으로서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하였다. ‘다라’는 경상남도 합천에 소재했다. ‘전라’는 그 위치를 押督國이 소재한 경상북도 경산이나 함안의 安羅로 비정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사라’는 신라를 가리킨다. 이 점 『梁書』 신라 조에서 “혹은 斯羅라고 한다”고 한 기사에서 당시 ‘사라’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미’는 『신찬성씨록』 河內國皇別 條에 보면 백제에 파견된 왜장이 ‘止美’의 吳女를 취한 기사가 있다. 止迷는 곧 이 ‘止美’로 보인다. ‘지미’는 369년에 백제 근초고왕이 경락한 忱彌多禮의 ‘침미’와 음이 닮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미는 전라남도 해남으로 비정된다. ‘마련’은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지만 『삼국지』 변진 항에서 변한 소국의 하나인 馬延國과 음이 닮았다. 이곳을 경상남도 밀양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상기문’은 전라북도 임실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하침라’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지목하지만 명확하지 않다.<sup>120)</sup>

‘旁小國’ 명단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대상은 叛波와 斯羅이다. 사라는 주지하듯이 신라를 가리킨다. 문제는 논의의 중심인 叛波이다. 叛波는 伴跋가 분명하지만 加羅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백제 결의 소국’으로 신라가 소개되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본다. 신라는 당시 백제 결의 소국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우선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은 대등한 관계였다. 그러한 선상에서 동성왕은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였다. 비록 521년에 신라는 백제 사신을 따라 梁에 조공했다.<sup>121)</sup> 그렇지만 그 1년 전인 520년에 신라는 울령을 반포하고 公服을 제정하였다. 국가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이러한 신라는 주변의 소국들과는 위상이 현저히 달랐다. 백제 결의 소국으로서 이들 諸國과는 同列에 설 수 없는 높은 위상을 지녔다. 그럼에도 ‘소국’ 반열에 든 것은 중국을 기준해서 볼 때 책봉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는 565년(진흥왕 26)에 와서야 처음으로 중국의 北齊로부터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에 책봉되었다.<sup>122)</sup>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40여년 전에 신라 사신이 백제 사신을 따라 양에 조공한 것이다. 이 때 신라 사신의 모습은 “하는 말은 백제가 도와준 후에야 통했다”<sup>123)</sup>고 하였다. 백제 사신의 통역을 통해야만 신라 사신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신라는 381년(나물니사금 26)에 衛頭를 前秦에 보내 苻堅王에게 조공한 바 있었다.<sup>124)</sup> 이 때 신라의 국호 변천을 비롯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가 남겨져 『양서』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서』는 521년 시점에서 무려 1백여 년이 지난 629년에야 편찬이 시작되었다. 신라에 대한 정보가 梁朝에 알려지지 못한 연유이다.

당시까지 신라는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책봉된 적이 없었다. 책봉은 황제권을 위임받아 관할 지역을 통치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책봉받은 바가 없었기에, 황제로부터 위임 받은 게 없었다.

120) 이상의 서술은 李鎔賢, 『가야제국과 동아시아』(동천문화사, 2007), 184쪽.

121) 『南史』 권79, 동이전 신라 조.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 隨百濟奉獻方物”

122) 『三國史記』 권4, 진흥왕 26년 조. “春二月 北齊 武成皇帝詔 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123) 『梁書』 권54, 동이전 신라 조. “語言待百濟而後通焉”

124) 『三國史記』 권3, 나물니사금, 26년 조. 『太平御覽』 권781, 四夷部 동이전 신라 조.



그렇기에 백제로서는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되지 않은 신라를 자국 곁의 ‘소국’으로 취급한 것이다. ‘旁’에는 ‘의지함’의 뜻도 담겨 있다. 그러므로 ‘旁小國’은 ‘백제에 의존하는 소국’ 즉 위성국이라는 의미였다. 실제 ‘附之’라고 하여 백제의 附庸國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책봉 사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 〈백제〉

연대	왕/ 중국 왕조	官位
372년	근초고왕 27년. 동진	鎮東將軍 · 領樂浪太守
416년	전지왕 12년. 동진	使持節 · 都督百濟諸軍事 · 鎮東將軍 · 百濟王
425년	구이신왕 6년. 유송	使持節 · 都督 · 百濟諸軍事 · 鎮東大將軍 · 百濟王
430년	비유왕 4년. 유송	使持節 · 都督百濟諸軍事 · 鎮東將軍 · 百濟王
457년	개로왕 3년. 유송	鎮東大將軍
490년	동성왕 12년. 남제	鎮東大將軍 · 百濟王
521년	무녕왕 21년. 양	使持節 · 都督百濟諸軍事 · 寧東大將軍
524년	성왕 2년. 양	使持節 · 都督百濟諸軍事 · 綏東將軍 · 百濟王
570년	위덕왕 17년. 북제	使持節 · 侍中 · 車騎大將軍 · 帶方郡公 · 百濟王
571년	위덕왕 18년. 북제	使持節 · 都督東靑州諸軍事 · 東靑州刺史
581년	위덕왕 28년. 수	上開府儀同三司 · 帶方郡公
624년	무왕 25년. 당	遣使就冊爲帶方郡王 · 百濟王
641년	의자왕 1년. 당	柱國 · 帶方郡王 · 百濟王

#### 〈신라〉

연대	왕/ 중국 왕조	官位
562년	진흥왕 26년. 북제	使持節 東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
594년	진평왕 16년. 수	上開府 樂浪郡公 新羅王
624년	진평왕 46년. 당	柱國 樂浪郡公 新羅王
635년	선덕왕 4년. 당	柱國 樂浪郡公 新羅王
647년	진덕왕 1년. 당	柱國 樂浪郡王
654년	태조무열왕 1년. 당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662년	문무왕 2년. 당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백제 ‘旁小國’의 ‘叛波’가 加羅와 동일한 대상이라면 책봉된 적이 없어야 한다. 물론 백제가 의도적으로 加羅를 貶稱하여 ‘叛波’로 표기할 수는 있다. 만약 그렇다면 加羅라는 국가를 거느린 백제의 국제적 위상은 半減되는 것이다. 加羅의 존재는 梁에서 認知하여 백제의 위상을 오히려 과시할 수 있는 機制였다. 당시 백제는 기실 자국과 국력이 비등한 신라 사신을 대동하여 梁에 조공했다. 그럼으로써 백제는 자국의 위상을 梁에 전달하고, 또 무녕왕의 관작을 상향시키는 기제로 활용하였다. 이 때 백제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호언했다. 그 결과 백제가 “다시금 강국이 되었다”는 평가를 梁으로부터 받았다. 백제는 복구된 국가적 위상을 양에 보여 주고자 노력

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百濟旁小國’을 등장시켰던 것 같다. 이 가운데 가장 강대한 신라의 사신을 대동함으로써 백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약소국이 아닌 신라의 사신을 데리고 옴으로써 8개 소국도 그에 준하는 국가 줌으로 인식하게 해서 백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백제는 加羅를 고의로 폄훼시켜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국호인 ‘叛波’로 표기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叛波는 가라 즉 대가야일 가능성은 없다.

加羅는 신라보다 훨씬 이전인 479년에 加羅王 荷知가 남제로부터 ‘輔國將軍 本國王’에 책봉되었다.<sup>125)</sup> 加羅는 웅진성 천도 후 백제 政情의 혼란을 틈타 백제 영향권에서 이탈하여 남제와 직접 통교한 것이다.<sup>126)</sup> 가라는 신라보다 무려 86년이나 일찍 책봉을 받았다.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책봉된 국가를 백제가 ‘소국’으로 梁에 거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梁은 南齊를 계승한 국가였다. 그러한 남제로부터 가라왕은 책봉되었다. 책봉은 백제왕이 중국 황제에 臣屬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황제에 신속된 加羅가 백제의 附庸國으로, 그것도 중국에 公的으로 알려질 수는 없는 문제였다. 더구나 폄칭을 사용한 국호로 등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요컨대 남제로부터 책봉된 가라는 중국의 臣屬國이 될 수는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는 倭王 武가 劉宋에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자칭하며 제수를 요청한 件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武는 478년에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에 제수되었다.<sup>127)</sup> 武가 요청한 ‘七國諸軍事’는 ‘六國諸軍事’로 바뀌었고 백제가 삭제되었다. 劉宋은 倭가 요구한 백제의 軍政權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28)</sup>

왜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전제하에서 제기된 이러한 주장에 앞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 백제는 478년에서 각각 21년 전과 48년 전인 457년과 430년에, 이미 劉宋으로부터 책봉된 바 있었다. 당연히 劉宋으로서는 왜왕 武의 관할 국가라는 백제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梁이 加羅를 백제의 소국, 즉 부용국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백제의 ‘旁小國’ 가운데 국왕이 중국에 책봉된 경우는 없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라를 반파로 폄칭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가라가 지닌 위상을 반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라를 굳이 백제의 부용국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라를 ‘斯羅’로 표기한 것을 보면, 가라도 반파로 폄칭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南史』를 보면 劉宋 때 신라를 ‘斯羅’로도 일컬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사라를 異稱으로 인식했을 뿐 폄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실제 『삼국사기』에서도 斯羅는 신라의 이칭으로만 등장한다. 즉

125) 『南齊書』 권58, 東南夷傳 加羅國,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 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 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126) 李道學, 『漢城末·熊津時代 百濟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合輯(1985); 『백제 한성·웅진성시대 연구』(일지사, 2010), 307쪽.

127) 『宋書』 권97, 外國傳.

128) 川崎晃, 『倭王武の上表文』 『東アジア世界の成立』(吉川弘文館, 2010), 324쪽.

“始祖가 創業한 이래 國名을 정하지 않아 혹은 斯羅로 일컫거나, 혹은 斯盧로 일컬었고, 혹은 新羅라고 말했다”<sup>129)</sup>고 했다. 영일냉수리신라비에서도 신라인들 스스로 분명히 ‘斯羅’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이칭이 분명한 사라와, 펴칭이 명백한 반파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 백제가 加羅國호 대신 굳이 펴칭을 사용했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叛波는 가라가 될 수 없으므로 加羅가 아닌 제3의 대상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 V. 맺음말

伴跛國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성주로 지목한 견해가 연원이 가장 오래되었다. 『가락국기』의 성산가야에 속한다는 점과 신라 때 本彼縣이었다는 ‘본피’ 지명의 반파와의 音相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성주 지역은 『가락국기』 기사와는 달리 출발부터 가야가 아니라 진한과 신라 영역이었다. 이 사실은 발굴 결과 출토된 토기가 신라토기인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본피’ 지명은 ‘신라의 본피’이지 가야의 본피는 아니었다. 게다가 신라의 출발지이자 심장인 6부명에서도 本彼部の ‘본피’가 등장한다. 금석문에서는 ‘本波’로 표기되었으니, 음상사로만 연결 짓는다면 본피부가 반파국이 된다고 할 정도인 것이다. 이렇듯 음상사에 근거한 성주 설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 사족을 붙인다면 성주 지역 정치체가 어떻게 섬진강유역에 대한 수로 지배권에 개입할 수 있을까? 지리적으로 양자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이 무렵, 즉 6세기 초 성주는 신라 영역이었다.

현재 반파국=고령 설이 정설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은 『삼국지』 동이전 변진 조의 半路國이 伴跛國의 誤記라는 심증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별한 근거를 구비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한 『삼국지』 판본에서 부여 시조 설화에 등장하는 橐離國은 무려 6개의 異記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半路國은 단 1건의 異記도 없이 半路國 그대로였다. 게다가 600년 경에 저술된 『翰苑』에서는 변진에서는 ‘路’와 ‘資’를 국명의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니 半路國이 伴跛國의 誤記일 가능성은 없다. 결국 반파국=대가야 설은 출발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반파국이 加羅의 異稱이라면 백제=부여=구다라, 高麗=貊=고마라는 등식처럼 訓讀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반파국은 ‘하해’였고, 가라는 ‘가라’였듯이 양자는 별개의 정치체였다. 이와 더불어 반파국이 가라 즉 대가야가 될 수 없는 근거는 빈출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반파국은 어디에 소재하였을까? 대안 제시는 기존 견해의 문제점과 한계 지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반파국은 백제 때 장계분지를 가리키는 행정지명 伯海郡의 ‘백해’와 연결된다. 『전운옥편』에서 ‘伯’의 음은 ‘파’였다. 그러므로 伯海는 ‘파해’로 읽게 된다. 파해는 반파국의 훈독 ‘하해’와 近似하다. 그 밖에 반파국을 장수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사서에 등장 요인이 되었을 정도로 가장

129) 『三國史記』 권4, 지증마립간 4년 조.

중요한 섬진강 수로의 확보와 연계된 제철산지라는 것이다. 반파국은 비등한 세력이었던 운봉고원의 기문국도 복속시켰을 정도로 강성한 세력이었다. 이러한 반파국의 영역과 세력권은 전라북도 동부 지역 봉화망이 웅변하고 있다. 거대한 봉화망은 반파국인 장수를 중심으로 한 거대 단일 정치 세력권의 존재를 뜻한다. 게다가 이곳은 3기문 300리 영역과도 부합하고 있다.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와의 접목, 그리고 양자의 '만남'은 반파국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가장 부합하였다. 반파국=장수의 발견은, 문헌과 고고학이 연계하여 이룬 快樂로 자부하고 싶다.

## 〈참고문헌〉

### •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三國志』 『宋書』 『南齊書』 『梁書』 『南史』 『翰苑』 『通典』 『日本書紀』  
『續日本後紀』 『新撰姓氏錄』 『釋日本紀』

### • 연구서 및 보고서

- 권덕영, 『한국의 역사 만들기/ 그 허상과 실상』 (새문사, 2015).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金泰植,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盧弼 集解, 『三國志集解 伍』 (上海古籍出版社, 2012).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朝鮮上古史』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上)』 (螢雪出版社, 1987).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中國正史東夷傳校勘』 (2018).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7).  
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吉川弘文館, 1978).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 (吉川弘文館, 1962; 天山社, 2002).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5).  
이도학, 『백제 사비성시대 연구』 (일지사, 2010).  
李道學, 『백제 한성 · 웅진성시대 연구』 (일지사, 2010).  
李道學, 『가야는 철의 왕국인가』 (학연문화사, 2019).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李鎔賢, 『가야제국과 동아시아』 (통천문화사, 2007).  
李瀾, 『星湖全集』  
全榮來, 『南原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정구복 外, 『譯註三國史記』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井上光貞 外 校注, 『日本書紀(三)』 (岩波書店, 1994).  
丁若鏞, 『我邦疆域考』  
朝鮮總督府, 『朝鮮史(日本史料)』 (朝鮮印刷株式會社, 1932).  
조영제,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2007).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 (吉川弘文館, 1982).  
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千寛宇,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湯淺幸孫 校釋『翰苑校釋』(國書刊行會, 1983).

韓鎮書, 『海東繹史 續』

平野邦雄, 『大和前代政治過程の研究』(吉川弘文館, 1985).

#### • 논문 등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한국고대사연구』 63(2011).

郭長根,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百濟學報』19(2013).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湖南考古學報』 57(2017).

곽장근,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경남발전』 138(2017).

곽장근, 「삼국시대 봉화대 분포망과 반파국 비정」『전북가야 심포지움』(전북연구원, 2020.10.16).

백승욱, 「반파국 위치 재론' 토론」『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와 가야 학술대회』(2019.11.15).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韓國史研究』 50 51合輯(1985).

李道學, 「谷那鐵山과 百濟」『東아시아 古代學』 25(2011).

李道學,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역사와 담론』 90(2019).

이도학, 「반파국 위치 재론」『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와 가야 학술대회』(2019.11.15).

이도학,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2020.6.26).

李道學,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반파국」『전북가야 심포지움』(전북연구원, 2020.10.16).

李道學,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全北學研究』 2(전북학연구센터, 2020).

조명일,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호남고고학보』 41(2012).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湖南考古學報』 59(2018).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축조 기법과 구조」『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호남고고학회, 2020).

전상학,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전북가야심포지움』(전북연구원, 2020.10.16).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정음사, 1985).

정동락, 「고령지역 산성의 분포 현황」『대가야의 고분과 산성』(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14).

川崎晃, 「倭王武の上表文」『東アジア世界の成立』(吉川弘文館, 2010).

최종규,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釜大史學』 7(1983).

허윤희, 「가야 무덤이라면서... 유물은 왜 신라인가요」 「가야 무덤이라는 창녕 고분, 쏟아져 나온 건 신라 장신구」  
(『조선일보』2020.10.29).

## “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과 그 역사성”에 대한 토론문

송화섭(중앙대학교)

이도학 교수는 전북가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반파국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로서 앞장 서 왔다. 반파에 관한 국내 사료 없고 일본서기와 양직공도 자료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고증하려는 집념에 감동적이다. 그동안 가야사 연구에서 반파국의 소재지를 비정한 곳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통해서 반파국의 실체를 장계, 장수 중심의 전북가야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번 발표에서도 한국사학계에서 연구 성과로 제기되어온 반파국의 반로국설, 성주설, 고령설, 장수설을 재정리하였으며, 가야사 연구에서 주창해온 반파국의 대가야설, 가라설에 허구와 모순을 지정하면서 학설을 바로잡는데 노력하였다.

토론자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전북가야의 실체라고 하는 반파국에 대한 관심과 궁금한 점에 관하여 몇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반파국의 국가적 실체가 『일본서기』와 양직공도에 등장하고 있다. 『일본서기』에는 513년에서 515년까지 3년 동안 반파국(伴跛國)이 섬진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백제, 왜와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과 반파국이 신라의 춘읍을 약탈하고 신라를 핍박하였다는 사실이다. 왜 이 전쟁 사실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일본, 중국 기록에만 등장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3년은 중국은 양무제 재위 기간이며, 일본은 계체왕 재위 기간이다. 신라는 법흥왕 재위 기간이며, 백제는 무령왕 재위 기간이다. 법흥왕은 불법의 진흥시켜 신라의 국가적 전성기를 열었으며, 무령왕은 대중국, 대왜와 외교적 문물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여 백제의 국운 융성기를 열었던 국왕이었다. 특히 웅진백제 시기에 백제가 가야연맹소국인 반파국과 3년간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백제가 반파국과 전쟁을 치르고 교류하였다는 기록이 일체 『삼국사기』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둘째, 전북가야의 실체는 장수·장계 중심의 반파국(伴跛國)과 남원 운봉과 섬진강 유역의 기문국(己汶國)으로 대별된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반파국이 왜에 집복(戢服)을 파견하여 진보를 바치면서 기문의 땅을 애걸하였는데, 계체왕조는 己汶과 滯沙를 백제국에 주었다고 하였다. 반파국이 기문을 장악하기 위하여 자탄(子呑) 대사(滯沙)에 성을 쌓고 봉후(烽候)와 저각(邸閣)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반파국은 이열비(爾列比)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고 마차해(麻且奚), 추봉(推封)에 연결하였다. 그런 연후에 신라를 핍박하였는데 村邑을 무참하게 약탈하고 노략

질 하였다고 하였다. 반파가 성을 쌓은 이열비, 마수비의 위치와 반파국이 집중 공격하였다는 신라의 촌읍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를 밝혀진다면, 반파국의 영토, 지리적 범위 등이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백두대간 서쪽 장계, 장수 분지의 봉후를 중심으로 반파국이 위치하였으며, 가야고총이 분포하고 있다. 반파국의 영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파국이 쌓은 것으로 보이는 성곽과 반파국이 공격한 촌읍의 위치가 밝혀진다면 반파국의 영토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야소국인 반파가 신라와 백제에 맞서서 공격하고 싸웠다는 것은 소국연맹체 이상으로 강력한 정치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운영의 자신감은 철기문화 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수 삼고리 1~3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살펴보면, 반파국의 국가적 위상이 드러난다.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재지가야계 토기와 대가야 양식, 소가야 양식, 마한(영산강유역, 만경강) 양식, 백제, 신라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장수가야 고분군(장수 삼봉리, 동촌리)에서는 위신재와 위세품이 출토하여 반파국의 국가적 실체와 면모를 추정할 수 있다. 반파국은 백제, 신라, 소가야, 대가야, 마한 세력과 교역, 교류를 하였으며, 독자적인 국가운영의 능력을 갖춘 정치집단으로 추정된다. 철기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위세품, 위신재는 반파국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준다. 반파국이 백제, 왜와 기문국을 두고 최후의 일전을 벌일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셋째, 반파국의 대외적 활동 문제다. 발표자는 상기문, 중기문, 하기문을 섬진강 상류, 중류, 하류로 위치 비정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의 기문하(基汶河)를 섬진강으로 보고 있으며, 기문하는 장수 팔공산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보성강으로 갈라지는 수계까지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섬진강 수계에서 구례에서 하동 다사진까지 대사강(帶沙江)으로 비정하고 있다. 기문(하동 다사진)에서 물연부 등을 맞이해 위로하며 인도해서 입국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제와 왜는 섬진강 하구역인 하동 다사진을 해상교류의 요충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파가 백제와 기문을 놓고 타투려고 하였던 것은 해상교통로의 장악이 목적이었지 않았나 한다.

반파국의 해상교통로 확보는 국가 운영의 자신감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국가운영의 자신감은 우수한 철기문화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파국이 백제 대국과 기문의 땅을 놓고 일전으로 치르려고 했던 것은 강력한 철기문화가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서기』 계체9년조에 “반파인이 왜에 원한을 품고 독기를 먹고서 강한 것을 믿고 포박함을 제멋대로 하였다(伴跛人懷恨御毒 恃強縱虐). 왜장 물부연이 수군 500을 거느리고 대사강에 들어왔고, 하 4월에 물부연이 대사강에 6일간 머물렀는데, 반파가 군대를 일으켜서 정벌하였다.” 반파국이 대사강(섬진강)에서 왜, 백제를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었던 힘(恃強=철기문화)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파국이 금강 유역의 발원지도 장악하고 있었지만, 대외교류에는 섬진강 유역을 장악하는게 효율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다. 반파국이 대외교류의 역량은 삼고리고분 출토 오방색의 채색옥이 말해

준다. 이 오방색 옥은 목걸이 장식의 한 부분이다. 신라와 왜의 계체 왕조에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색옥은 반파국이 주변 국가에서 하사를 받았거나 직접 사들인 교역품일 수 있다. 남원 월산리 가야고분 출토 계수호, 초두를 기문국이 직수입한 위세품으로 본다면, 반파국도 대외교류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대외교류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섬진강 유역의 기문국을 장악하려고 했을 것이다.



반파 가야 역사성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

발표 2

---

##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발표자 : 곽장근(군산대학교)

토론자 : 최인선(순천대학교)

### 【목차】

- I. 머리말
- II. 봉화대 분포망 및 봉화로 복원
- III. 고고 자료로 반파국 위치 비정
- IV. 반파국 역동성 및 철산지 현황
- V. 맺음말





#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곽장근(군산대학교)

## I. 머리말

가야사 국정과제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망에 근거를 두고 전북가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sup>1)</sup> 전북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 고총 420여 기와 햇불로 신호를 주고받던 110여 개소의 봉화(烽火)<sup>2)</sup>로 상징된다. 전북가야의 용어에는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가야의 영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유적은 250여 개소에 달한다.<sup>3)</sup>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봉수(烽燧)는 낮에 연기와 밤에 햇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다.<sup>4)</sup>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 오직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만을 전달했다. 봉화 혹은 봉수는 통신유적의 백미로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가야 봉화와 조선 봉수가 함께 병존한다.<sup>5)</sup> 엄밀히 말하면 전북은 가야 봉화의 요람이자 조선 봉수의 보고이다.

고려 후기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가락국 시조 수로왕이 봉화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1145년 경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에 백제 온조왕 10년 봉현(烽峴)을 비롯하여 봉산(烽山), 봉산성(烽山城) 등이 등장한다. 720년 도내리신노(舍人親王) 등이 편찬한 『일본서기』에는 가야 소국 반파가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동안 백제와 전쟁을 치르면서 봉후제(烽候制)를 운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의 존재와 함께 반파국의 봉후(화)제가 운영됐음을 살필 수 있다.

고려 의종 3년(1149) 서북면병마사 조진약이 봉수의 거화수를 규정하고 봉수군에게 생활의 대책을

1)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36~75쪽.

2) 삼국시대 가야 봉화대는 길이 8m 내외의 봉화대와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 봉화대를 보호하던 테워식 성벽, 물을 저장하던 집수시설, 봉화군의 주거 공간 등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 현황조사』, 전라북도, 176~229쪽.

4) 김주홍, 2003, 『한국의 봉수』, 눈빛 ; 2011, 『조선시대 봉수 연구』, 서경문화사.

5) 전북 동부지역에 봉화산과 봉화봉, 봉화골, 봉화재, 봉우재, 봉우재봉, 봉화산성 등의 지명들이 있는데,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그 수가 110여 개소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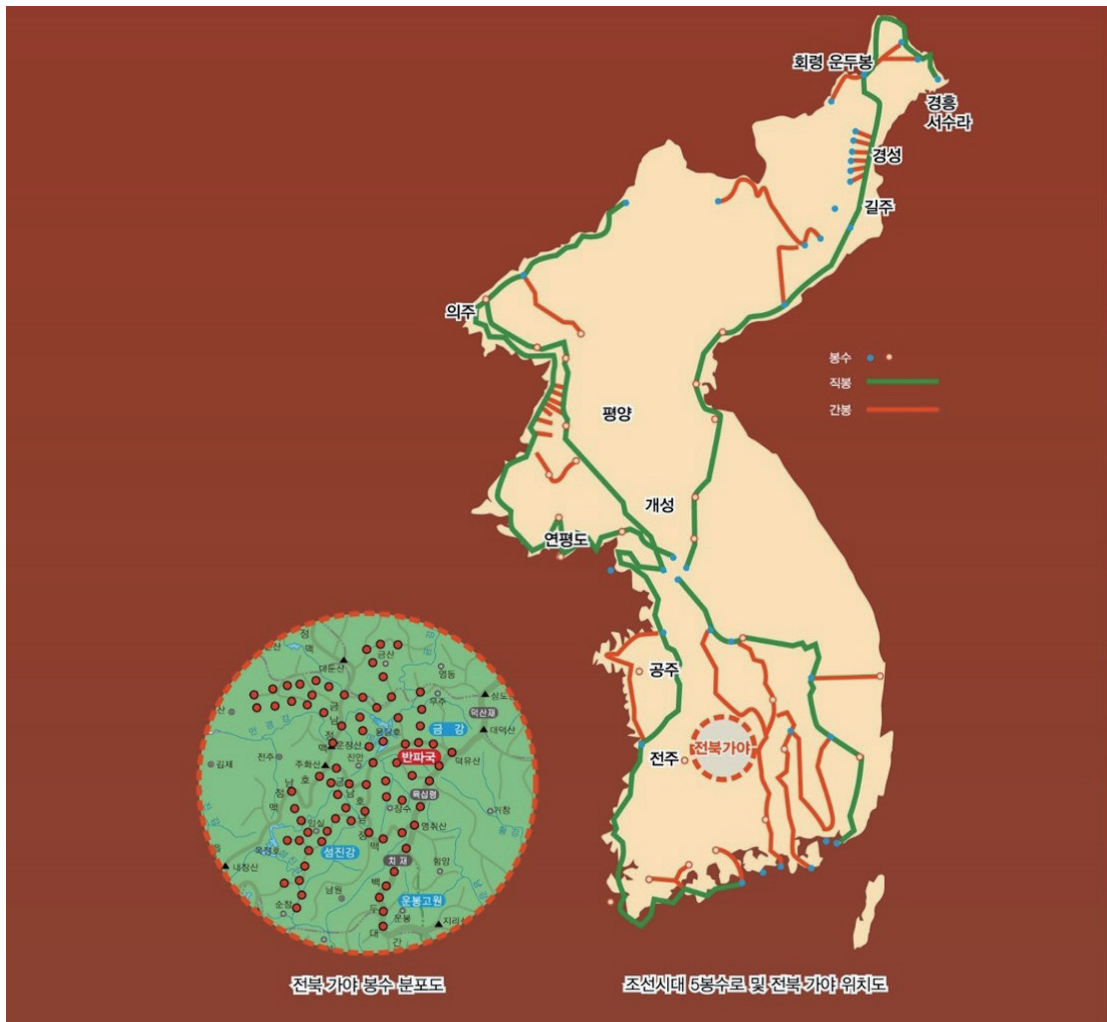


그림 1.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망 및 조선시대 5봉수로 현황도

마련하는 상소를 올렸다.<sup>6)</sup> 우리나라에서 봉수제의 시작이 고려시대로 굳어진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선화봉사고려도경』<sup>7)</sup>에 “중국 사신의 배가 흑산도에 도착하면 밤에는 산 정상에서 봉수를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호응하여 왕성까지 이르는데, 이것은 흑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sup>8)</sup>되어 봉수의 존재를 알렸다.

조선시대 봉수제는 세종 때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여 거화·거수 등 관계 규식을 다시 새롭게 정비했다. 그리고 변방의 연대를 다시 축조한 뒤 전국의 봉수선로를 일제

6) 이외에도 봉수의 격식이 규정됐고, 야화(夜火)와 주연(晝烟)으로 구분하여 거화수도 마련했다.

7) 1123년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경에 의해 편찬된 40권으로 이루어진 외교견문록이다.

8) 조동원·김대식·이경록·이상국·홍기표, 2005, 『고려도경』, 황소자리, 431~432쪽.

히 확정했다. 우리나라 봉수제가 가장 체계적으로 정비된 최전성기로 조선 전기의 안정기를 이끌었다.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학계에 보고된 봉수는 대부분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들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연산군 10년 일시적으로 봉수제가 잠시 폐지됐다가 중종 때 다시 복구됐다. 선조 때 봉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파발제를 도입하여 봉수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고, 숙종 때 봉수 변통론으로 전국 각지의 봉수 재편이 단행됐다. 숙종 이후에는 봉수제와 파발제가 군사적 통신의 기능을 함께 담당했다. 문헌에 대부분 봉수로 기록되어 가야 봉화 대신 봉수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봉수<sup>9)</sup>는 조선시대 5봉수로 중 제5거<sup>10)</sup>에 해당하는 연변봉수이다.<sup>11)</sup>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다가 군산 점방산 봉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충남 서천 운은산 봉수로 이어져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진 간봉이며,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주의 충청감영을 경유하던 직봉이다. 바닷길을 따라 배치된 봉수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 역할도 담당했다.<sup>12)</sup>

고려 말의 봉수선로를 계승하여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는 전북 동부지역은 봉화산이 가장 많이 자리한다.<sup>13)</sup> 현재까지 전북가야의 영역에서 110여 개소의 가야 봉화가 학계에 보고됐다.<sup>14)</sup> 현재까지 여덟 갈래 봉화로가 복원됐고,<sup>15)</sup> 모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고,<sup>16)</sup>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 추정 왕궁 터와 장수군 일원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산재해 있다.

반파국<sup>17)</sup> 봉후(화)제와 관련하여 문헌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들을 금강 최상류에 기반을 둔 장수가야<sup>18)</sup>가 대부분 충족시켰다. 가야사 국정과제 일환으로 장수 영취산·원수봉, 무주 노고산, 완주 불

9) 고창 구시포, 부안 호고리·점방산, 김제 길곳, 군산 점방산·오성산 봉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군산 어청도 봉수 등 5개소 내외의 봉수가 전북 서해안에 더 자리하고 있다.

10) 순천 돌산도에서 출발해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개화산 봉수에 당도한다.

11) 조명일, 2015, 「서해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도서문화』 제45집, 목포대학교 도서관학연구원, 63~100쪽.

12) 조명일, 2010, 「전북 서해안지역의 봉수와 서해 연안항로」, 『서해안의 전통문화와 교류』, 한국대학박물관협회·군산대학교 박물관, 73~74쪽.

13) 박장근, 2019, 『봉수왕국 전북가야』, 전라북도.

14) 조명일,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90~107쪽.

15) 전북 남원시 운봉읍·무주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순창군, 충남 금산군에서 각각 시작하는 여덟 갈래 봉화로가 복원됐다. 모두 장수군 장계분지를 향하는 옛길을 따라 이어진다.

16)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 제41號, 湖南考古學會, 67~90쪽.

17) 李道學, 2019,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제90집, 호서사학회, 47~82쪽; 2020,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 연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35~75쪽; 2021, 「장수 지역 가야, 단일 정치체 반파국으로 밝혀지기까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7~34쪽.

18) 종래에는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세력 혹은 진안고원의 장수권 가야 계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장수지역의 가야, 장수가야로 불렀는데, 여기서는 여덟 갈래로 복원된 봉화로에 그 근거를 두고 문헌의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명산 등 7개소 봉화대(烽火臺) 학술발굴에서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삼국시대 토기편만 출토됐다. 무엇보다 장수 봉화봉·삼봉리 산성, 남원 봉화산, 임실 봉화산 봉화대에서 반파국 분묘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만 출토되어,<sup>19)</sup> 그 운영 주체가 반파국으로 고증됐다.<sup>20)</sup>

가야 소국 반파국의 위치 비정<sup>21)</sup>은 역사고고학의 범주에 속한다.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학계에서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망을 정리 분석한 뒤 가야 봉화로를 복원하고 이를 문헌에 접목시켜 반파국의 위치를 비정하려고 한다. 향후 전북지역 가야 봉화 및 조선 봉수<sup>22)</sup>에 대한 역사 인식의 제고와 함께 학제 간 학술적인 고증<sup>23)</sup>이 요청된다. 가야 봉화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수군의 지원과 장수군민들의 봉화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린다.

## II. 봉화대 분포망 및 봉화로 복원

### 1. 전북 동부지역 봉화망과 봉화대 구조

가야 봉화 또는 조선 봉수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해 준다. 동시에 국가의 운명을 도맡은 통신유적의 백미이다. 우리나라에서 봉화산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이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지역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가야사 국정과제로 가야 봉화망과 그 역사성이 검증됐다. 조선시대 봉수제와 확연히 다른 가야 봉화제로 연대도 봉화대로 거화시설 혹은 발화시설은 봉화시설 또는 봉화구로 새로운 이름도 지었다.<sup>24)</sup>

2013년부터 문화재청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장수 영취산 봉화 등 가야 봉화대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됐다.<sup>25)</sup> 가야사 국정과정 일환으로 장수 봉화산 등 10여 개소의 봉화대 학술발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가야 봉화대의 구조와 봉화군이 머물던 주거공간도 확인되어 봉화의 역사성이 일목요연하게 고증됐다. 남원 봉화산, 임실 봉화산, 장수 봉화봉 등 가야 봉

19) 아직까지 전형적인 고령양식 혹은 대가야양식 가야토기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 박장근, 2020,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 연구』 제2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34쪽.

21) 종래의 반파국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함양·운봉설, 고령설, 성주설, 장수설 등이 있다.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국 봉후(화)는 전북 동부 지역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냈다.

22) 조선시대 봉수는 남북한 모두 합쳐 700여 개소에 달한다. 전국을 다섯 갈래 길로 나누어 나라를 굳건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23) 최인선, 2021,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만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87~88쪽.

24) 조명일, 2020,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축조기법과 구조」,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135~154쪽.

25)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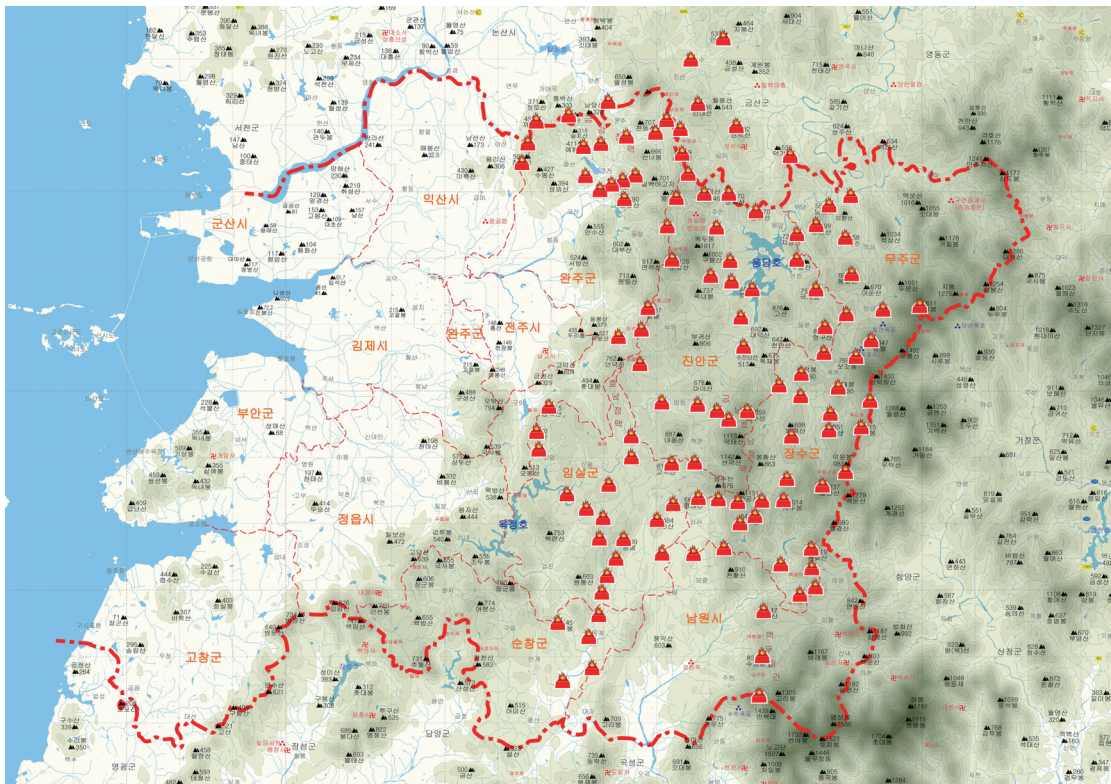


그림 2. 전북 동부지역 110여 개소 가야 봉화 분포도

화대에서 장수군 가야 분묘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가야토기가 출토되어, 가야 봉화의 운영주체가 반파국으로 비정됐다.

이를 계기로 가야 고층 못지않게 가야 소국의 존재 여부를 방증해 주는 고고학 자료로 가야 봉화가 거론된다. 중국 「양직공도」 및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 소국 반파국이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과 대사를 두고 백제와 전쟁을 하면서 봉후(화)를 이용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딘가에 삼국시대 가야 봉화가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가야 봉화대가 전북 동부지역에서만 학계에 보고되어<sup>26)</sup>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가야 봉화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북 동부지역은 고려·조선시대의 봉수제와 전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봉화산이 가장 많이 자리한다. 지금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110여 개소의 가야 봉화대가 발견됐는데,<sup>27)</sup> 봉화대는 대체로 전북가야 문화유적이 자리하고 지역에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의 분포권과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1980년대 후

26) 조명일, 2004,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146~154쪽.

27) 조명일, 2018, 앞의 논문, 90~107쪽.

반부터 지표조사를 통해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대의 현황과 그 특징을 수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남강 유역은 운봉고원으로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8개소의 봉화대가 산성과 세트관계를 이루면서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sup>28)</sup> 남원 봉화산 봉화대는 장방형 봉화대에서 가야토기편이 출토되어, 그 성격이 가야 봉화대로 밝혀졌다.<sup>29)</sup> 남원 시루봉 봉화대는 산봉우리 정상부에 성벽을 한 바퀴 둘렀는데, 다른 봉화대는 성벽을 두르지 않았다. 운봉고원에서 전남 곡성과 구례, 경남 하동 등 남해안으로 갈 때 대부분 넘었던 구동치 부근에 위치한 남원 덕치리 봉화대는 운봉봉화로가 시작되는 곳이다.

금강 유역은 신라의 진출이 확인된 구역을 제외하면 70여 개소의 봉화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장수군과 진안군, 무주군, 완주군 운주면, 충남 금산군이 금강 유역을 이룬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 중 다섯 갈래 봉화로가 금강 유역을 통과한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장수 봉화산·영취산·원수봉·침곡리 봉화대를 대상으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유물은 6세기를 전후한 삼국시대 토기편만 출토됐다. 백제 혹은 신라의 국경선과 전략상 요충지에 배치된 석축형 봉화대는 테피식 성벽을 둘렀다.

섬진강 유역은 상류지역에서만 20여 개소의 봉화대가 발견됐다. 진안군 남부권과 임실군, 순창군이 섬진강 유역을 이룬다. 모두 세 갈래 봉화로가 섬진강 상류지역을 가로질러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봉화대는 흙 또는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은 봉화대로 나뉘는데, 다른 유역과 달리 거칠고 조잡하다. 임실 봉화산은 앞쪽이 둥글고 뒤쪽이 네모난 봉화시설이 발견됐는데, 진안 서비산 봉화대에서도 자연 암반을 똑같은 모양으로 파낸 봉화구가 조사됐다.<sup>30)</sup> 섬진강유역에 석축형과 암반형, 토축형이 공존한다.

2018년 만경강 유역에서 산성 및 봉화대, 제철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단일 지역 내 관방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완주군 동북부<sup>31)</sup> 일대로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은 반파국이 백제와 국경을 마주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여 금만정맥<sup>32)</sup>을 따라 잠깐 동안 백제와 국경이 형성됐음을 말해준다. 완주 봉수대산 봉화대 등 20여 개소의 봉화에 그 근거를 두고 완주군 동북부 일대를 전북가야의 영역에 포함시켰

28) 강원중, 2007,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 『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43~74쪽.

29)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6, 앞의 책.

30) 장수군 내 가야 분묘유적 출토품과 흡사한 가야토기만 출토되어 반파국 봉화대로 명명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형적인 대가야양식이 아닌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라는 것이다.

31) 완주군 고산면·경천면·비봉면·화산면·동상면·운주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32) 금강과 만경강 분수령이자 전북과 충남 경계를 이룬다. 금남정맥 금만봉에서 시작해 왕사봉을 거쳐 불명산과 천호산, 미륵산, 함라산, 최종 종착지 장계산까지 이어진다. 『산경표』에 실린 15개의 산줄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진정한 금남정맥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전북과 충남 도계를 이룬 금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산성 및 봉화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 봉화대는 대부분 흑운모 편마암을 가지고 쌓은 석축형으로 성벽에 봉화시설<sup>33)</sup>을 배치한 경우<sup>34)</sup>도 있다.

금만정맥은 금남정맥 금만봉에서 시작해 왕사봉을 거쳐 불명산과 천호산, 미륵산, 함라산, 최종 중착지 장계산까지 이어진다. 삼국시대 산성 및 봉화대의 분포망을 근거로 전북과 충남의 경계를 이룬 금만정맥에서 한동안 반파국과 백제의 국경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만정맥 산줄기를 따라 서로 4km의 거리를 둔 장재봉·큰남당산·까치봉에 추정 봉화시설이 발견됐다. 한국동란 때 참호를 만들면서 봉화대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구조를 살필 수 없지만 완주 성태봉·천호산성 내 봉화시설과 연결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야 봉화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sup>35)</sup> 하나는 석축형으로 대부분 깎은 돌로 봉화대를 만들었는데, 봉화대 벽석의 축조기법은 처음에 거칠고 조잡하다가 후대에 아주 정교하게 쌓았다. 다른 하나는 암반형으로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고 불을 피우기 위한 원형 혹은 전원후방형 봉화구를 다시 파냈다. 또 다른 하나는 토축형으로 흙을 쌓아 봉화대를 만들고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을 두었다.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서로 다른 것은 축조시기를 의미하고 석축형이 가장 앞서고 암반형과 토축형이 늦다.

당시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은 모든 봉화대에서 한 개소만 확인됐다. 장대형 석재 2매를 10cm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두른 뒤 직경 100cm 내외의 경계석만 둘렀다. 자연 암반을 파낸 봉화구는 원형 혹은 전방후원형으로 파냈는데, 봉화구의 직경이 큰 경우에는 남쪽에 자연 암반을 파내어 배수로를 두었다. 봉화시설에서 불 먹은 소토와 장대형 석재가 붉게 산화되어 봉화대가 얼마 동안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봉화대 남쪽에는 봉화대로 오르기 위한 계단시설과 자연 암반을 파낸 등봉시설도 확인됐다.

그런데 봉화를 올리던 가야 봉화대는 대부분 장방형으로 그 위치와 축조 재료에 따라 얼마간 차이를 보였다. 본래 반파국 영역이었던 장수군과 무주군 안성면·적상면·부남면, 진안군 동향면·안천면 일대 봉화대는 석축형으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흑운모 편마암을 가지고 대부분 거칠게 쌓았다. 단지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봉화봉의 경우만 화강 편마암으로 벽석이 상당히 두꺼워 얼마간 차이를 보였다.

2021년 장수 봉화봉 봉화의 실체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됐다.<sup>36)</sup> 금남호남정맥 팔공산에서 갈라진 천황지맥에 봉화봉이 있는데, 이곳은 섬진강유역이 잘 조망된다. 봉화봉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길이 800cm의 방형의 봉화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동쪽과 서쪽 기슭은 흙과 돌을 섞어 쌓아올렸다. 봉

33) 완주 종리산성 북쪽 성벽 위에서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이 발견됐는데, 봉화시설은 두 매의 장대형 석재를 10cm 간격으로 나란히 놓았다. 장방형 석재와 그 주변이 붉게 산화되어 봉화대가 얼마간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34) 완주 종리·용복리·천호산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5) 조명일, 2021,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39~58쪽.

3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1, 「장수 봉화봉 봉화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화대는 화강암을 상당히 두껍게 다듬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내경되게 쌓고 벽석과 벽석 사이는 작은 깎돌 조각으로 메꾸었다.

봉화대 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이 마련됐는데, 그 바닥에서 숯이 검출됐다. 북벽에 붙은 상태로 두 개의 기둥자리가 확인됐는데, 봉화대 위로 오르는 계단 시설과 관련된 기둥자리로 추정된다. 봉화대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평탄지에서 봉화군이 머물던 주거공간이 확인됐고, 북쪽에서는 불을 일으키는 데 쓰인 부식돌이 수습됐다. 봉화대와 주거공간에서 밀집파상문이 희미하게 시문된 반파국에서 만든 가야토기편만 출토됐다.

한편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한동안 혼란에 빠지자 반파국이 전북 진안군과 충남 금산군 일대로 진출<sup>37)</sup>하여 가야 봉화망을 구축했다. 석축형 봉화대는 대부분 흑운모 편마암으로 쌓았는데, 장수군 봉화대보다 더 정교하게 벽석을 축조했다. 봉화산과 봉화골, 봉우재, 봉우재봉 등의 지명으로 봉화의 존재를 알렸다. 진안 봉우재봉 등 국경선 혹은 전략상 요충지에 배치된 봉화는 테피식 성벽을 둘렀다.

반파국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 산줄기를 넘어 만경강 유역으로 진출했던 것 같다. 완주군 동북부에 집중 배치된 봉화대는 완주 운암산 봉화대<sup>38)</sup>를 제외하면 모두 흑운모 편마암으로 쌓았다. 석축형 봉화대의 벽석은 두께가 얇은 할석을 가지고 쌓고 벽석과 벽석 사이에는 소형 할석으로 메꾸었다. 완주 용복리·운제리·종리·천호산성 등 성벽에 봉화시설을 배치하여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sup>39)</sup> 완주군 동북부는 가야 봉화와 산성이 세트관계를 이룬다.

섬진강 유역 봉화대는 대부분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은 진안 서비산과 순창 채개산 봉화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흙으로 만든 토축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실 봉화산 학술발굴에서 영정주와 함께 남쪽 기슭에서 봉화군이 생활하던 주거공간도 확인됐다.<sup>40)</sup> 임실 치마산



그림 3. 장수 봉화봉 봉화 석축형 봉화대



그림 4. 완주 종리산성 내 봉화시설

37) 금강과 정자천을 따라 반파국과 백제의 국경선이 형성됐는데, 웅진 천도 후 백제가 일시에 정치적 혼란에 빠지자 이를 넘어 백제 영역으로 진출했던 것 같다.

38) 장수 봉화봉 봉화와 동일하게 화강암으로 벽석을 쌓아 봉화대의 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39) 현재까지 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대가 발견됐는데, 모두 반파국 최전성기에 쌓아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동일하다. 장수 삼봉리 산성과 성벽의 축조기법이 동일한 10여 개소의 산성이 집중 배치되어 산성으로도 반파국의 진출을 방증해 주었다.

40) 이은정, 2021, 「임실 봉화산 봉화 조사현황 및 성과」,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5~22쪽.

과 순창 생이봉에서 석축형 봉화대도 일부 확인됐지만 그 축조기법은 대단히 거칠다. 문헌의 내용을 가야 봉화대가 뒷받침해 주었다.

## 2. 여덟 갈래 봉화로 복원과 변천과정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는 세 가지 속성에서 공통성을 보였다. 하나는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국경선을 따라 봉화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장방형 봉화대를 만들고 석성을 한 바퀴 돌렸는데,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는 주거공간이 자리한다.<sup>41)</sup>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성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여덟 갈래 봉화로를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진 운봉봉화로이다. 운봉고원은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된 대규모 철산지이다.<sup>42)</sup> 백두대간 산줄기가 운봉고원 서쪽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구동치·입망치·여원치·사치·치재 등 백두대간 고갯길이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화가 세트관계<sup>43)</sup>를 보이면서 배치됐다. 백두대간을 따라 선상으로 어이진 운봉봉화로는 봉화산에서 그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섬진강 유역 봉화대와 흡사하게 거칠고 조잡하게 봉화대를 쌓았다.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반파국을 이어주던 옛길을 조망하기 위해 운봉봉화로는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나계통문 서쪽 무주봉화로이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과 전북 무주군 부남면 경계에 위치한 수로봉 봉화대에서 시작한다. 이 봉화로는 노고산<sup>44)</sup>·봉화산 봉화대를 거쳐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신라 무산현<sup>45)</sup>의 행정 치소이자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무주군 무풍면 일대에서는 한 개소의 봉화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혼란에 빠지자 신라는 백두대간을 넘어 대규모 철산지 무주군 일대로 진출했다. 신라와 국경을 맞댄 반파국은 신라의 동향을 살피고 무주군 제철유적을 방비하기 위해 무주봉화로를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충남 금산분지를 종단하는 금산봉화로이다. 대전시 중구와 충남 금산군 경계에 위치한 금산만인산 봉화대에서 시작한다. 삼국시대 관방유적과 통신유적, 생산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곳이 금산

41) 조명일, 2018, 앞의 논문, 90~107쪽.

42)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제51집, 호남고고학회, 86~121쪽.

43) 전북 동부지역에서 산성 및 봉화대는 그 분포양상에서 대체로 한 벌을 이룬다.

44) 금강 남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로 웅진기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가 강을 건넌던 나루터가 있었던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45)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지명 및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이라 고쳐 開寧郡 영현이 됐다. 조선시대 『정감록』에 삼재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 가운데 하나이다.



분지로 1963년 전북에서 충남으로 편입됐다. 만인산<sup>46)</sup>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향하다가 금산 봉수치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금산분지 중앙을 남북으로 종단한다. 진안 성치산 봉화대에서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꾼 뒤 봉화산을 지나 진안 용담댐 동쪽 진안 지장산 봉화대에 도달한다. 진안 와정토성과 황산리 고분군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진안 망바위 봉화대를 거쳐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넷째, 만경강 유역에서 시작하는 완주봉화로이다. 금강과 만경강 유역에서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이 하나로 합쳐져 금남정맥 작은 싸리재를 넘는다. 완주군 비봉면과 익산시 여산면 경계에 위치한 천호산성<sup>47)</sup>에서 각시봉·불명산 봉화를 거쳐 탄현<sup>48)</sup> 봉화대까지 완주군 동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른다. 완주 탄현 봉수(화)대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금산분지 서남부를 경유하여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멈춘다. 진안 봉우재 봉화대를 경유하여 지명으로도 가야 봉화의 존재를 알렸다. 장수군과 진안군 경계를 이룬 방곡재<sup>49)</sup> 봉화대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수 침곡리 봉화대에 도달한다.

다섯째, 완주 봉실산성에서 출발하는 진안봉화로이다. 만경강 유역 교통의 중심지 완주 봉림산 봉화대에서 대아저수지 북쪽 완주 운암산 봉화대를 거쳐 진안 운장산 봉화대에 당도한다. 금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진안 건천리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꾼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고갯길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자리하여 만경강 유역을 감시할 목적으로 진안봉화로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 최상류 진안군 마령분지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금남호남정맥 신광치를 통과하는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이어지다가 장수 봉화산 봉화대에서 멈춘다.

여섯째, 임실 성미산성에서 출발하는 관촌봉화로이다. 몇 차례 수축된 임실 성미산성에서 가야토기가 나온 것은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했던 반파국이 산성의 터를 닦았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 산성 내 정상부가 상당히 넓고 평탄하게 다듬어져 본래 봉화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짐쳐진다. 임실 성미산성에서 서남쪽으로 4km 거리를 두고 임실 범바우산 봉화대와 다시 동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임실 고덕산, 진안 구신재 봉화대가 배치되어 있다. 임실 봉화산 봉화대에서 가야토기가 출토되어<sup>50)</sup> 잠깐 동안 섬진강을 경계<sup>51)</sup>로 백제와 반파국의 국경선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46) 충남 금산군 복수면과 대전시 동구 경계로 태조 이성계의 태실이 있어 달리 태봉산으로도 불린다.

47) 현지조사 때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삼족토기편이 수습됐으며, 북쪽 산봉우리에서 방형의 봉화시설도 확인됐다. 반파에 의해 초축된 뒤 백제 혹은 후백제 때 다시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48)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삼거리마을 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달리 炭嶮으로도 불린다. 충남 부여, 논산 일대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고원과 금산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세 갈래 옛길이 교차하는 전략상 요충지에 위치한다.

49) 장수군 천천면 촌송리와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경계로 서쪽 산봉우리에 봉화대가 자리하고 있다. 본래 반파국 북쪽 경계로 방곡재 양쪽 산줄기를 따라 인위적인 방어시설이 잘 남아있다.

50) 전상학, 2021, 「임실 봉화산 봉화 출토유물 검토」,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3~38쪽.

51) 섬진강을 경계로 백제 산성으로 밝혀진 임실 대리·방현산성이 서쪽에 가야토기가 나온 임실 성미산성, 임실 범바우산 봉화가 동쪽 배치되어 있다.

일곱째, 섬진강 상류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임실봉화로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10여 개소의 봉화대 중 가장 서북쪽에 임실 경각산<sup>52)</sup> 봉화대가 자리한다. 호남정맥 경각산에서 임실봉화호가 출발하는데, 경각산은 만경강 유역 전주 일대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임실 치마산 봉화대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임실군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임실 봉화산을 거쳐 장수 원수봉 봉화대까지 이어진다. 임실 봉화산에서 흙으로 쌓은 장방형 봉화대와 봉화시설, 유두형 손잡이가 달린 개배 등 가야토기편이 출토됐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에서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오수천을 따라 동서로 이어진 순창봉화로이다.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말무재 봉화대를 중심으로 서북쪽에 생이봉 봉화대, 서남쪽에 채계산 봉화대와 오교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순창봉화로는 오교리 산성에서 출발해 오수천과 평행되게 선상으로 이어지다가 임실 노산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장수 봉화봉 봉화대까지 계속된다. 영산강 유역에서 출발해 오수천을 따라 섬진강 유역을 가로질러 장수군까지 이어진 옛길을 감시할 목적으로 순창봉화호가 배치된 것 같다. 다른 지역의 봉화대들과 달리 봉화대를 대부분 흙으로 축조됐고, 일부 돌로 쌓은 봉화대도 매우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sup>53)</sup>

위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는 봉화의 운영 시기에서 얼마간 차이를 보였다. 본래 장수군을 중심으로 금강 이남의 진안군과 남대천 남쪽 무주군 일원에 봉화망이 구축됐다. 반파국이 금강을 따라 백제와 무주군을 관통하는 남대천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선이 형성된 것<sup>54)</sup> 같다. 그러다가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일시에 정치적 불안에 빠지자 이를 틈타 반파국이 금강을 건너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감행했다.

반파국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 산줄기를 넘어 만경강 유역, 즉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여 금남정맥에서 백제와 반파국의 국경선이 잠깐 동안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초 이른 시기 백제가 만경강 유역을 탈환<sup>55)</sup>함에 따라 국경선이 금남정맥으로 이동됐고, 섬진강 유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임실 · 순창봉화로는 백제와 반파국 3년 전쟁 중에 봉화호가 구축됐을 것<sup>56)</sup>으로 추측된다. 운봉 봉화로도 봉화대의 축조기법에서 섬진강 유역의 봉화와 그 속성이 상통한다.

52) 임실군 신덕면과 완주군 구이면 경계에 위치하고 전주 일대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이 산 아래의 광곡마을에서 바라보면 母岳山 방향으로 머리를 향한 고래의 모습이며, 산정상부에 있는 두 개의 바위가 마치 고래의 등에 솟아난 뿔의 형상이다.

53) 『일본서기』에 반파국이 백제와 3년 전쟁을 수행하던 중 자탄과 대사에 산성 및 봉화대를 쌓은 것으로 전한다.

54) 무주군을 동서로 관통하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신라토기가 나온 무주 대차리 고분군과 무주고성이 북쪽에 반파국 산성에서 봉화시설이 배치된 무주 당산리 산성이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55)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3년(501)에 “設柵於炭峴以備新羅”라는 기사가 그 가능성을 방증한다. 진안고원 무주군 일대로 이미 진출한 신라를 대비하기 위해 백제가 백두대간 덕산재로와 육십령로 분기점이자 진안고원으로 통하는 옛길의 길목인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탄현 일대에 목책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무렵 백제가 반파국으로부터 완주군 동북 일대를 다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56) 삼국시대 산성 및 봉화대가 오수천을 따라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봉화대는 대부분 흙으로 조잡하게 쌓았다.

### 3. 장수 삼봉리 산성 봉화로 최종 종착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는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금강 최상류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발달한 곳으로 운봉고원과 함께 전북가야의 정치 중심지이다. 백화산에서 뻗은 산자락 정상부에 12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과 추정 왕궁 터도 그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함께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유적과 유물로 입증된 곳이다.



그림 5. 전북 동부지역 여덟 갈래 봉화로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산줄기에서 갈라진 산자락이 장계분지를 사방에서 병풍처럼 감싼다. 장수 봉화산·침곡리 등 7개소의 봉화대가 장계분지를 빈틈없이 조망하고 있는데,<sup>57)</sup> 그 중앙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위치한다. 여덟 갈래 봉화로에서 실어온 변방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곳<sup>58)</sup>이다. 조선 시대 다섯 봉수로의 700여 개소 봉수의 정보를 마지막으로 합치는 서울 목멱산과 그 임무가 똑같다.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장수군을 금강과 섬진강 유역으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 영취산<sup>59)</sup> 서쪽 산봉우리에서 갈라진 한 갈래 산줄기가 북쪽으로 계속되다가 백화산에서 잠시 머문 뒤 그 방향을 동북쪽으로 틀어 장수 삼봉리 산성까지 이어진다. 이 산성을 중심으로 서쪽에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이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 터로 알려진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이 있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남산마을 주민들이 장수 삼봉리 산성을 달리 봉화 터<sup>60)</sup>로 부른다. 문헌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산성의 의미와 그 역사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명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관심을 끈 것은 봉화 터로 불리는 산성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 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그

57) 群山大學校 博物館, 『長水郡의山城과烽燧』, 2002, 長水文化院.

58) 조명일,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90~107쪽.

59) 백두대간 명산으로 금남호남정맥이 시작되는 분기점이자 금강과 섬진강, 남강 분수령을 이룬다.

60) 지명으로도 봉화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미를 한층 높였다. 어떻게 보면 서울 목멱산 북쪽에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2019년 장수 삼봉리 산성의 조축과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됐다.<sup>61)</sup> 장계분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장계천 남쪽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위치한다. 장계천과 평행되게 동서로 뻗은 산자락이 있는데, 이 산자락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봉화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봉화시설은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어 마련했는데, 당시 불을 피우던 봉화대는 그 평면형태가 동서로 긴 장방형이다.<sup>62)</sup>

장수 삼봉리 산성은 테피식으로 둘레 250m 내외의 성벽을 둘렀다.<sup>63)</sup> 성벽은 흑운모 편마암으로 쌓고 성돌 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웠는데, 성돌은 그 두께가 얇고 일정하지 않다. 전북 동부지역 봉화대와 산성의 축조기법이 서로 공통성을 보여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sup>64)</sup> 봉화시설 북쪽 기슭에서 목 부분에 밀집파상문이 희미하게 시문되고 조잡하게 만든 대부광구호 등 가야토기편이 출토됐는데,<sup>65)</sup> 유물의 속성은 반파국 재지계와 상통한다.

장수 삼봉리 산성·봉화대는 당시의 시대상이 잘 녹아있다. 반파국이 산봉우리 정상부에 자연 암반을 다듬어 봉화시설<sup>66)</sup>을 배치하고 성벽을 한 바퀴 둘렀다. 모든 봉화로에서 실어온 변방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해 반파국 왕궁에 보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파국이 국력을 담아 봉후(화)제를 운영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이다. 중국 및 일본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국이 봉화 왕국이라는 사실을 유적으로 증명했다.

반파국 멸망 이후 산성이 문을 닫고 통일신라 분묘유적이 들어섰다. 본래 봉화시설이 있었던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3기의 뼈단지가 조사됐는데,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명당이다. 뼈단지는 땅을 파거나 네 매의 판자모양 돌로 방을 만든 뒤 뼈단지를 두었는데, 당시에 봉화시설이 대부분 유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8세기 전후한 시기 불교의 발전에 따른 화장문화의 유행으로 봉화시설이 무덤 구역으로 그 임무가 바뀌었다.

그러다가 후백제 때 산봉우리 정상부에 누정을 지었다. 산성 내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건물지의 기둥 구멍이 확인됐고, 장수 합미산성·침령산성 출토품과 흡사한 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된 후백제 기와편이 나왔다. 그리고 동쪽 기슭 평탄면에서 차 있을 갈 때 쓰던 다연과 쇠스랑, 문고리, 장식 등 많은 철기유물이 출토됐다. 후백제 이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쪽을 제외한 지형이 완만한

61) 가야사 국정과제 일환으로 전라북도과 장수군에서 발굴비를 지원해 주어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대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 내 가장 높은 산봉우리 정상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학술발굴에서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62) 전북 동부지역 봉화에서 밝혀진 봉화대의 구조 및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63) 全榮來, 2003, 『全北古代山城調査報告書』, 全羅北道·韓西古代學研究所.

64) 완주군 동북부 만경강 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0여 개소의 석축형 봉화대는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벽석을 쌓아 장수 삼봉리 산성 성벽 축조기법과 동일하다.

65)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장수 삼봉리 산성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66) 봉화시설 내 일부 석재가 붉게 산화되어 봉화시설의 존재와 봉화시설이 운영됐음을 반증해 주었다.



산기슭에는 민묘가 대규모로 들어섰다.

2021년 장수 삼봉리 산성 학술발굴에서 집수시설이 발견됐다.<sup>67)</sup> 가야 봉화시설이 자리한 산봉우리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직경 700cm, 깊이 120cm 내외이다. 집수시설은 자연 암반층을 파낸 뒤 두께가 얇은 편마암 계통 석재로 벽석을 계단식으로 쌓고 점성이 강한 점토로 견고하게 뒤채움 했다. 유물은 집수시설 가장 아래층에서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거칠고 조잡한 가야토기만 출토되어,<sup>68)</sup> 그 초축이 반파국으로 파악됐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탐동마을 입구에 석탑과 석등 부재가 탐처럼 쌓여있다.<sup>69)</sup> 옛날 탐동마을에 개안사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명당이다. 2020년 시(발)굴조사에서 후백제 때 창건된 절이 후백제 멸망과 함께 문을 닫았다가 조선시대 재건된 것으로 밝혀졌다.<sup>70)</sup> 반파국 추정 왕궁 터 부근에 후백제 때 절이 들어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왕궁과 절터가 한 몸을 이룬 익산 왕궁리 유적<sup>71)</sup>과 역사적인 의미가 상통한다.

### III. 고고 자료로 반파국 위치 비정

가야 소국 반파국(伴波[叛波]國)이 문헌에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己汶), 대사(帶沙)를 두고 백제와 전쟁을 할 때 봉후(化)제를 운영한 것<sup>72)</sup>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야 봉화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냈으며, 임실 봉화산 등 6개소 봉화대의 학술발굴로 그 운영 시기가 삼국시대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야 봉화는 가야 고층 못지않게 가야 소국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 주는 고고학 자료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 110여 개소의 봉화는 두 가지의 공통성을 보였다. 하나는 장수군 장계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장방형의 봉화대를 만들고 석성을 한 바퀴 돌렸는데,<sup>73)</sup> 산봉우리의 남쪽 기슭에는 상당히 넓은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돌로 연대를 쌓고 그 위에 연조를 설치했던 내지봉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

67)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장수 삼봉리 산성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68) 전북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대 및 산성에서 전형적인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대가야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69) 우연히 밭에서 나온 석재들을 마을 입구에 정성스럽게 쌓아둔 탐동마을 주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70)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개안[암]사지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71) 백제 무왕이 세운 왕궁 터와 후백제 절터가 서로 중복관계를 이룬다.

72) 이도학, 2020,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장수군」,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7~32쪽.

73) 반파국 국경선과 교통의 중심지와 전략상 요충지에 배치된 가야 봉화에 테뫼식 성벽을 돌렸다.



해 불을 피우던 5개의 연조와 불을 피우기 위한 재료를 보관하던 고사, 그리고 연대와 연조 주위를 두른 방호벽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내지봉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는데, 이곳은 여덟 갈래로 복원된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그런데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8년 3월조에

반파(伴跛)는 자탄(子呑)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에 이어지게 하고 봉후(烽候)<sup>74)</sup>와 저각(邸閣)을 설치하여 일본(日本)에 대비했다. 또한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아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新羅)를 핍박했다. 자녀를 몰아 잡아가고 촌읍을 벗겨 빼앗아가니 적의 힘이 가해진 곳에는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배어 죽임이 너무 많아서 상세히 적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일본서기』 계체천황 8년 3월조).

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야 소국 반파국이 대규모 축성과 봉후제(烽候制)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아직은 문헌의 공간적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전북 동부지역에서 봉화가 배치된 지역<sup>75)</sup>과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동북부 등 섬진강 중류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섬진강 중류지역은 한 개소의 봉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북 동부지역에서 산성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고 산성의 축성 기법도 긴밀한 공통성을 보였다.<sup>76)</sup>

문헌에서 대사(帶沙)의 위치 비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금서룡(今西龍)<sup>77)</sup>이 대사(帶沙)와 다사(多沙)가 동일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 위치를 경남 하동으로 비정한 주장<sup>78)</sup>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백제가 513년부터 3년 동안 반파와의 공방에서 승리를 거둔 뒤 기문과 대사는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지만, 섬진강하구의 다사진(多沙津)은 529년까지 여전히 가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사와 다사가 각각 다른 지역을 가리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서기』에도 370년 다사성(多沙城)<sup>79)</sup>과 529년에 다사진(多沙津)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백제와 반파국이 기문과 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일 때만 대사(帶沙), 대사강(帶沙江)이라는 지명으로 등장한다. 운봉고원 기문국 못지않게 대사도 당시 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섬진강 내

74) 봉화를 올릴 수 있도록 쌓은 봉화대(烽火臺)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조선시대 봉수의 시원형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봉화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5) 고고학에서 국가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봉화는 그 분포 범위가 전북 동부지역 가야 세력의 영역과 일치한다.

76) 최인선, 2008, 「섬진강 유역의 백제산성」,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77) 今西龍, 1922, 「己汶伴跛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78) 김태식, 1993, 앞의 책;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박천수 2006, 앞의 논문. 정재윤, 2021,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37~56쪽.

79) 『日本書紀』新功紀 50년(370) 2월에 倭가 多沙城을 韓에 돌려주고 왕복하는 길의驛으로 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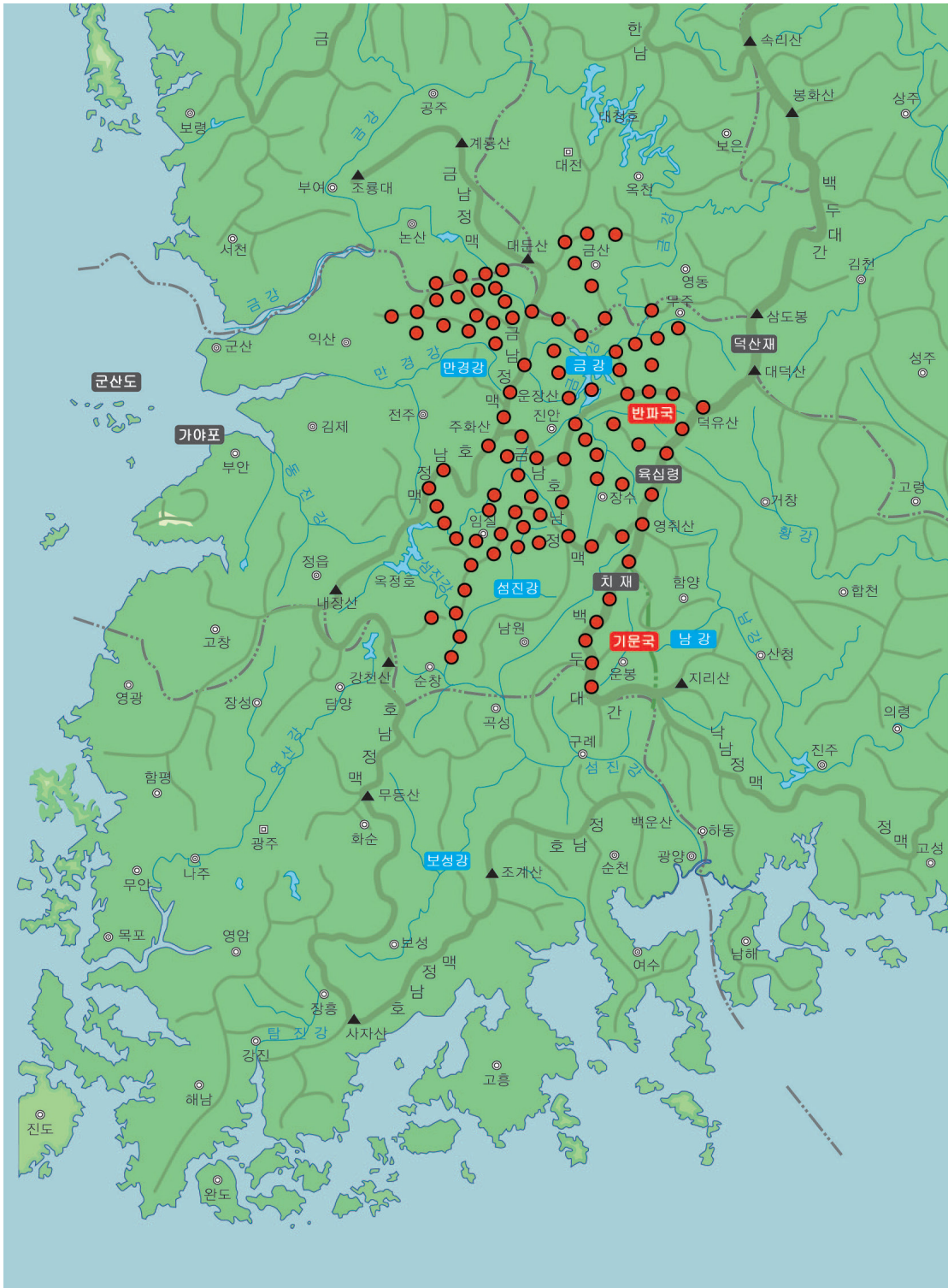


그림 6.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망 및 정치체 위치 비정도

룩수로<sup>80)</sup>와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이 교차하면서 웅진기까지 지방 거점을 이룬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일대를 대사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을 다사로 비정하고자 한다.

남원 사석리 고분군 두 차례 학술발굴을 통해 그 개연성이 검증됐다. 2020년 가야사 국정과제로 남원 사석리 8호분 학술발굴이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마무리됐다. 이 무덤은 반지하식 횡혈식 석실분으로 직경 12m의 봉분 중앙부에 석실이 마련됐다. 석실은 장방형으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깎은 돌로 양쪽 장벽이 약간 내경되게 쌓은 뒤 3매의 판석형 할석으로 덮었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347cm, 너비 185cm, 높이 167cm이다.

백제 중앙 묘제의 상징으로 알려진 관대가 석실 바닥 중앙에 마련됐는데, 그 규모는 길이 262cm, 너비 113cm, 높이 13cm이다. 석실 남벽 중앙에 높이 91cm, 너비 66cm로 현문이 마련됐다. 연도는 밖으로 약간 벌어진 팔(八)자형으로 길이 120cm이며, 배수로는 현문에서부터 길이 315cm로 만들었다. 1990년대 도굴로 유물은 석실의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바닥에서 3점의 뚜껑과 관정 2점이 출토됐다.

남원 사석리 8호분은 섬진강 유역의 위상과 그 역사성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하나는 마한과 백제 묘제가 하나로 응축됐고, 다른 하나는 백제 무왕이 잡든 익산 쌍릉 대왕묘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로 석실의 길이가 크다. 또 다른 하나는 피장자의 시신을 모신 관을 얹었던 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분의 구조와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분묘유적의 하한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로 편년됐다.

남원 입암리 등 섬진강 중류지역에 4개소의 말무덤<sup>81)</sup>을 남긴 마한세력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이후 남원 사석리 일대로 통폐합된 것 같다. 남원 사석리 8호분은 8기의 말무덤<sup>82)</sup>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봉분의 규모도 가장 크다. 동시에 말무덤의 역사성과 함께 분묘유적의 하한을 말해준다. 남원 사석리는 백제의 진출로 마한의 통폐합 이후에는 백제 지방 지배의 거점이었음을 반증한다. 엄밀히 해석하면 왕자와 왕족이 지방관으로 임명된 담로제 혹은 왕후제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웅진기 백제의 중앙 묘제인 횡혈식 석실분이 한곳에 무리지어 있는 곳은 남원 사석리가 유일하다. 더욱이 봉분의 직경 10m 내외되는 8기의 대형고분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상한이 웅진기 이전으로 올라갈 개연성도 충분하다. 남원 사석리는 웅진기까지 섬진강 유역에서 최대의 정치 중심지였다. 마한부터 웅진기까지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준 곳은 섬진강 유역에서 남원 사석리가 유일하다.

80) 전북 남원군 송동면 세전리와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는 요천·수지천·곡성천이 섬진강 본류에 합류하는 곳이다. 면담조사 때 송동면 세전리 주민들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해안에서 소금을 실은 소금배가 섬진강을 따라 이곳까지 올라왔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81)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남원 입암리 말무덤 발굴을 통해 그 성격이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82) 달리 왕무덤으로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봉분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커진다.

가야 봉화 및 산성<sup>83)</sup>에 근거를 두고 문헌 속 자탄은 대사에서 멀지 않은 순창군 적성면<sup>84)</sup> 일대로, 이열비는 오수천을 따라 순창봉화로가 선상으로 이어진 임실군 오수면<sup>85)</sup> 일대로, 마수비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반파국이 백제와 국경선을 이룬 임실군 관촌면<sup>86)</sup> 일대로, 마차혜는 진안고원에서 산성 및 봉화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진안군 주천면<sup>87)</sup> 일대로, 추봉은 웅진 천도 이후 반파국이 진출하여 가야 봉화를 집중 배치했던 충남 금산군 일대로 비정<sup>88)</sup>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섬진강 유역은 기문국이 있었던 곳으로 비정된 견해가 큰 지지를 받고 있다.<sup>89)</sup> 동시에 대가야의 섬진강 루트<sup>90)</sup>에 근거를 두고 대가야의 변방 혹은 지방으로만 인식됐다. 그렇지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을 갈 때 아니면 하동읍에서 대가야읍을 방문할 때 섬진강 루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루트는 백두대간 등 장애요인이 많고 거리가 너무 멀어 지금도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다. 오히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을 출발하여 경남 합천군 옥전·삼가고분군, 산청군 단성면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까지 이어진 옛길이 훨씬 더 용이하다.

문헌에 반파국이 일본을 대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 산성 및 봉화의 분포망<sup>91)</sup>을 근거로 영산강 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마한도 여기에 포함될 것<sup>92)</sup>으로 추측된다. 2019년 복원된 임실봉화로와 순창봉화로<sup>93)</sup>는 다른 봉화들과 달리 봉화대를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섬진강 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봉화대들은 514년 반파국이 백제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쌓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문헌에 반파국이 국경을 맞댄 신라와도 서로 적대 관계였다고 전한다. 웅진 천도 이후 일시에 백제가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자 신라는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요사이 대규모 철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무주군 일대를 편입시켰다.<sup>94)</sup> 무주 나제통문을 경계로 그 동쪽에 신라 무산현이 설치된 무주군 무풍면이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소의 가야 봉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83) 가야 산성으로 밝혀진 장수 삼봉리 산성을 근거로 산성의 평면형태가 테와식 장타원형으로 그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가지고 성벽을 쌓은 경우를 말한다.

84) 순창봉화로가 시작되는 순창 오교리 산성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태자, 화탄, 월탄마을이 있다.

85)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방축골과 10여 개소의 산성 및 봉화가 집중 배치되어 있다.

86)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방현산성과 공수봉, 방수리, 막동(幕洞), 성미산성(城尾山城), 방미산(防尾山) 등이 있다.

87)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성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산성 및 봉화가 밀집 분포되어 있다.

88) 문헌에 등장하는 지명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향후 논문으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89) 그러나 섬진강 유역에서는 가야 소국 존재의 척도이자 바로미터인 가야 고총이 발견되지 않았다(김낙중, 2021, 「섬진강유역의 백제와 가야 고고학 자료」,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1~36쪽).

90)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74~75쪽.

91) 조영일, 2012, 앞의 논문, 67~90쪽.

92) 일본의 파병 및 마한의 이탈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자 한다.

93) 영산강 유역에서 섬진강 유역을 동서로 가로질러 반파국의 정치 중심지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을 방어하기 위해 반파국에 의해 대규모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94) 가야사 국정과제로 무주군에서 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처음 학계에 보고됐다. 백두대간을 따라 물이 풍부하고 평탄지가 발달한 계곡에 제철유적이 위치한다. 덕유산 향적봉을 중심으로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사방에 골고루 산재해 그 밀집도가 탁월하다.





그림 7.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신라 고분군 출토 신라토기 모음

반면에 나제통문 서쪽 무주군 무주읍은 백제의 적천현으로 덕유산 일대에 대규모 제철유적과 가야 봉화가 공존한다. 당시 반파국이 무주군 일대 철산지의 관할권을 두고 신라와 치열하게 전개된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문헌의 내용을 유적과 유물로 거의 충족시켜 주는 곳이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다.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웅진기 사행로가 금강을 건넌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부근에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에서 11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됐는데, 무덤은 바닥에 시상석을 갖춘 9기와 시상석이 없는 것이 함께 공존한다. 전자는 유구의 속성이 옥천 금구리, 상주 현신동·병성동 신라 고분과 흡사하다. 가야 고분이 일부 포함되어 신라보다 앞서서 반파국이 무주군 일대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고배, 대부장경호 등 신라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상한은 대체로 5세기 말엽 늦은 시기로 편년됐다.<sup>95)</sup>

이처럼 금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치한 무주군으로 신라의 서쪽 진출을 유구와 유물로 방증해 주었다. 신라 무산현 행정 치소 무주군 무풍면에서도 신라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어<sup>96)</sup> 다시 또 신라의 서진(西進)을 뒷받침해 주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엄연히 나제동맹을 맺은 상태였지만 5세기 4/4분기부터 백두대간을 넘어 진안고원 내 무주군으로 진출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된 것이다.

2020년 무주 노고산 봉화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금강과 인접된 남쪽 산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한 석축형 봉화대로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장수군 방향으로 향하는 옛길이 한눈에 잘 조망된다. 백제와의 국경선 금강을 감시하던 당시 레이더 기지였다. 봉화대는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성벽을 한 바퀴 돌렸다. 남원 봉화산, 임실 봉화산 등 가야 봉화대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똑같은 삼국시대 토기편

95)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 『무주 대차리 고분군』, 무주군.

96) 全州大學校 博物館, 1988, 『茂朱地方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全羅北道·茂朱郡.

만 출토됐다.<sup>97)</sup>

금강 남쪽 무주 노고산 봉화는 국경선에 배치됐던 반파국 봉화대의 속성이 강하다. 무주 주계고성이 대차리 부근에 있는데, 신라가 산성의 터를 처음 닦은 것<sup>98)</sup>으로 추정된다. 2021년 이른 봄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주계고성 남쪽 산봉우리에서 반파국 산성에서 봉화시설이 발견됐다.<sup>99)</sup> 무주 주계고성 신라군을 감시하기 위해 반파국이 구축한 방어 시설이다. 이를 종합하면 반파국과 백제, 신라의 국경선이 금강과 남대천을 따라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7년 6월조에

백제가 저미문귀(姐彌文貴) 장군, 주리족이(州利郎爾) 장군을 德積臣押山(백제본기에는 왜의 의사이마 기미(意斯移麻岐彌)라고 한다)에 팔려 보내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를 바쳤다. 별도로 아뢰길 “반파국(伴波國)이 신의 나라 기문(己汶) 땅을 약탈하였으니 없드려 바라건대 천을 베풀어 본래의 속한 곳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일본서기』 계체천황 7년 6월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sup>100)</sup>이 반파국에 복속됐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복원된 운봉봉화로는 문헌의 내용을 고고학 자료로 뒷받침해 주었다. 남원 봉화산 등 운봉봉화로는 토축형과 석축형 봉화대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석혼축형 봉화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섬진강 유역 봉화대와 함께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상당히 조잡해 급히 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임실 봉화산 봉화 토축형 봉화대



그림 . 진안 서비산 봉화 암반형 봉화대

97)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무주 노고산 봉화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무주군.

98) 종래에 백제 적산현 치소성으로 알려졌지만 현지조사 때 신라토기가 수습되어, 백제보다 앞서서 무주군으로 진출했던 신라에 의해 초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99)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싸리재 동쪽 산봉우리에 동서로 긴 장타원형의 성벽을 두르고 양쪽에 봉화대를 설치했는데, 봉화대의 축조 기법이 다른 가야 봉화들과 똑같다.

100) 종래에 남강 유역의 가야 세력 혹은 운봉고원 가야의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운봉지역 가야, 운봉 가야로 소개됐는데, 이 글에서는 문헌에 등장하는 기문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운봉고원에서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sup>101)</sup>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중엽 경까지 발전했다. 백두대간이 난공불락의 철옹성 역할을 해 주었고, 백제와 가야의 문물교류의 관문, 대규모 철산개발과 교역 네트워크를 통한 철의 생산<sup>102)</sup>과 유통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몰)무덤과 가야 고총, 최상급의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 자료로 증명했다.

운봉고원 내 가야 고총은 강성했던 기문국의 국력과 그 존속 기간을 암시해 주는 고고학 증거물이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가야 소국들이 니켈이 함유된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기문국에 보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 묘제가 가야 고총에서 처음 확인됐고, 6세기 중엽 경에는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됐다.

남원 청계리·유곡리·두락리에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 고총도 포함되어 기문국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운봉고원은 가야 영역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철기류가 나온 ‘철기박물관’이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금은상감 환두대도 편은 당시 운봉고원이 철의 생산부터 주조 기술까지 응축<sup>103)</sup>된 철의 테크노벨리였음을 방증했다.

그런데 가야 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이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남원시 운봉읍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 봉화가 모두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조선시대 때 전국의 5대 봉수로가 서울 남산에서 합쳐지는 것과 똑같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는 봉후(화)제를 운영한 가야 소국의 존재를 고고학 자료로 입증했다.

현지조사 때 봉화에서 수습된 유물의 조합상은 봉화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를 추정하는데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보다 시기가 늦은 유물이 봉화에서 수습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옹기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유물로도 조선시대 내지봉수가 아닌 가야 봉화였음을 다시 또 증명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장수 영취산·봉화산·원수봉 봉화 학술발굴에서 그 운영 시기가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속속들이 밝혀졌다.<sup>104)</sup> 모두 3개소의 석축형 봉화대는 장방형으로 쌓은 봉화대의 축조기법에서도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 영역으로 진출한 반파국이 백제의 동향을 살피고 당시 제철유적의 방비<sup>105)</sup>를 위해 봉화를 운영한 것으로 추

101) 우륵이 지은 12곡에도 두 번 등장하고 중국 및 일본 문헌에도 모두 이름을 올렸다.

102)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40여 개소에 달한다.

103) 유영춘, 2020, 「철제 武裝으로 본 전북 가야의 대외교류와 전술체계」,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191~265쪽.

104)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장수군.

105) 곽장근, 2017,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호남고고학보』 57, 호남고고학회, 4~25쪽.

측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것 같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 장계분지는 전북가야 최대의 정치 중심지였다. 더욱이 봉화대에서 수습된 유물의 속성이 장수 삼봉리·삼고리 등 분묘유적 출토품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장수가야를 문헌의 반파국으로 비정했다.<sup>106)</sup> 아직까지 전형적인 대가야양식 가야토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가야 소국 반파국을 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삼국시대 가야 봉화가 발견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복원된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층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는 문헌의 내용도 중요하다. 신라는 반파국 위치를 비정하는데 으뜸 바로미터이다.

문헌의 절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주는 곳이 장수군 장계분지에 지역적인 기반은 둔 가야 계통의 정치체이다. 반파국의 위치 비정과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고고 자료로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는 유일한 가야의 정치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사 연구에서 장수가야, 즉 반파국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야사 복원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안고원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반파국은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등장<sup>107)</sup>해 가야의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늦은 시기 백제에 의해 멸망됐다.<sup>108)</sup> 금남호남정맥이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과 관할, 대규모 구리와 철산 개발이 크게 작용했다. 이를 배경으로 장수 노곡리·장계리·호덕리 마한의 지배자 분구묘가 연속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층이 진안고원 장수군에만 조영됐다.<sup>109)</sup>

동시에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로 밝혀졌기 때문에 가야 정치체의 존재도 입증됐다. 백두대간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반파국은 110여 개소의 봉화와 1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가야의 봉화 왕국이자 철의 왕국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야 고층과 봉화, 제철유적이 함께 공존하는 곳<sup>110)</sup>은 백두대간 서쪽 금강 최상류 장수군이 유일하다.

106) 곽장근, 2021,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61~86쪽.

107) 장수 노하리 수혈식 석곽묘에서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대가야, 마한계 토기가 함께 나왔는데, 그 시기가 대체로 4세기 후반기 늦은 단계로 편년됐다.

108)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 湖南考古學會, 35~66쪽.

109) 최완규, 2018,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4~24쪽.

110) 유영춘, 2016, 「장수가야 철기유물의 종류와 특징」,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81~108쪽.

그런데 『양직공도』에 첫 번째<sup>111)</sup>로 이름을 올린 반파국이 두 차례의 사비회의에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서기』 흠명기 2년(541) 4월조, 5년(544) 11월조에 사비회의에 참석한 가야의 소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sup>112)</sup> 반파국은 두 차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문과 대사를 두고 3년 전쟁에서 백제에 패한 반파국은 사비회의 이전 백제에 의해 멸망<sup>113)</sup>됐음을 말해준다. 그럴 가능성은 유적과 유물의 특징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된다.

가야의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횡혈식, 횡구식 등 백제 묘제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장수가야, 즉 반파국이 유일하다. 백제 묘제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도 장축을 산줄기 방향과 일치시킨 유구의 속성을 제외하면 수혈식은 그대로 지속된다. 장수 무농리, 장수 동촌리 등 백제 고분군은 가야 고총군과 상당한 거리를 둔 상태로 남쪽 기슭에 입지를 두었다. 아직은 백제 분묘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이 시작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렇듯 반파국의 가야 중대형 고총의 매장 시설에서 횡구식, 횡혈식 등 백제 묘제가 확인되지 않았



그림 10. 장수군 장계분지 백화산 가야 고총군과 추정 왕궁 터, 삼봉리 산성

다. 장수 삼고리 등 하위계층 분묘유적에서는 삼족토기·횡병(橫瓶)·배부병(杯附瓶) 등 백제토기가 갑자기 부장되기 시작한다. 반파국 분묘유적에서 백제 묘제가 일체 확인되지 않고 백제토기가 등장

111) 반파국은 웅진기 동안 백제의 도읍 웅진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했던 가야 소국이다.

112) 1차 사비회의에는 安羅·加羅·卒麻·散半奚·多羅·斯二岐·子他, 2차 회의 때는 안라·가라·졸마·사이기·산반해·다라·자타·久嗟 등의 가야의 소국들이 참석했다. 『양직공도』의 반파국과 상기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백제에 의해 멸망 혹은 복속됐음을 말해준다.

113) 521년부터 538년 사이 반파국이 백제에 의해 멸망된 것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한다. 가야 소국 반파국이 백제와 당시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으로 반파국의 멸망 시기를 웅진기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한편 백제는 반파국 멸망 이후 장수군 장계분지에 백이[해]군(伯伊[海]郡)을 설치했는데, 통일신라 때 벽계군(壁谿郡)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지명의 음상사를 통해서도 장수군 장계분지가 반파국의 도읍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114)</sup> 백(伯)은 백(白)과 같음 말로 도읍의 뜻이 담겨 있으며, 벽(壁)도 같은 음으로 한자 표기만 다르다. 해(海)는 지명접미사로 성(城)을 뜻하는 말로 벽(谿)도 성(城), 즉 도읍을 의미한다.

고려 때 벽계(壁谿)를 장계(長溪)로 고쳤는데, 백(伯)의 훈이 ‘만이’로써 ‘크다’는 뜻으로 보고 장(長)을 취했고, 계(谿)는 음이 같은 계(溪)로 바뀌었다. 장계는 한자 풀이로 ‘큰 내’가 되지만 원래의 뜻은 ‘큰 마을’이라는 의미의 도읍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백해의 음상사에는 큰 도읍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sup>115)</sup> 지명의 음상사를 통해서도 금강 최상류 진안고원 내 장수군 장계분지가 반파국의 도읍이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파국은 나라의 이름에서 의문점이 적지 않다. 『일본서기』의 반파(伴波)는 ‘뒤를 따라가는 절뚝발이’라는 뜻과 『양직공도』의 반파(叛波)에는 ‘반란의 물결’이라는 악의적인 의미가 나라의 이름에 담겨있다.<sup>116)</sup> 당시 반파국에 대한 백제의 경멸적이고 최고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는데, 당시 고대국가 백제에 대항했던 반파국의 패착은 반파국의 몰락을 자초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다름 아닌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꽤 오랫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의 국난을 함께 나누지 않고 오히려 백제 영역으로 진출하여 백제의 철산지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 동부지역 백제의 철산지가 거의 반파국의 수중으로 들어갔다.<sup>117)</sup> 백제는 자국의 세력권에서 이탈해 간 백해 세력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반(叛)’자를 넣고 ‘해(海)’자는 뜻을 취하여 ‘파(波)’로 변개한 것으로 본 견해<sup>118)</sup>가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고고학으로도 반파국의 도읍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반파국의 도읍으로 비정된 장수군 장계분지의 주산은 성주산(聖主山)<sup>119)</sup>으로 장수군 장계면 소재지 동북쪽 깃대봉을 가리킨다. 이 산 남쪽 기슭 말단부에 관아터가 있는데 반파국의 왕궁 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일대로 자생 풍수에서도 혈처를 이룬다.<sup>120)</sup> 성주산 서남쪽 태봉(胎峰)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114) 곽장근, 2018, 「웅진기 백제 영토 개척과 지방 지배」,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115) 임공빈, 2010, 「내 고향 우리 이름」, 완주문화원, 319~322쪽.

116) 박중환, 2018, 「양직공도 방소국을 통해 본 백제의 대외관」,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마한연구원, 65~92쪽.

117)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본래 반파국의 영역에는 80여 개소, 운봉고원의 기문국에는 40여 개소, 신라의 무산현에는 30여 개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20여 개소는 본래 백제의 영역에 위치한다. 반파국은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을 틈타 백제의 철산지 120개소를 장악한 뒤 대규모 축성과 봉화대를 배치했던 것 같다.

118) 이도학, 2020,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파국」, 『전북문화살롱』 제22호, 신아출판사, 13쪽.

119) 이 산 남쪽 기슭 중단부에 태봉이 있는데, 이곳에 왕비의 태를 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120) 통일신라 도선의 비보풍수가 시작되기 이전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 풍수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자락이 반달모양을 이룬다.

백두대간 영취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장수군 장계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계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반파국의 추정 왕궁 터와 남쪽에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sup>121)</sup>이 위치한다. 현실 세계의 왕궁과 사후 세계의 고총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반파국의 추정 왕궁 터 동남쪽 산봉우리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 봉화호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테피식 산성 내 정상부에서 장방형의 봉화시설이 발견됐다.

#### IV. 반파국 역동성 및 철산지 현황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진안고원이 자리한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곳으로 전북 장수군·진안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속한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도 지질 구조상으로 진안고원에 속한다는 주장<sup>122)</sup>도 있다. 선사시대 이래로 죽 잇달아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철산지이자 구리산지 진안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침으로써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 봉화 왕국 반파국이 있다.<sup>123)</sup> 금강 발원지 신무산 뜯봉샘이 자리해 수계상으로는 금강 최상류를 이룬다. 운봉고원의 기문국과는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들로 가로막혀 별개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한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반파국은 백제와 국경을 맞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가야 소국으로까지 성장했다.<sup>124)</sup>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일하게 소국으로까지 발전한 가야 정치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sup>125)</sup>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에서 발견된 가야 문화유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sup>126)</sup> 진안고원 내 분묘유적과 관방유적, 통신유적의 밀집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생산유적을 찾는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되어 전북가야의 영역에서만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제동

121) 장수 삼봉리는 반파국의 수장층 분묘유적으로 장수군 장계분지에 120여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122) 장현근, 2016, 「장수군 제철유적지의 지리학적 특성」,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회, 23~32쪽.

12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2014,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369~412쪽.

124) 전상학, 2016,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회, 111~125쪽; 2021, 「장수군 가야고분의 가치」,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61~77쪽.

125) 문헌에 등장하는 20여 개 이상의 가야 소국들이 대다수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봉화 왕국 반파국만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126) 모든 가야 영역 중 가야 중대형 고총이 포함된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통신유적과 제철유적, 제동유적이 공존하는 곳은 장수군이 유일하다.



그림 11. 장수 노하리 고분군 출토 유물(상), 장수 삼고리 고분군 3호분 주석곽 출토 유물(하)

유적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가야 영역에서 가야 고총과 봉화, 제철유적이 함께 병존하는 곳은 전북 동부지역이 유일하다.

2016년 장수 노하리에서 4세기 후반 경 철산 개발을 암시해 주는 유물이 나왔다. 수혈식 석곽묘는 대체로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석곽을 만든 뒤 개석을 덮고 봉토를 씌웠다.<sup>127)</sup> 석곽 주변에 원형 혹은 반월형 주구를 돌렸으면, 유구의 장축 방향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되게 두었다.<sup>128)</sup> 유물은 마한계, 백제계, 가야계 토기류가 함께 공존하는데, 토기류의 조합상은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된다. 당시 장수군에서 생산된 철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토기를 보낸 물물 교환의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마한계 최대 규모의 분묘유적으로 밝혀진 완주 상운리 출토품과 흡사한 토기류도 포함되어 있다.<sup>129)</sup> 만경강 유역 완주 상운리에서 20세트의 단야구가 나왔는데,<sup>130)</sup> 우리나라의 단일 유적에서 나온 단야구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단야구류는 망치와 집게, 줄, 철착, 썰기, 모루, 톱 등으로 구성

127) 전상학, 2007, 「全北 東部地域 竪穴式 石槨墓의 構造 研究」, 『湖南考古學報』 25, 湖南考古學會, 102~130쪽.

128) 당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장례 문화를 읽을 수 있다.

12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수 노하리 고분군』, 장수군.

130) 김승욱 · 이보람 · 변희섭 · 이승태, 2010, 『상운리 I · II · III』, 전북대학교 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되어 있다. 금강 최상류와 만경강 유역의 교류관계가 왕성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sup>131)</sup> 금강 최상류 장수군에 기반을 둔 토착 세력 집단은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가야 문화를 받아들여 가야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가야 고총이란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대형 무덤으로 그 주인공이 지배자 혹은 지배층으로 추정된다. 진안고원 내 분묘유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야 중대형 고총이다. 가야 고총은 대체로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다. 그리고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훨씬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권위와 위상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있다.<sup>132)</sup> 고구려·백제·신라와 다른 가야만의 장례 문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야 고총이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영남지방에서 밝혀진 가야 묘제의 특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서만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발견됐다.<sup>133)</sup> 한걸음 더 상세하게 소개하면 장계분지에는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1기·월강리에서 23기·장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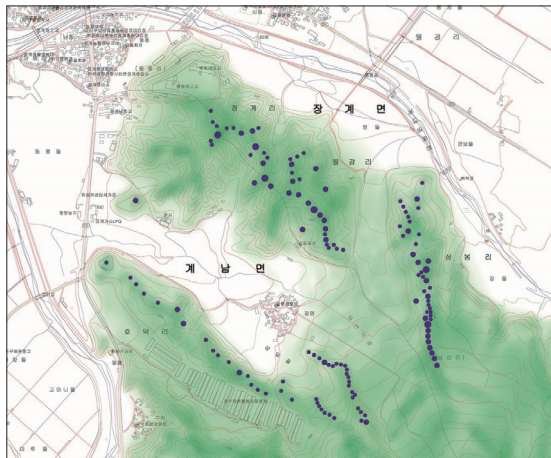


그림 12. 장수군 장계분지 가야 고총 분포도



그림 13. 장수 동촌리 30호분 복원 모습

에서 40여 기와 화양리에서 1기의 가야 고총이 있다.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와 장수 삼고리에 10여 기, 그리고 팔공산 서남쪽 대성고원에도 5기 내외의 고총이 있다. 그러나 진안고원 내 금산군과 진안군, 무주군에서는 가야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장수군에서만 장수 노곡리·장계리·호덕리 말무덤이 지속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비로소 가야의 중대형 고총으로 커졌다.<sup>134)</sup>

장수 삼봉리에서 4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90여 기의 가야 고총이 한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반과국의 존속 기간을 말해준다. 장수 동촌리에는 90여 기 이상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가야의

131) 최완규, 2018, 앞의 논문, 4~24쪽.

132) 金世基, 1995,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352~363쪽.

133)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군의 가야고분』, 장수군.

134) 전상학, 2017,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26~37쪽.

영역에서도 이례적이다. 봉토의 직경이 30m 내외 되는 장수 화양리를 비롯하여 240여 기의 가야 중 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반파국의 위상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 고총은 그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sup>135)</sup>과 민묘 구역 조성으로 장수 삼봉리는 40여 기의 고총 중 2기만 봉토가 얼마간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종래에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된 호남지방에서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은 진안고원에서 장수군이 유일하다. 동시에 반파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영남지방에서도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단일 지역 내에 무리지어 있지 않은 정도로 그 기수가 많다. 일제강점기부터 줄곧 가야 영역의 서쪽 자연경계로 인식됐던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자리하여 가야의 영역을 백두대간 넘어 금강 유역으로까지 넓혔다.

가야 고총에서 반파국만의 지역성도 입증됐다.<sup>136)</sup>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 고총은 봉토의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으로 서로 인접된 다른 고총과는 연결되어 있거나 얼마간 거리를 두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서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성 송학동처럼 봉토의 하단부가 서로 인접된



그림 14. 장수 장계리 8호분 출토 단야구



그림 15. 장수 동촌리 19호분 출토 말발굽

연접분(連接墳)으로 그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을 이룬다. 동시에 마한의 분구묘처럼 봉토를 만든 다음 다시 파내어 매장 시설을 마련하여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묘제의 연관성도 입증됐다. 그리고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그 주변에 1·3기 내외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sup>137)</sup>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威身財)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함께 목관에 사용됐던 껍쇠<sup>138)</sup>가 출토되어, 가야 고총의 피장자가 반파국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2012년 장수 삼봉리 가야

135)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전기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일본인 도꾸라세이지가 개발을 명문으로 삼봉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현지에 집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가야 고총을 도굴했는데, 장수 삼봉리 2호분은 매장 시설의 장벽을 거의 드러낼 정도로 도굴의 피해가 극심했다.

136) 전상학,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46~63쪽.

137) 전상학, 2013, 앞의 논문, 35~66쪽.

138)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진안고원 내 장수 삼봉리 가야의 중대형 고총의 주석곽에서만 나왔다. 운봉고원의 가야 고총 출토품보다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 또 다른 가야 소국이 있었음을 확증해 주었다.

고층에 대한 학술발굴<sup>139)</sup>에서도 그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다시 입증됨으로써 반파국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재삼 증명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야 고층의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을 띠는 것은 장수군에서만 조사됐다. 무엇보다 금으로 만든 가는 고리<sup>140)</sup>를 비롯하여 재갈과 등자, 꺾쇠 등 값진 유물이 나와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5년 장수 동촌리 19호분에서 말발굽과 말뼈, 30호분에서 위신재로 알려진 f자형판비가 나왔다.<sup>141)</sup> 2017년 장수 동촌리 28호분 주석곽에서 금동제 화살통 장식과 내만타원형판비, 부곽에서 은제 귀걸이가 출토됐다. 2020년 장계면 장계리 8호분 주석곽에서 단야구가 나왔는데,<sup>142)</sup> 망치와 모루, 집게로 구성된 단야구는 그 크기가 작아 2차 단야구로 추정된다. 장수군 내 가야 고층에서 처음으로 말발굽과 2차 단야구가 나와 반파국이 철의 생산<sup>143)</sup>부터 주조 기술까지 함께 갖춘 가야 소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44)</sup>

2020년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서 반파국 발전상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됐다. 장수 삼고리는 반파국 하위계층 분묘유적으로 하나의 봉분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배치된 다곽식(多槨式)이다. 망자의 시신을 안치하는 매장시설은 돌로 만든 석곽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땅을 파낸 토광묘와 옹관묘가 포함되어 있다.<sup>145)</sup> 매장시설은 2기의 대형 석곽묘가 중앙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바닥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무덤들이 사방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

장수 삼고리 2호분은 두 기의 대형 석곽묘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부부무덤이다. 그 위쪽에 터를 잡은 3호분은 봉분이 붙은 연접분이다. 모두 13기의 무덤들로 갖춰진 봉토분을 축조한 뒤 후대에 7기의 무덤을 더 만들고 봉분을 잇대어 덧씌웠다. 봉분 주변에 도랑을 두른 흔적은 확인됐지만 봉분에서 호석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수 삼봉리·동촌리 등 반파국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밝혀진 반파국의 지역성과 독자성이 다시 또 입증됐다.

삼국시대 명품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최고의 유물들이 쏟아졌다. 금제 귀걸이가 2호분에서 출토됐는데,<sup>146)</sup> 반파국 백성 무덤에서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황색·청(녹)색·흰색·붉은색·검은색 등 오방색이 화려하게 장식된 원판형 구슬은 오직 장수 삼고리에서만 나왔다.<sup>147)</sup> 엷은 붉은색을 띠는 모자곡옥도 당시 국제교역을 암시하는 무역품이다. 경남 창령에서 만

13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140) 면담조사 때 금관이 나왔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은 유물의 실체를 평가하는 바로미터이다.

141)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142) 전북문화재연구원, 2020,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143) 현재까지 장수군 일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80여 개소로 최대 규모를 이룬다.

144) 유영춘, 2020, 앞의 논문, 191~265쪽.

145) 하나의 봉분에 토광묘와 석곽묘, 옹관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이 유일하다.

146) 방민아, 2021, 「장수 삼고리 고분군 조사현황 및 성과」,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37~58쪽.

147) 영산강 유역 마한의 지배자 무덤에서 나온 3색 옥이 더 있는데, 오색 옥은 전국에서 장수 삼고리 출토품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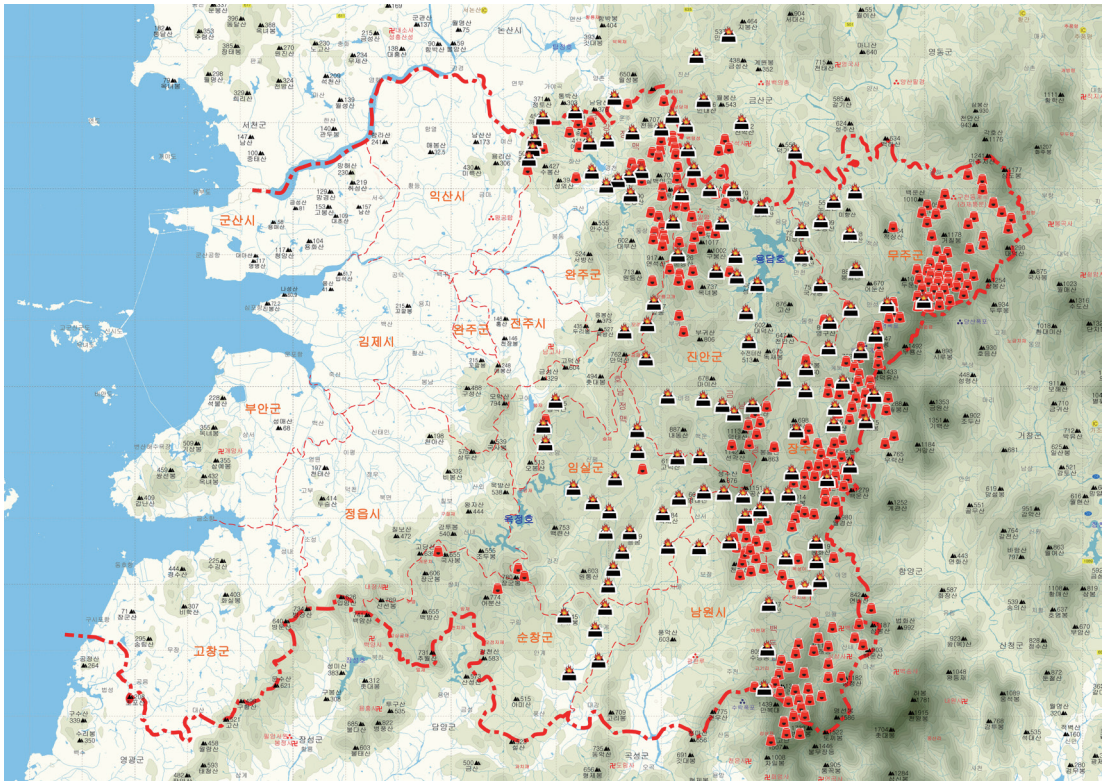


그림 16.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대 및 제철유적 분포도

든 비화가야를 중심으로 대가야, 소가야 양식 등 가야 토기<sup>148)</sup>들을 거의 다 모았다.<sup>149)</sup>

여기에 최상급 백제토기와 신라토기, 마한계 토기도 섞여있어 삼국시대 토기 박물관을 연상시켰다.<sup>150)</sup> 장수 삼고리는 한강 이남의 명품 토기들을 한자리에서 실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된다. 그러다가 반파국이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강행한 이후부터 큰 변화가 발생한다. 갑자기 반파국에서 가야토기를 손수 만들기 시작한다. 장수 삼고리 3호분에서 나온 늦은 시기의 토기들이 그 증거품으로 겨우 가야토기를 흉내 낼 정도로 거칠고 조잡했다.<sup>151)</sup> 왜 그랬는지 반파국의 미스터리이다.<sup>152)</sup>

전북 동부지역에 대규모 축성과 봉후(화)제를 운영한 반파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의해 멸망됐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복속됐는지 속단할 수 없다. 장수 무농리·동촌리에서 백제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는데, 장수 동촌리는 가야 고창군에서 동북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아직은

148) 박성배, 2021,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과 가치』,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83~104쪽.

149) 당시는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꾸는 물물교환으로 반파국에서 생산된 철이 널리 유통됐음을 알 수 있다.

150) 철과 소금은 소비자가 물건을 가지고 생산지를 방문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당시 반파국이 철산지였음을 다양한 유물로 방증한다.

151) 반파국 철의 장인들이 철의 생산과 유통이 중단됨으로써 급기야 가야토기를 손수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52) 백제 영역으로 진출 이후 고립무원에 처한 반파국이 직접 가야토기를 생산해야만 했던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대변해 준다.

백제 고분을 대상으로 발굴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장수 침곡리에서 웅진기 황혈식 석실분이 조사됐는데, 그 속성은 진안 여의곡과 상통한다.<sup>153)</sup>

그런가 하면 장수 삼고리에서 삼족토기·병·횡병·배부병, 장수 동촌리에서 직구호·무투창 고배가 나왔는데, 백제토기는 6세기 초엽 늦은 웅진기로 편년됐다.<sup>154)</sup> 가야 고분에서 백제토기의 등장을 근거로 6세기 초엽 늦은 시기까지도 백제에 의해 멸망되지 않고 가야 소국으로 반파국이 존속했음을 엿볼 수 있다. 사비기 백제는 장수군 장계분지에 백해(이)군과 장수분지에 우평현(雨坪縣)을 설치해 백제의 영역에 편입시켰다.

전북 동부지역 110여 개소 봉화의 존재와 여덟 갈래 봉화로 의 최종 종착지가 반파국의 도움으로 비정된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고, 진안고원 내 장수군 장계분지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낸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반파국의 존재를 확증했다.<sup>155)</sup> 동시에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장수 남양리에서 처음 시작됐고,<sup>156)</sup> 현재까지 반파국 영역에서 가장 많은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됐다.<sup>157)</sup>

영호남 가야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백제 묘제가 유일하게 확인되지 않는 곳이 반파국이다. 반파국 수장층 혹은 지배층 분묘유적으로 밝혀진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동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묘제로 알려진 황구식 및 황혈식 석실묘가 조사되지 않았다. 장수 동촌리 28호분이 장축방향을 산자락과 평행되게 남북으로 두었을 뿐이다. 앞장에서 반파국이 백제와 적대관계였다는 문헌의 내용을 거듭 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삼국시대 때 가야 소국 반파국과 백제, 신라가 진안고원을 두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대규모 철산지의 장악과 무관하지 않을 것<sup>158)</sup>이다. 봉화 왕국 반파국은 제철유적의 방비와 백제 혹은 마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봉후(화)제를 운영했다. 운봉고원 기문국과 대사 소유권을 두고 백제와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전쟁을 벌였지만 패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6세기 전반 늦은 시기 반파국이 백제에 의해 멸망됐고, 백제와 후백제의 멸망 이후<sup>159)</sup>에는 장수군 등 진안고원이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진안고원을 경유하여 백제, 후백제 도움까지 이어

153) 백제 분묘유적은 대체로 수 기 혹은 수십 기 이상의 무덤이 한곳에 무리지어 있는데, 장수 침곡리와 진안 여의곡은 한 기씩만 자리하여 강한 지역성을 보인다.

154)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3, 『長水郡의 古墳文化』, 長水文化院.

155) 곽장근, 2019, 앞의 책.

156)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보』 39, 호남고고학회, 5~25쪽.

157)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앞의 책, 176~229쪽.

158)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유물이 나온 곳이 장수 남양리로 가야 소국 반파국도 철산 개발로 국력을 성장시킨 뒤 봉후(화)제를 운영했음을 반증해 준다.

159)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자 반파국과 백제, 후백제의 국가 발전을 선도했던 철산 개발이 일시에 중단됐고, 급기야 940년 벽계군이 벽계현으로 강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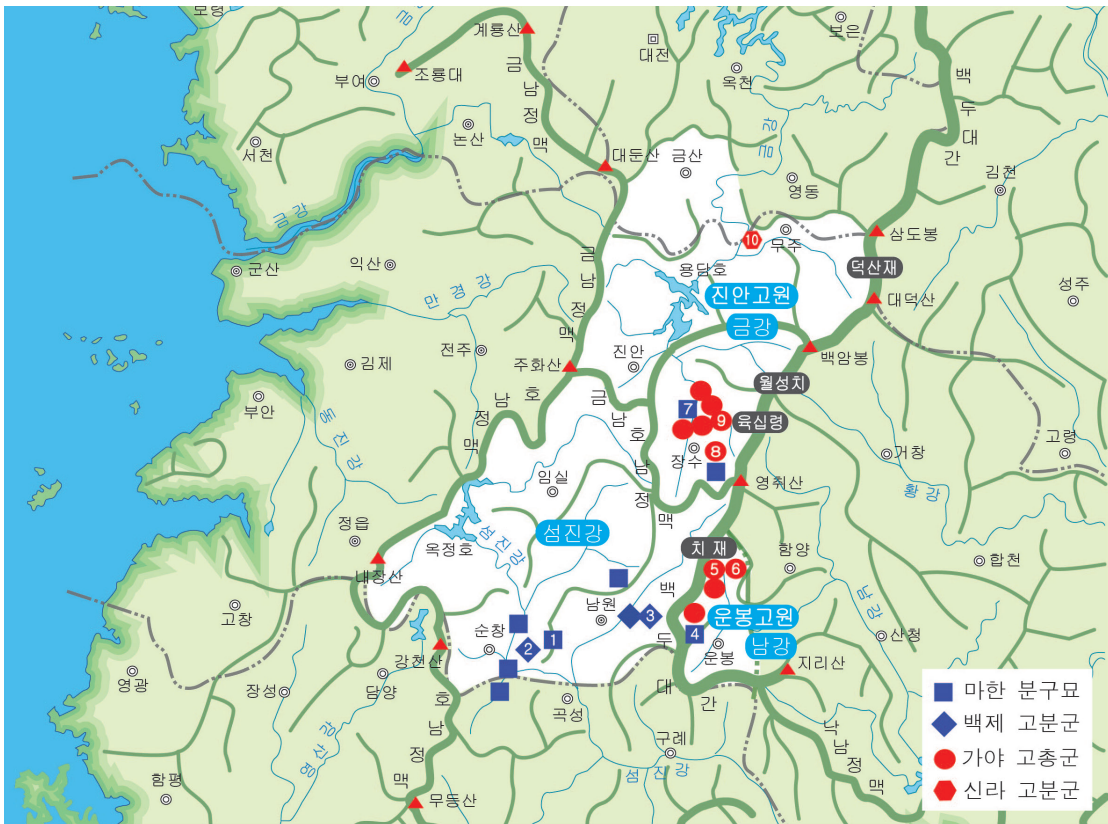


그림 17. 전북 동부지역 마한·백제·가야·신라 고분군 위치도  
(1 남원 입암리, 2 남원 사석리, 3 남원 초촌리, 4 남원 장교리, 5 남원 월산리, 6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7 장수 장계리, 8 장수 동촌리, 9 장수 삼봉리, 10 무주 대차리)

진 교역망이 일시에 끊기고 철산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야의 소국으로 반파국의 발전상과 삼국의 각축장으로 진안고원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줄곧 철산지로서 반파국과 백제, 후백제가 융성했기 때문이다.

1993년 백두대간 서쪽 장수군에서 반파국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이를 계기로 가야 문화유산의 분포망과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도 활발하게 추진됐다. 2003년·2012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학술발굴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장수 삼봉리 고분군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로, 2016년 9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으로 구성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됐다가 2019년 국가 사적 제552호로 승격됐다.<sup>160)</sup>

160) 이현석, 2021, 「장수 삼고리 고분군 진흥(振興)」,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109~127쪽.

## V.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가야 봉화 또는 조선 봉수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해 준다. 동시에 국가의 운명을 도맡은 통신유적의 백미이다. 우리나라에서 봉화산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지역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가야사 국정과제로 가야 봉화망과 그 역사성이 고증됐다. 조선시대 봉수제와 확연히 다른 가야 봉화제로 새롭게 밝혀져 봉수의 연대는 봉화대로, 거화시설 혹은 발화시설은 봉화시설 또는 봉화구로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일본서기』에 반파국은 봉후(화)를 이용하여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르고 신라 변방에 커다란 피해를 준 가야 소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반파국은 고대국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신라와 적대관계를 야기했다. 그만큼 가야사에서 반파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하고 특별하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10여 개소의 봉화망에 근거를 두고 전북가야의 영역도 설정됐다.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망을 문헌에 접목시켜 반파국 위치를 비정한 뒤 반파국을 가야의 Big4로 설정했다.<sup>161)</sup>

『삼국사기』에 가야가 다루어지지 않아 달리 ‘수수께끼 왕국’ 혹은 ‘비운의 왕국’으로 회자된다. 가야 소국 반파국은 중국 및 일본 당대 기록에 모두 다 등장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20년 경 지은 중국 문헌 『양직공도』에 첫 번째 그 이름을 올려 반파국의 국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문헌의 내용이 고고학 자료로 명약관화하게 입증됐다. 하지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반파국이 등장하지 않아 적지 않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렇게 본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금관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등 여섯 가야 소국의 국명은 중국 및 일본 문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1500년 전 반파국은 가야 소국으로 문헌에 등장하는데, 문헌에서 요구하는 반파국의 정체성(identity)은 봉후(화)이다. 다시 엄밀히 설명하면 가야 봉화는 반파국의 아이콘(icon)이다. 1990년대 한 개소의 가야 봉화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도읍을 둔 대가야를 반파국으로 비정한 견해<sup>162)</sup>가 정설로써 줄곧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한 개소의 가야 봉화가 발견되지 않아 학계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가야 봉화대 발굴에서 대가야 양식 토기가 아닌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만 출토되어 더욱 그렇다.

전북가야의 영역 설정은 가야 봉화망에 그 근거를 두었다. 지금까지 여덟 갈래 봉화로가 복원됐는

161) 이도학, 2020, 앞의 논문, 8~13쪽. 이도학, 2020,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45~74쪽.

162)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114~136쪽. 박천수, 2006,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보는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337~402쪽. 朱甫墩, 2008, 「새로운 大伽耶史의 정립을 위하여」, 『嶺南學』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42~45쪽.

데, 모든 봉화로의 출발지를 연결하면 반파국의 국경선이 완성된다. 반파국 영역은 백두대간 산줄기가 동쪽, 섬진강이 서쪽 경계를 형성하고 충남 금산군이 북쪽 국경을 이룬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 즉 반파국은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을 틈타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강행했다. 당시 반파국이 섬진강과 만경강 유역으로 진출했음을 110여 개소의 가야 봉화망이 문헌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었다. 가야 봉화망은 반파국과 백제, 신라 역학관계의 전개 과정<sup>163)</sup>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준다.

전북가야의 영역에서만 문헌 속 가야 봉화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가야 봉화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반파국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장수 봉화산 봉화 등 7개소의 가야 봉화대가 장계분지를 병풍처럼 감싼 산자락 정상부에 위치한다. 장수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모든 봉화로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것 같다. 2021년 원형의 집수시설과 그 내부에서 반파국에서 만든 가야토기편이 나와 추가발굴이 요망된다. 조선시대 다섯 갈래 봉화로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합하는 서울 목멱산과 같은 곳으로 그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 터가 위치한다.

장수군 장계분지는 반파국 도읍지였다. 장계분지 동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성주산(聖主山)으로 반파국 도읍지 주산으로 추정된다. 성주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자락에 태봉(胎峰)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왕비의 태를 묻었다고 전한다. 태봉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반달모양으로 삼봉리 탐동마을을 휘감아 최고의 혈처를 연출했는데, 그곳이 바로 반파국 추정 왕궁 터이다. 후백제 때 사찰을 지어 반파국의 추정 왕궁 터와 후백제 개안사지가 서로 중첩되어 익산 왕궁리 유적을 속 빼닮았다. 향후 반파국 왕궁 터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발)굴조사가 요청된다.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은 반파국 수장층 혹은 지배층이 잠든 분묘유적이다. 현재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는데, 본래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일제강점기 도꾸라세이지가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여 가야 고총을 대부분 도굴했다고 한다. 가야 고총의 장벽을 대부분 드러낼 정도로 도굴의 피해가 가장 극심하다.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과 추정 왕궁 터,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위치함으로써 장수군 장계분지가 반파국 도읍지였음을 확증해 주었다.

본래 반파국의 영역은 금강유역의 장수군과 진안군 동향면·안천면, 무주군 안성면·적상면·부남면으로 금강에서 백제와 남대천에서 신라와 국경선이 형성됐다.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한동안 정치 불안에 빠지자 백제 영역인 진안군과 충남군 일대로 진출했고,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을 넘어 완주군 동북부까지 진출하여 금만정맥에서 백제와 국경을 마주했다.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 대사를 두고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르면서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여 가야 봉화망을 구축했다.

163) 최완규, 2020, 『전북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역학관계』,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5~43쪽.



그림 18. 반파국 봉화대 활용방안



그림 19. 석축형 가야 봉화대 재현 모습

반파국 가야 봉화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sup>164)</sup> 하나는 석축형으로 대부분 깎돌로 봉화대를 만들었는데, 봉화대 벽석의 축조기법은 처음에 성기고 조잡하다가 후대에 판석형 할석으로 정교하게 쌓았다. 다른 하나는 암반형으로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고 불을 피우기 위한 원형 혹은 전 원후방형 봉화구를 다시 파냈다. 또 다른 하나는 토축형으로 흙을 쌓아 봉화대를 만들고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을 두었다.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서로 다른 것은 축조 시기를 말해주고 석축형이 가장 앞서고 암반형과 토축형이 늦다.

본래 반파국 영역에 배치된 봉화대는 대부분 석축형으로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국경선과 제철유적이 많은 철산지에 가야 봉화가 집중 배치되어 국경의 감시와 제철유적의 방비에 큰 목적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백제 영역으로 진출 이후 쌓은 가야 봉화대는 대부분 석축형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쌓았으며,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장수군으로 향하는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삼진강유역 봉화대는 전쟁을 치르면서 쌓아 토축형과 암반형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일부 석축형은 아주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국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시에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유적<sup>165)</sup>이다. 장수군은 또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가장 많은 제철유적을 학계에 알렸다. 반파국 영역에서만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200여 개소에 달한다. 반파국이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한 뒤 전국에 봉화망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반파국의 가야 봉화와 제철유적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은 제련부터 정련, 주조까지 모두 담아낸 일관 제철소이자 종합 제철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제철유적으로 밝혀져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은

164) 조명일, 2021,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39~58쪽.

165) 柳哲, 1995,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湖南考古學報』 3, 湖南考古學會, 29~74쪽. 韓修英, 2001, 「全北地方의 土墳墓」, 『研究論文集』 第1號, 湖南文化財研究院, 1~24쪽. 한수영, 2016,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33~47쪽.



반파국과 제철유적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sup>166)</sup> 반파국 가야 고총에서 단야구와 편자를 중심으로 마구류, 무구류 등 지역색이 강한 철기류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반파국이 가야 봉화 왕국으로 융성하는데 철의 생산과 유통이 핵심적인 공헌을 했을 것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는 110여 개소에 달한다. 지금도 가야 봉화를 찾고 알리는 정밀 지표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부터 1000m 내외의 산봉우리를 오르내리는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고고학자들의 도전과 독심에 감사를 드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야 봉화에 역사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걸어온 길보다 더 먼 길을 또 가야할 것 같다. 동시에 가야 봉화를 레이저 아트로 재현 및 활용방안<sup>167)</sup>이 마련됐으면 한다.<sup>168)</sup>

2017년 11월 25일 가야사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전라북도 주관으로 ‘봉수왕국<sup>169)</sup> 전북가야’ 기념비와 장수군에서 ‘봉수정’ 정자를 백두대간 치재 부근에 세웠다. 1500년 전 반파국이 110여 개소의 봉화대를 전북가야의 영역에만 남겼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유일한 가야 소국이자 봉화 왕국이 반파국이다. 2019년 완주 탄현 봉수(화)와 부안 점방산 봉수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그 역사성을 세상에 알렸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와 분묘유적, 제철유적을 하나로 묶어 반파국의 정체성을 조명하기 위한 학제 간 또는 지역 간 융복합 연구<sup>170)</sup>가 시작됐으면 한다. 장수군과 장수군민들의 가야 사랑에 큰 경의를 표한다.

166) 유영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제57집, 호남고고학회, 38~75쪽 ; 2018, 「철기 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64~88쪽.

167) 유철, 201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장수·장계분지의 고분군·산성·봉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42호, 전북사학회, 5~44쪽 ; 2016, 「장수군 제철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129~148쪽 ; 2017, 「전북가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가야문화의 寶庫, 전라북도를 조명하다』, 호남사회연구회, 89~115쪽. 이현석, 2017,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8) 유철, 2020,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305~347쪽.

169) 향후 봉수왕국을 봉화왕국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려고 한다.

170) 최인선, 2021, 앞의 논문, 87~88쪽.



#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에 대한 토론문

최인선(순천대 사학과교수)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도읍을 둔 대가야를 반파국으로 비정해 왔다. 그러나 장수군 장계분지에 분포한 고분군과 추정 왕궁 터,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 반파국의 도읍지가 장계분지라는 아주 새로운 학설을 필자께서는 제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고대사 영역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이러한 이론을 하나씩 검증해 가고 있어 고무적이다.

필자를 중심으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야 고총 420여 기, 가야 봉화 110여 개소, 제철유적 200여 개소 등 많은 유적들이 새롭게 찾아졌으며, 일부 유적은 발굴조사되어 그 속성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

반파국 비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봉화라고 하였다. 전북 동부지역의 봉화는 문헌에 전혀 보이지 않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봉화들이 가야시대의 것이라고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허구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가야시대의 봉화를 부인하여 왔는데 최근에 7곳의 가야 봉화유적이 발굴조사되어 그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필자께서는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의 동부지역에 분포한 가야 봉화대가 길이 8m 내외의 봉화대와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 봉화대를 보호하던 테피식 성벽, 물을 저장하던 집수시설, 봉화군의 주거 공간 등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도 최근에 조사된 장수 봉화봉 봉화유적을 실견하면서 가야봉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길이 800cm 방형의 봉화대 축조법이 들여쌓기를 하여 고구려 성벽 축성법과 같은 기법이어서 의아하였다. 이러한 석축의 축조기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 정상부에 있는 봉화대는 벽석을 이룬 돌들이 작아 무너질 위험이 많았으며, 만약 무너지면 다시 개축을 하였을 것이다. 들여쌓기 기법은 통일신라시대에 다시 부활하여 그 흔적을 산성들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수 봉화봉 봉화유적은 6세기 전반경의 가야 토기만 출토되었을 뿐 다른 시기의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대 역시 이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조사단은 파악하였다. 필자께서는 장수 봉화봉 봉화대의 들여쌓기 축조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하며, 장수 삼봉리 산성의 축성법과 왜 다른지도 궁금하다.

장계분지로 비정하고 있는 반파국(伴波[叛波]國)은 마한의 소국을 굴복시키고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등장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보았다. 110여 개소의 봉화 위치로 보아 그 영역도 넓어 백제지역까지 진출하면서 국력을 크게 신장 시키는 등 발전을 거듭했는데 6세기 전반 3년동안 백제와의 전

쟁으로 멸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백제에 없는 봉화제의 운영, 많은 철광석의 분포지로 볼 때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한 반파국이 갑자기 멸명한 이유도 궁금하다.



반파 가야 역사성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

발표 3

---

##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발표자 : 유 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자 : 안선희(원광대학교)

### 【목차】

- I. 머리말
- II. 유적의 관리 현황
- III. 기반조성 및 활용
- IV. 활용의 예
- V. 맺음말



#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유 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 I. 머리말

장수군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야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장수군을 포함한 전북 동부 지역은 마한 이래로 백제문화권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백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 가야를 수용하는데 있어 약간의 주저함도 없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 시작된 가야사 연구는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기 위한 조작된 역사로 만들어졌다. 이후 1980년대부터 가야를 주제로 시작된 연구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가야유적 정비사업 역시 영남지역의 가야유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1990년 중반 이후 가야사에 대한 많은 논문과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당시 전북 동부지역을 대가야 영역내로 편입시키고 가야 소국 중 기문(己汶)을 남원·임실 등 섬진강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는 지금까지도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장수군 일대를 기반으로 삼았던 가야의 소국(장수 가야)은 가야사의 중심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편중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사에 대한 연구도 40여 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sup>1)</sup> 골짜기를 누비고 발품 팔아서 찾아낸 전북지역 가야의 흔적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초대되는 토대가 되었다.<sup>2)</sup>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가야 연구·복원 TF팀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북 가야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수군에서는 가야를 군정(郡政)의 우선순위에 두고 학술조사 및 유적 정비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수읍 한누리전당내에 가야 홍보관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가야 역사관을

1)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곽장근, 2002, 『장수군의 산성과 봉수』, 장수문화원.

곽장근, 2003, 『장수군의 고분문화』, 장수문화원.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4,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전라북도.

곽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20, 호남고고학회.

곽장근, 2011, 『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제24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한국고대사학회. 외

2) 2017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호남과 영남의 화합의 장으로, 가야사 복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7.19 일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가야사 연구와 가야역사문화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에 전라북도 동부지역의 가야 문화유산도 정부의 정책에 초대되는 토대가 되었다.



건립 중에 있다. 더 나아가 가야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가야문화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북의 각 지역에서는 많은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고고유적들을 상호 연계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역의 고대문화를 복원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노력과 지원의 결과로 장수군에는 백두대간 서쪽에서는 유일하게 가야의 정치체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장수 가야는 정치적으로는 백제 · 신라 · 가야와 충돌과 융합의 관계로 각축전을 벌였으며, 문화적으로는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였던 문화 저력을 갖춘 가야계 소국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그간 각종 가야문화 조사 · 연구 · 복원사업에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문화유산은 포함되지 못하였지만<sup>4)</sup> 2021.6.10일에 시행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가야역사문화권이 설정되어 장수군 등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sup>5)</sup>의 역사적 가치가 조명되고 체계적인 정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추진 근거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장수 지역에서 조사된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장수 지역 가야문화유산의 활용실태와 몇 가지 활용의 예(例)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유적의 관리 현황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목적은 당해 유적의 보존과 활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문화유산의 보존은 원형유지가 기본이며, 원형유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인적 · 물적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최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문화의 확산 등으로 문화유산에 대

3) 최완규, 2013, 『백제 중방성 고사부리성』, 『백제의 중방문화 고사부리성에서 찾다』, 정읍시립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4) 가야사 정비사업, 2000-2004, 1,290억원 투입, 김해 · 함안 · 창녕의 가야 유적을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한 사업. 가야 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 사업, 2010-2019, 9,158억원 투입(2017년까지 2,629억원 투입), 달성군 · 고령군 · 함안군 등 경상남북도 8개군에 대한 37개 사업 수행(2017년 까지 21개 사업 추진)

5) 전라북도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시군별	계	고분(기수)	제철유적	봉화	산성
합 계	498개소	131(410)	228	107	46
남 원 시	107	53(160)	36	8	11
완 주 군	52	0	23	20	9
무 주 군	86	15	57	11	3
장 수 군	160	48(250)	86	22	4
진 안 군	54	9	21	25	10
임 실 군	25	3	4	16	4
순 창 군	14	3	1	5	5

6) 한국고고학회 ·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매장문화재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용방안』.

한 국민의 욕구와 인식이 증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을 잘 살피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서로 다른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조사·연구 등의 생산단계와 정비·복원 등의 보존단계, 활용·분석의 활용단계라는 순환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들은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당해 문화유산의 역사·고고학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당해 문화유산은 물론 주변경관과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근래의 문화유산 관리는 당해 문화재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의 문화환경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정비에는 몇 가지의 기본방향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는 역사 유적의 진정성과 원형 보존을 고려해야 하고 둘째는 유적의 특성을 규명하며 셋째는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과잉정비를 지양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유적을 정비하는데 있어 간혹 관람객의 편의를 우선시해야 할지, 아니면 유적이 갖고 있는 본디의 원형을 지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 방향성이 모호할 때도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유적 본디의 모습을 상실한 보존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적 정비는 표면적인 모습만으로는 어디에서나 비슷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해 유적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찾고, 신선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sup>8)</sup> 또한 복원과 재현과정의 컨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복원과 재현의 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르는 현대화에 의한 문화유산의 변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궁극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행정부서의 지원, 재정지원, 전문가 집단의 참여, 시민단체의 참여, 주민 참여 등이 반영된 시스템을 조화롭게 이루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sup>9)</sup>

장수 가야문화유산의 관리 또한 위의 기본원칙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 다만, 고분·산성·봉화·제철 유적 등 대부분의 유적이 산지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유적 주변의 식생식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sup>10)</sup>

7) 안선호, 2015,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8) 최완규, 2008, 「일본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호남문화재연구원.

9) 남해경, 2009, 「전주시 역사문화환경 조성의 사례연구」, 『역사문화환경 조성연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0) 이수정, 2012, 「문화재보존에 있어서 진정성개념의 속성과 변화고찰」, 127-129쪽, 『문화재』제45권 제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에 있어서 진정성은 그리스어의 'authēntikos' 동일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복제품의 반대어인 '원작' 또는 '원본', 위조품의 반대어인 '진품' 또는 '진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다가 베니스헌장에 이르러 문화재의 물리적 측면 이상의 추상적, 관념적인 가치인 가치와 의미 등의 정신적 요소들을 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진정성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 1. 고분군

장수지역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분군은 48개소 250여기이다. 이 중에서 동촌리, 삼봉리, 호덕리, 장계리, 노하리, 삼고리 고분군이 발굴조사 되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삼봉리 고분군은 최상위 지배층의 무덤이고 동촌리·호덕리·월장리·장계리 고분군은 상위계층의 무덤으로 파악되었다.

동촌리 고분군은 가야계 상위계층의 무덤으로 80여기의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가야 고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14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2기의 골호 등 모두 16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한 봉분내에 2기 이상의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으로 고분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호석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매장시설은 석곽묘로서 구 지



그림 1. 동촌리 고분군 복원 추정 조감도

표와 생토면을 정지하고 1m 내외 높이로 성토한 후 다시 되파기를 하여 축조하였다. 고분에서는 장경호·편구호·개·배·직구호·고배 등의 토기류와 철모·철검·철부·철도자·마구류 등의 철기류, 금제이식 등이 출토되었다.<sup>11)</sup> 특히, 가야고분에서는 최초로 말뼈와 함께 편자가 출토되어 우수한 철기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동촌리 고분군의 주변에는 수목과 농작물이 자생하고 있어 고분의 보존관리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일부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 고분군내의 수목을 제거하거나 정비한 후에는 필요하다면 고분군에 가장 적합한 수종과 식생으로 정비하고 고분의 주진입부와 주요 고분에 대한 탐방로 개설, 고분군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조망대 설치 및 휴식 공간도 정비되어야 하며, 고분군 내에 자리하고 있는 다수의 민묘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고분군 주변은 비닐하우스, 태양광시설, 축사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고분군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며, 장수누리파크 주변은 유적지와 관련된 문화시설만 허용하고 추가 개발을 막아 난개발

11)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동촌리고분군-1호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9, 『장수 동촌리고분군-30호분』.

을 금지하는 등 고분군과 주변 자연경관을 함께 보존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촌리 고분군의 효율적인 유적 보존을 위해서는 유적 관리자를 선임하는 한편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문화탐방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촌리 고분군은 인근에 의암사당과 한누리전당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면 좋을 것 같다.

한편, 고분군까지 안내하는 이정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장수읍과 장계면을 잇는 719번 도로와 덕산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동촌교 삼거리와 장수누리파크 진입부 등이 설치장소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유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안내판이 필히 설치되어야 하는데 마봉산 입구에는 동촌리 고분군 전반에 대한 설명 안내판, 동촌교차로와 주요 고분 앞에는 보조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읍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과 경관이 매우 양호하므로 추후 유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조명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삼봉리 고분군은 가야계 중대형 고분 40여기가 자리하고 있어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력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유적이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매장주체부는 (세)장방형의 석곽으로 봉토를 어느정도 성토한 후 다시 파내었으며 호석을 두르지 않은 특징이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장경호·단경호·기대·배 등의 토기류와 금제이식, 꺾쇠·철검·도자·철촉 등이 출토되었는데 백제토기, 대가야 양식 토기, 재기계 토기 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12)</sup>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는 야산에는 침엽수가 식재되어 있어 나무로 인해 고분이 훼손되거나 조망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간벌 및 식생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sup>13)</sup> 삼봉리 고분군은 20번(익산-포항) 고속도로와 35번(대전-통영)고속도로 상에서 고분군이 잘 보이는 중



그림 2. 삼봉리고분군 복원 상태

12)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삼봉리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봉리고분군-16·19호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봉리고분군-1·24·25호분』.

13) 최근 삼봉리 고분군 탐방로 조성으로 인해 나무들이 간벌되어 조망권이 일부 확보된 상태이다.



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일부 수목을 정비 하게 되면 좀 더 양호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분군에서 멀리 보이는 과수원, 축사, 비닐하우스와 고분군의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남골묘와 비닐하우스도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능하다면 정비나 이전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분들은 본디의 형태로 복원하게 된다면 고분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4기의 고분은 2기씩 연결된 것으로서 현재는 본디의 상태로 복원되어 있어 삼봉리 고분군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삼봉리 고분군 경관정비 계획도

한편, 고분군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함께 탐방로의 정비 및 설치가 필요하다. 장계면과 장수를 잇는 장무로, 장계와 무주를 잇는 육십령로, 육십령로의 월강삼거리 부근에는 이정표가 설치되어야 하며, 삼봉육교 위의 고분군 진입부에는 삼봉리 고분군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판과 함께 주요 고분 앞에는 각기 고분의 성격을

알리는 보조 안내판의 설치가 요구된다.

삼봉리 고분군은 장계면소재지의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동촌리 고분군과 같이 접근성과 경관이 뛰어나므로 유적을 알리는 정도의 조명과 탐방객의 진입을 유도하는 하부조명도 설치되면 좋을 것 같다.

호덕리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에 위치하며 정상부를 따라 20여기의 봉토분이 분포한다. 2000년과 2017년에 발굴조사가 일부 이루어져 매장주체부가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임이 확인되었다.<sup>14)</sup>

현재 고분군 내에는 여러 수목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수목을 정비하고 넝쿨식물의 성장을 제어해야 하며, 빗물이 고분 주변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구배를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삼봉리 고분군 방향의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등이 제거되면 좋을 것 같다.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며 호덕리 고분군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경관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분군의 탐방로와 진입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정표와 안내판 설치도 필요한데 장계면 장무로 갈평마을, 육십령로의 월강삼거리, 육십령로에서 노평마을과 남산마을 방면에 이정표를 설치

14)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호덕리고분군B』.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백화산 진입부에 호덕리 고분군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금강의 최상류인 장수천과 장계천이 합류하는 천천면 용광리에서 남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삼장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삼장마을 북쪽을 휘감은 산자락에 삼고리 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주능선에는 대형고분이 위치하고 경사면에는 소형고분이 배치되었다. 1995년 발굴조사에서 수혈식 석곽묘 19기가 확인되었고, 2018년 발굴조사에서는 수혈식 석곽묘 12기, 토광묘 13기가 조사되었다.<sup>15)</sup> 특히, 2018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오방색 채색구슬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환두도와 비슷한 모양의 오각형 철제대도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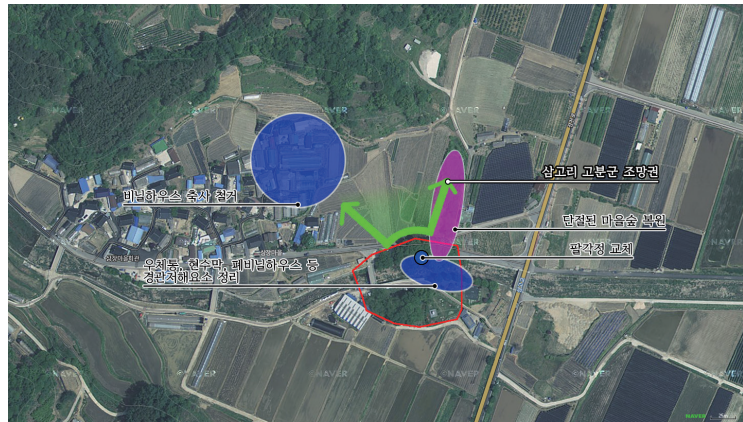


그림 4. 삼고리 고분군 마을숲 경관정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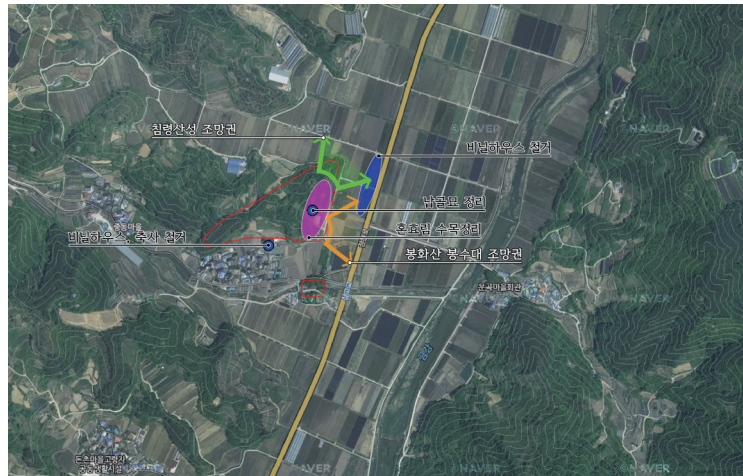


그림 5. 삼고리 고분군 경관정비도

되었으며 마한계 · 백제계 · 신라계 · 가야계의 각종 토기들이 출토되어 장수 가야의 대외 교류관계를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분군의 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데 진입로 입구의 납골당과 진입로에서 고분을 바라보는 방향의 참나무, 은사시나무 등의 혼효림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봉화산 봉화대 방향의 조망은 양호하지만 침령산성 방향으로는 비닐하우스가 경관의 저해요소가 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마을에서 삼고리 고분군을 바라보는 가시권에 자리하고 있는 인삼밭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비가 요구되며, 마을 주변에 자리한 우체통 · 현수막 · 농기계 · 쓰레기 · 폐비닐하우스 등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

15) 군산대학교박물관, 1997, 『장수 삼고리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고리고분군-1·3호분』.

도 필요하다. 고분의 주 진입로와 주요 고분을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 설치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완충지역의 공간 마련도 요구된다.

삼장마을은 마을숲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분군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삼고리 마을 숲은 주로 느티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 숲은 하천과 도로로 단절된 상태여서 도로 건너 고분군 쪽의 마을 숲은 보식을 하여 본디의 건강한 마을 숲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삼고리 고분군을 알리는 이정표가 없으므로 천천면에서 장수읍을 잇는 장천로 진입부와 남양삼거리에 이정표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삼장마을 입구에는 고분군과 마을 숲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삼고리 고분군 입구에는 고분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요 고분 앞에는 보조 안내판을 설치한다. 삼고리 숲과 고분군에 어느 정도의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2. 산성

장수군내에는 4개소의 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 중 침령산성, 합미산성, 봉서리 산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침령산성은 백두대간 육십령을 넘어 전주방면으로 이어진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는 방아다리재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전체 둘레가 470m 내외의 산성으로 산성의 수구가 있는 동남쪽은 60m에 걸쳐 7.7m 높이의 성벽이 남아 있다. 성문지 2개소 · 치성 2개소 · 건물대지 · 집수정 등이 발굴조사되었는데 직경 13m의 대규모 원형 집수정 내부에서 수문의 개폐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르래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sup>16)</sup>

성벽과 원형 집수정 · 건물대지 등 산성의 곳곳에 잡목이 자생하고 있어 2018년 발굴조사 때 잡초 및 잡목을 일부 제거한 바 있다. 하지만 잘라낸 잡목은 뿌리가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층위의 변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여서 이를 제거하거나 고사(枯死)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벽에 사용된 돌은 화강섬록암 · 회색사암 · 편마암과 소수의 점판암 등인데 편마암과 점판암은 동결과 해빙에 매우 취약한 석재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원형 집수정은 뚜껑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부에 물이 차 있으므로 물을 뺀 후 경화처리를 해야 한다.

침령산성 내에는 삼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이 무성하여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망권 확보를 위해 수목의 정비가 필요하다. 호덕리 고분군 방향과 방아재 봉화대 방향의 삼나무 및 진안방향과 산성내 지휘통제소 주변의 수목도 제거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성곽의 진입로를 정비하고 성곽 주변을 탐방할 수 있는 순환로를 정비하며, 휴식 공간의 조성이 요구된다. 진안과 전주방면, 중동교 너른 침곡로와 침곡로에서 침령길 방면의 침령마을 입

16)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장수 침령산성 집수시설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구, 등산로의 입구에는 이정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회관 앞과 법화산 정상부, 침령산성의 진입부에 유적 전반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성벽, 성문 터, 집수정, 치 등 중요 유구 앞에는 보조 안내판이 요구된다.

합미산성은 금남호남정맥의 고봉인 팔공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포곡식 산성으로 평면형태는 말각 장방형이며 성벽은 내벽과 외벽을 모두 쌓은 협축식으로 동·북·서쪽에 치가 마련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집수시설 3기와 건물지,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 토기편, 가야계 유물, 후백제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합미산성은 장수가야에 의해 처음 축성된 후 후백제가 외곽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7)</sup>

성벽의 곳곳에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치의 하부 석성이 이탈되면서 일부 붕괴되었으며 이끼와 지의류, 고착지의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성벽 주변의 잡목과 넝쿨식물을 제거하고 성벽에 서식하는 이끼류, 지의류, 고착지의류에 대해 세척을 하며 성벽이 이탈된 부분과 붕괴되는 지점 등은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 일부 허물어진 부분과 배부른 부분의 성벽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수하고 문지 및 치성 등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여 합미산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산성 내외에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류와 조릿대를 제거하여 장수읍 동촌리 고분 방향, 묘북산 봉수대 방향의 조망권을 확보해야 한다. 성의 진입로와 탐방로를 정비하고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며, 탐방로 목재계단의 상태가 불량하므로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산서파출소 앞 산서삼거리, 장수면에서 19번 지방도와 비행로가 연결되는 계정2사거리, 비행로에서 유적으로의 진입부 등에 이정표를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은 대덕마을 입구와 팔공산 입구에 합미산성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 3. 봉화

장수군에서 조사된 봉화는 22개소이다. 이 중 봉화봉 봉화, 삼봉리 봉화, 침곡리 봉화, 월곡리 봉화, 영취산 봉화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금남호남정맥 무령고개 부근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끝 부분에 백화산이 자리하는데 이 산에서 동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의 시루봉에 삼봉리 봉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 봉화는 동서 110m 남북 60m 내외로써 둘레가 340m 내외되는 산성의 서쪽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삼봉리 산성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으로 서쪽은 급경사인 반면에 동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삼봉리 봉화는 2018년 발굴조사를 통해 암반을 인위적으로 다듬어 조성한 단시설, 봉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화된 석재, 지름 20·30cm, 깊이 20cm 내외되는 주공들이 확인되었으며, 봉화 조성과 관련된 층위에서 대부장경호, 발형토기편 등 가야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삼봉리 봉화는 삼

17)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장수 합미산성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국시대에는 봉화 및 산성, 통일신라시대에는 묘역, 후백제 때에는 누정 등의 건물지가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삼봉리 봉화는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110여 개 봉화의 최종 종착지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sup>18)</sup>

삼봉리 봉화는 발굴조사로 인해 등산로가 만들어졌으므로 이 등산로를 정비하여 진입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봉화 주변의 수목을 정리하게 되면 추정 왕궁지와 삼봉리 고분군의 조망권이 매우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봉리 봉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정표와 안내판의 설치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장계면사무소 앞 신동삼거리와 육십령로 노평경로당 앞, 남산마을 앞에 이정표를 설치한다면 삼봉리 봉화로의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마을 주차장과 삼봉리 봉화 등산로 입구, 삼봉리 봉화 전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유적의 중요성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삼봉리 봉화는 전북 동부지역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로 추정되는 만큼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홍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봉화산 봉화는 장수읍 식천리와 산서면 오성리의 경계에 위치한 비행기 고개에 자리하고 있다. 이 봉화봉 봉화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권을 연결해주는 동서방향의 교통로가 통과하는 요충지인 대성고원에 자리한다. 따라서 대성고원과 산서면 일원이 한 눈에 조망되며 동쪽의 함미성과 서쪽의 거녕성도 시야에 들어온다. 정상부에는 치석된 석재로 쌓은 방형의 봉화대가 남아 있는데 이 봉화대는 정상부와 사면부의 석축이 무너진 상태이다. 봉화대의 동벽은 상단 650cm 하단 850cm 내외이며, 서벽은 660·830cm, 남벽과 북벽은 580·800cm 내외로서 4벽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2020·2021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는 다듬은 돌로 쌓은 사각형의 봉화대와 불을 피웠던 봉화시설, 봉화운영과 관련된 봉화꾼의 주거공간과 불씨를 보관하는 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봉화대의 상부에는 원형의 봉화시설이 남아 있으며 봉화대와 주거공간에서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기와편 등 삼국시대의 유물 70여 점이 출토되었다.<sup>19)</sup>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를 통해 봉화봉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한 후 이를 토대로 유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기 고개에서 봉화대까지는 최근 발굴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소로를 이용하여 탐방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봉화의 서쪽편 등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나무를 간벌할 필요가 있다. 나무 간벌은 조망권 확보와 생태환경 개선에 국한하고 봉화대 주변에 형성된 숲은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하므로 봉화대와 연계하여 '가야 봉화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봉화산 봉화로의 이정표와 유적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필요성이 있다. 대성마을, 구평마을, 성재마을, 비행기고개 등에는 이정표를, 비행기고개와 봉화대 전면에는 발굴조사 내

18)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2021, 『장수 삼봉리 산성 2차발굴조사 자문위원회』.

1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1, 『장수 봉화봉 봉화 발굴조사 학술화의 자료』.



용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탐방객을 위해 비행기 고개 도로 옆 계곡부의 공간에 주차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추후 봉화대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봉화대는 본디 상태로 복원하여 레이저를 활용한 봉화대 기능을 재현해 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그림 7. 전북가야 기념탑 건립(2017.11.25.)

치재는 백두대간 육십령(六十嶺) 못지않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큰 고갯길로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와 남원시 아영면 성리 경계로서 깃재 라고도 불린다. 치재 정상부의 서쪽 기슭에는 석도법과 판축법을 혼용하여 쌓은 깃재리토성이 일부 남아있으며, 치재에는 전북 가야 탐과 함께 봉화정(烽火亭)이 건립되어 있다.

2017년 11월 25일 치재 북쪽 정상부에 세운 '봉수왕국전북가야'라는 전북 가야 탐에는 "1500년 전 백두대간 속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가야계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가야세력을 하나로 묶어 전북 가야라고 명명하였다. 전북 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계 중대형 고총 420여 기,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 200여 개소, 햇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11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된다. 삼국시대 때 전북 가야의 위상과 그 역동성을 세상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북 가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호·영남 사람들이 오갔던 화합의 무대인 백두대간 치재에 전북가야 기념탑을 건립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6. 장수 봉화봉 봉화대

따라서 전북가야 탐을 세운 치재에서는 앞으로도 전북 동부지역에서 110여개소 이상이 조사된 봉



화의 실체와 그 역사성을 담은 봉화왕국 전북 가야 축제 한마당과 고유제를 개최하는 등 호남과 영남 가야가 상생하는 화합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수군에서 조성한 봉화산 철쭉공원 및 봉화산 철쭉제와 연계한 활용방안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봉화산으로 통하는 봉화산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봉화정에 대한 이정표를 설치하고 봉화정과 전북 가야탐 앞 주차장에 전북 가야를 담은 안내판을 세우며 야간에도 전북 가야탐을 인지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4. 제철유적

장수군에서는 모두 86개소의 제철유적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비룡리와 신전리 제철유적은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대적골 제철유적은 2016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적골 제철유적은 백두대간의 고봉인 남덕유산 서봉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사이 계곡부에 자리한다. 이 일대는 완만한 평탄대지와 수량이 풍부한 계곡천이 형성되어 있는데 유적은 주로 평탄지에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은 크게 가·마지구 등 5개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다지구에서는 제련로·단야시설·추정 용해로·석축시설·퇴적구 등이 조사되었고, 라지구에서는 건물지와 석축이 확인되었는데 후백제·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기와편·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제철유적의 가장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는 마지구에서는 주조와 관련된 작업시설과 철제술 용범 및 용범요와 자기, 옹기편 등이 조사되었다.<sup>20)</sup>

대적골 제철유적은 분포양상과 특징, 운영주체 및 운영시기를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련로·단야시설·추정 용해로·석축시설·퇴적구·숫가마 등이 확인된 다 지구는 제철유적의 전 공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므로 유적 전체를 보호하는 돛형의 지붕을 설치해 유구를 노출 전시하는 야외전시관을 건립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야외전시관은 철기 제작공정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제철유적지의 학습,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적골 제철유적은 유적 전반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진입로 변에 위치한 축사, 민가, 과수원의 이전 계획 등도 검토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대적골 유적에서 조사되는 철광석과 슬래그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하여 고분 등에서 출토된 철기와의 생산지 연관 관계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라·마지구까지 이어지는 제철유적의 탐방로를 개설하여 백두대간 등산로와 연결시켜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장계면 명덕리에서 금덕리까지 개설된 임도를 따라 안내문·간이의자·휴식공간 등을 설치하여 장수 가야의 Iron Road로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다·

2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라지구 주변에는 옛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통행했던 옛길의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이 옛길을 원형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대적골 제철유적은 산에 자리함으로서 유적 주변에 갖가지 수목이 자연상태로 자생하고 있어 유적 보호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수목을 제거하거나 간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적골 제철유적의 다·라·마지구 등에는 발굴조사 내용과 사진 등을 담은



그림 8. 대적골 제철유적 경관정비도

안내판이 비교적 잘 세워져 있지만 대적골 제철유적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743번 지방도 농소로와 연동마을이 만나는 연동마을 삼거리와 육십령로와 소비재로가 만나는 영덕삼거리, 소비재로와 참샘길이 만나 대적골로 올라가는 입구 등에 이정표를 설치해야 한다.

전북지역에서는 220개소 이상의 제철유적이 확인되었으나 제철유적의 홍보·교육 및 출토유물의 전시 시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북지역 최대의 제철유적으로 파악된 대적골 제철유적 주변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이용한 소규모의 '전북가야제철홍보관'을 건립하여 저비용으로 제철유적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비룡리 제철유적은 금남호남정맥 샷갯봉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변경하여 북쪽으로 꺾이는 골짜기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와룡자연휴양림의 가장 위쪽 사방댐에서 서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골짜기로써 골짜기의 양쪽에 다량의 철재 슬래그가 흩어져 있다.<sup>21)</sup>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철재 슬래그의 양이 많고 채석과 제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 평탄대지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룡리 제철유적은 유적의 분포 범위와 성격,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보존·관리 방안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될 것이지만, 잔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채석부터 제련과정을 볼 수 있는 유적으로 추정되므로 철의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룡리 제철유적 주변에는 각종 수목이 자생하고 있어 유적 보존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수목을 제거하거나 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방댐 설치와 난개발로 인해 경관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

21)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여서 경관 복구의 필요성도 요구되며, 제철유적으로의 접근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여서 탐방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한편, 비룡리 제철유적은 와룡자연휴양림 내에 자리하고 있어 휴양림 이용객을 제철유적 탐방객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와룡자연휴양림 정문과 휴양림 내부의 갈림길에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굴조사와 유구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와룡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방문을 위해 어느 정도의 조명 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백두대간 중봉과 남덕유산 사이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지추골을 거쳐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토옥동 계곡에 이른다.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월성치의 서쪽 골짜기가 토옥동 계곡인데 백제 사비기 때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은 토옥동 계곡을 지나 월성치를 넘었다. 이 토옥동 계곡과 지추골에서 철재 슬레그가 확인되었다.<sup>22)</sup> 따라서 토옥동 계곡 일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채석부터 제련 및 폐기장까지의 공정이 이루어졌던 공간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유적의 분포현황과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토옥동 계곡 입구에서 행해지는 개발 허가를 가급적 지양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개설되어 있는 탐방로변에 설치된 벤치의 수리가 필요하며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가급적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보수하면 좋을 것 같다.

양악교 및 토옥동로가 만나는 곳과 토옥동 주차장, 등산로 입구부분에 토옥동 제철유적의 이정표가 필요하며, 토옥동 제철유적과 연계하여 백제 사비기 때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왕래하였던 사행로를 복원하여 호남과 영남의 화합의 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III. 기반조성 및 활용

#### 1. 기반구축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존이 잘되어 있는 지역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객 또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실 보존과 활용은 분명 상반된 개념이지만 보존이 잘 된 유적이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점을 보면 궁극적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수 지역의 가야문화유산은 질적·양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에서도 소외되어 왔거나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흡한 단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분군, 봉화, 산성, 제철유적 등의 자료가 축적되면서 장수 가야의 정치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

22)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23) 유철, 2021, 「전주지역 후백제유적의 보존과 활용 사례」 『후백제 왕도』 전라북도·전주시·후백제학회.

수 가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조사비를 투입하고 있고 장수군의 홈페이지(문화관광 사이트)에서 가야에 대한 자료를 접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더 나아가 장수군에서는 관내에서 조사된 가야문화유산의 현황을 토대로 활용을 위한 여건 분석과 향후 비전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의 재원 조달 방법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보존·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sup>24)</sup>

하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개발은 학문적 뒷받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즉,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기본적 토대는 학문적 성과이다. 장수 가야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구명하고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연구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도내에는 가야사 전문연구자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가야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야사 전문가의 육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학술연구 지원은 개인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전문 연구 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장수 가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 연구 중 하나는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발굴조사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유물을 찾아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유적은 땅 속에 포장되어 있어서 발굴조사를 통해야만 유적의 성격이 규명될 수 있다. 효과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분군, 봉화, 산성, 제철유적 등의 유적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발굴조사 우선 추진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장수 가야의 문화유산이 학술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 즉, 그 동안의 학술연구를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보존가치가 규명된 유적은 먼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하고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을 추진하도록 한다.<sup>25)</sup>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규명되어 보존 및 지정가치가 드러난 유적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보존가치가 있는 가야유적은 정비 사업과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 유산으로 확인되면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유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소유 토지는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매입에 힘써야 한다.

장수 가야문화유산의 대 시민 사회교육에도 힘써야 한다.<sup>26)</sup> 이는 지역주민들의 가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자칫 파괴되어 질 수 있는 가야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가야와 관련한

24) 장수군, 2015,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군, 2017, 『장수가야 조사정비·복원 기초연구용역보고서』,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라북도, 2018, 『전북 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용역보고서』.

장수군, 2019,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5) 이현석, 2021,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26) 유철, 2021,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정책을 수행하는데 잠재적 협력자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시·군에서는 다양한 사회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편의 하나로 장수 가야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장수군민은 물론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장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 교육프로그램에 장수 가야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야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야 문화관광해설사는 가야문화유산이 자리하고 현장에서 유적을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전문가로서 이들의 활동은 가야를 홍보하고 인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야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고 흥미로운 해설로 관광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가야 역사문화·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관광산업 정책과 달리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들이 모색 되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화자원 보존 및 관광산업의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리더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핵심리더를 육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장수 가야 관광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강의 및 사례지 답사, 토론회와 발표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적용하며,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편성하고 사례중심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강의 내용이 보다 현실성 있게 운영한다.

장수에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유산으로 드러난 내용을 신속히 정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조사 내용을 순발력 있게 공개하는 것은 당해 문화유산의 보존은 물론 활용적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기존에 보고된 가야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유적의 문화재 지정 및 정비와 활용사업 등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 장수 가야를 알리는 방법의 하나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세대를 겨냥한 교육·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장수 가야유적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가야연구, 조사내용(유구 및 유물 출토 포함), 조사성과 등을 정리한 후 일반인에게 제공될 자료를 선정하여 웹상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장수 가야 관련 자료의 DB는 전통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한편, 읍면사무소의 안내판을 이용한 장수 가야문화유산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 읍면사무소는 지역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오가는 곳이다.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안내판에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가야유산의 현황과 내용을 게시하게 된다면 가야유산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사·연구는 장기



간 소요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편으로 장수군 문화체육과내에 가야문화팀이 조직되어 가야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장수 가야 유적 돌봄을 육성·지원하여<sup>27)</sup> 주민 주도로 가야 유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을 먼저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 봉사 단체, 문화재 보호 민간단체 등 주민 참여조직도 지원하여 활동하도록 협력한다. 또한 장수 가야 문화유산을 테마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육성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며, 1사(社)1 가야 유적 자매결연 및 후원을 활성화하여 가야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자발적으로 협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 2. 활용실태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의 활용은 아직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수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고분 48, 제철유적 86, 봉화 22, 산성 4개 등 160여소의 유적이 확인되었음에도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이 명확히 구명된 것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의 역사 문화자원의 활용에 있어 가야문화유산은 검토의 대상도 되지 않았었다. 장수군 역시 다른 가야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봉화와 제철유적이라는 양적·질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활용은 미흡한 단계이다. 다행히 근래들어 장수 가야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군 정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장수 가야문화자원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 장수 가야라는 역사문화 자원 자체의 가치는 물론이고 풍부한 자연경관, 장수 한우와 장수 사과 등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것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수 지역의 가야문화유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동향과 유사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요인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장수 가야문화유산의 활용에 있어서 강점(strength)은 경상지역 가야유적과는 차별화되는 봉화와 제철유적이 많으며,『일본서기』에 기록된 반파국으로 비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야국이 자리하였던 다른 지역에 비해 봉화와 제철이라는 차별화된 많은 유적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봉화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면으로 비정되고 있어 반파국의 왕궁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봉화와 제철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장수 가야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어 진정성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도출되는 발굴조사 성과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기본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전북도민과 장수군민들에게 장

27) 전라북도, 2018,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 방안」.

수 가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장수군은 전국 어느 시·군 보다 가야문화유산의 조사·연구·보존·활용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수군내에 가야 전담 조직으로 가야문화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야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에 비해서 약점(weakness) 또한 상존한다. 장수군의 가야유산은 경상지역 가야유적과 비교해 볼 때 발굴조사는 물론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 2017년까지 가야 관련 유적지의 사적 지정은 경상권에서만 이루어졌는데, 국가차원에서 가야문화를 경상지역에 한정시켜 관리·보존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까지 장수에서 확인된 가야유산 중 장수 동촌리 고분군 만이 사적 제 552호로 지정된 정도이며, 그간 가야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유적 정비에 대한 국가나 도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발굴조사를 거쳐 유적의 성격과 조성연대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지역과 유적 간의 연계 체계가 미흡하고 경상 가야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으며, 이를 알리는 교육·홍보·전시시설 등이 아직은 미흡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기회(opportunity)요인도 존재한다. 학술조사에 의해 가야 유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민·관·학의 관심과 열정도 높아지고 있다.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가야문화유산 연구회나 동호회 등이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장수 가야의 역사문화 복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야문화유산 지킴이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에는「전북가야 연구·복원 TF팀」과「전북가야 전문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야사 관련 조사·연구·정비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수군에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하여<sup>28)</sup> 타 시·군과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위협요인(threat)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장수군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드러난 제철유적과 봉화가 가야 때 것인지의 연관성을 밝히려면 더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유적이 지표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유적의 성격과 축조연대 등을 구명하기 위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수 가야유산의 조사 및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정비·복원 사업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 연구의 진척 상황을 보면 장수 가야의 복원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칫 2023년 이후에는 장수 가야의 조사·연구 및 복원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가야 유산 조사·연구 및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주로 단기 계획인 조사 사업에 치중하고 중장기 계획인 활용 사업에는 재정 확보의 추진 기반이 취약하다.

28) 2005년에 가야사라는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시·군이 모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현재 25개 시·군이 가입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장수·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11월 25일 장수·남원의 경계에 위치한 백두대간 치재에서 7개 시·군이 참석하여 전북 가야 선포식을 추진한 바 있다.

#### IV. 활용의 예<sup>29)</sup>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 이유를 든다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유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문화유산을 관광이나 지역홍보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0)</sup>. 이렇듯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유적을 현상 그대로 보존하여 활용하는 방안, 유적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 발굴조사 등을 거쳐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복원을 거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지역문화는 지역이라는 공간이 지나온 시간을 거쳐 형성된 사람들의 공통된 기억 및 고유의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역자원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이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시설과 서비스를 공급 또는 강화시키는 과정이나 그 상태를 의미한다. 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자원은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관광개발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유구함을 지역정체성으로 투영할 수 있는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인식과 함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여러 방법으로 누리고 나누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해당 문화재가 갖는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된다.<sup>32)</sup> 또한 활용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 인식이 높아지면 그러한 가치를 갖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크게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의 가치와 문화재 보호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높여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해준다.<sup>33)</sup>

장수군은 가야유산의 효율적 관광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참여확대 기반 마련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진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sup>34)</sup> 장수 가야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관광 연계 추진사업은 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가야유산을 활용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며, 둘째는 풍부한 전시 유물을 확보하고 지역 간 가야문화자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29) 장수군, 2019,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30) 윤덕향, 2008,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

31) 유철, 2016, 『장수군 제철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백제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

32) 유철, 2011, 『장수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3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 『가야문화권 중장기 조사·연구 종합계획』.

34) 유철, 2021, 『전주지역 후백제유적의 보존과 활용수레』 『후백제왕도 전주바로알리기』.

35) 장수군, 2019,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군, 2015,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군산대학교박물관.

것이고, 셋째는 가야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sup>36)</sup>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유적의 복원이다. 당해 문화재가 본디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된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유적을 본디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당해 문화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유적들을 복원하는 것은 본디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없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사유로 인해 유적의 복원은 제반 요소들을 검토하여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

대적골은 철광석의 채석, 제련, 단야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숯가마, 퇴적층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유적을 복원하여 장수 가야 야외 철박물관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장수 삼봉리 고분군은 최상위 지배층으로 무덤, 동촌리 고분군은 지배층의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읍에 자리하고 있어 논개사당, 한누리전당 등과 연계가 가능하며 구릉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복원을 하게 되면 양호한 가시권을 확보하게 되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크다. 삼봉리 고분군 역시 현재 건립되고 있는 장수 역사관, 호덕리·월강리·장계리 고분군, 대적골 제철유적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고속도로변에서도 양호한 가시권에 있어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 장수 봉화봉 봉화는 봉화대와 함께 불씨 발화·보관소, 봉화꾼들의 생활유적 등이 잘 남아있고 비행기재에서 멀지 않아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복원 가치가 충분하다. 성벽과 집수시설이 조사된 함미성과 침령산성 역시 복원하게 되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장수 가야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수 군민은 물론 전북 도민, 더 나아가 타도의 관광객이 장수에 산재되어 있는 가야유적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답사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모든 관광객들에게 장수 가야의 역사성·진정성 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야 전문기관이나 대학교 박물관·연구소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타 지역의 가야유적 답사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sup>37)</sup>하여 진행한다. 현재 시행중인 현장체험과 답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장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문화원,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호 협조

3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 『가야문화권 중장기 조사·연구 종합계획』.

37) 전북 도민 역량강화 교육 사업 예시

구 분		내 용
리더교육	리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참여 유도해 낼 수 있는 갖춘 가야역사 리더자 육성</li> <li>가야역사유적지구 관련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가야 지킴이 리더 양성</li> </ul>
주민교육	전문가 초청교육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야역사유적지구를 이해하고 지역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 의식제고, 역량함양 및 동기부여</li> <li>가야역사와 관광객 대응 방안 관련 전문가와 타 지자체 세계유산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현지 교육 실시</li> </ul>
선진지 견학	국내외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세계유산 선진지 견학</li> </ul>

속에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답사 프로그램은 김해·함양·고령<sup>38)</sup> 등 경상지역 가야문화권역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호남과 영남 지역의 가야 주민들이 매년 상호 교차 답사하고 가야 유산 특별전을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개최하도록 한다.

또한 가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역사 문화 탐방객이 직접 가야 시대로 돌아가 고고학자가 되어 발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당시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D 형태의 가상 공간을 구축하여 체험하는 형태 등 가야역사문화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발굴조사 체험프로그램은 경주 쪽샘유적 발굴관<sup>39)</sup>에서 처음 운영하였으며 현재 남원 두락리·유곡리 고분군에서도 시도해 보려고 한다. 발굴관은 유구 위에 돔 형태의 건물을 세우고 건물 내부에는 관람로를 시설하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발굴과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이다. 따라서 장계 삼봉리 고분군이나 동촌리 고분군의 발굴조사 및 재적골 제철유적에 발굴관을 건립하여 발굴조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장수 가야유산을 주제로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모전 개최는 장수 가

### 38)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례

사적 제79호로 지정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이미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유적지 전체가 정비되어 있으며,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생생하게 대가야인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가야박물관이 건립되었다.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왕릉이 모여 있는 지산동 고분군 아래에 위치하며, 대가야와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한 대가야사 전문박물관으로 대가야왕릉전시관과 대가야역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가야왕릉전시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인 지산동고분군 제 44호분의 내부를 원래의 모습대로 재현한 것으로 실물크기로 만든 모형 44호분 속에 직접 들어가서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 주인공과 순장자들의 매장모습, 부장유물의 종류와 성격 등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었다.

2005년에 개관한 대가야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설전시실은 대가야 및 고령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문화에 대한 설명과 유물을 전시해 놓았다. 기획전시실은 연간 1, 2회 정도 주제를 설정하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그 외에 어린이 체험실은 대가야토기 퍼즐놀이, 탁본 및 인쇄, 민속품 체험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가야박물관은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대가야문화대학과 박물관 어린이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2차례 가야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과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대가야역사관이 개관된 2005년부터 고령군에서는 매년 봄에 대가야박물관과 고령읍 일원에서 고령대가야체험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주요행사로는 역사 재현극이 펼쳐지고 체험행사로는 유물문화체험과 철재무기체험, 대가야 철기방 체험,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벚꽃마라톤대회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딸기수확체험과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옛 만들기와 잠공에 체험까지 연계하여 온 군민이 모두 하나되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군에서는 지산동 고분군을 정비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물관을 건립하여 대가야 및 고령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민 행사시에는 축제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다른 유적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 39) 경주 쪽샘유적 발굴관은 2012년 경주시 노성동에 자리하고 있는 쪽샘44호분(돌무지덧널무덤)에 철재로 골조를 세우고 천정에는 섬유유리 재질의 강화 천막을 올려서 비와 햇빛을 막게 시설하였으며, 그 내부에 관람로를 만들어 관람객이 발굴조사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시설.



야유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장수 가야를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그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사진이나 영상 작품은 장수군이나 전라북도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에 제공되고 타 시·군이나 타 도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여 장수 가야를 알리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장수 가야의 선양사업에도 힘써야 한다. 장수지역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파국과 관련된 상징물을 조성하게 된다면 장수 가야의 브랜드 홍보는 물론 관광매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의 진행구간 중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여 안내판과 함께 장수 가야를 나타내는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수 가야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표식도 필요하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반파국만의 상징성 있고 특화된 디자인 조형물을 개발하여 장수 가야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sup>40)</sup>

2018년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후보에 선정되었으나, 장수 가야의 주요 분묘유적은 세계유산 등재 후보에 선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라도 장수군의 주요 가야고분을 세계문화유산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한 성격 규명은 다소 미진하다. 동촌리 고분군을 제외한 삼봉리·호덕리·장계리·월강리 등 백화산 고분군은 아직 국가 사적에도 지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수장층 분묘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적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고분군 이외에 제철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전략을 구상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장수 지역의 제철유적 만으로 어렵다면 다른 지역과 연합하여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장수 가야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관광에 적극 반영한다. 발굴된 스토리는 장수 가야 콘텐츠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주며 안내체계시설 확충 및 관광인력 양성, 지역민 호응도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도 활용하여야 한다. 스토리의 발굴은 지역민에게 내려오는 구전, 각종 언론자료, 학술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 장수 가야를 소재로 한 주민의 기억과 추억, 봉화와 제철유적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을 분석하여 구축한다. 필요하다면 장수 가야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는 방법

40) 현재 장수군에서는 동촌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말발굽을 군의 뱃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될 유물을 중심으로 장수군의 상징물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41) 전라북도, 2018,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 방안」, 373~374쪽 참조

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장수 가야에 대한 조명과 유적의 발굴 성과 및 연구 현황 등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도서 발간이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술연구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논문 및 학술서 중심의 전문연구도서와 더불어 읽기 쉬운 대중서나 자료집을 병행하여 출판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장수 관련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장수군의 관광지에서 장수의 이미지를 상징화해서 내세우는 상품은 그리 많지 않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가야와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장수 가야를 테마로 하는 상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고분이나 제철유적, 봉화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상품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가야가 보유한 고대 봉화는 전국 유일의 문화자원으로서 그 분포범위가 매우 방대하며, 봉화의 최종 종착지는 장수군 장계로 알려져 있다. 봉화는 고대의 통신방법으로서 오늘날 전세계 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의 이미지와도 어울린다. 따라서 고대의 통신수단인 봉화와 현대의 통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연결하는 브랜드로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즉, 봉화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레이저 등의 불 점화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빛으로 봉화를 표현하는 상징성의 의미와 함께 야간관광 활성화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수군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제공하거나 가옥 주변의 유희 공간에서 캠핑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스테이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주거체험과 가야유산의 답사체험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지역민들에게는 소득원이 향상될 수 있으며 관광객에게는 시골의 정과 함께 장수 가야를 느끼게 하는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내 관광활동의 목적은 자연 및 풍경감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음식관광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미식투어는 여행 및 관광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장수 가야 음식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수군의 대표 산물인 한우와 사과를 장수 가야와 연계하는 스토리자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2) 전북 가야 중 장수 가야 관련 언론보도 사례

1. 고대의 포항제철 봉수 흔적 뚜렷 - '장수 가야' 깨어나라(중앙일보 2019.1.5.)

- 유래 : 고고학 발굴팀을 막은 대적골 인근 지역 주민 이야기 "산적들의 소굴을 발굴하다니, 산적들이 칼이나 창 따위를 버리던 곳을, 공연히 인골 더미라도 파헤치는게 아닌가 두려웠는지 모르겠다."  
-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감싸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철과 봉수가 제공하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잘 짜인 내륙교통망을 100년 이상 운영한 강소국이 반파국, 즉 장수 가야였던 것이다.

2. 장수 고분서 튀어나온 1500년전 말재갈의 비밀(한겨레신문 보도)

- 장수, 1500년전 백제의 변방이 아닌 가야의 중심지  
- 수백 개의 봉수가 장수로 향해 있다. 고대 철의 테크노밸리, 남원 · 장수 제철유적

이를 위해 장수의 가야유산과 연계할 수 있는 음식자원을 조사하고 유적과 음식 투어를 루트화하여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

장수 가야 홍보관은 가야 문화유산의 일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은 물론 관광정보 원스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수 가야의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장수 가야 홍보관은 장수군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누리전당내에 만들어졌다. 홍보관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장수 가야를 홍보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장수 가야 홍보의 센터로서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마케팅 활동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장수 가야문화유산의 홍보는 홍보사이트, 안내책자, 영상미디어, SNS, TV 등 언론매체 등이 있을 것인데 이를 장수 가야 홍보관에서 통합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장수 가야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관과는 달리 요즘 유행하는 이동식 컨테이너를 이용한 소규모 홍보관을 운영하여 저비용으로 장수 가야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수 가야 홍보관과는 별개로 장수 가야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의 구심점으로 역사관(전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sup>43)</sup> 장수 가야의 역사관(전시관)이 건립된다면 장수 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전시가 가능할 것이며, 가야사의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야사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 가야의 역사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탐방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군에서는 장수군 장계면 소재지에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가야를 주제로 한 장수가야역사관(전시관)을 건립하고 있다. 건립하는 곳은 삼봉리 고분군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삼봉리 일대의 고분군, 삼봉리 산성(봉화), 반파왕궁, 대적골 제철유적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가야 국가들이 자리하였던 영남 지역에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여러 곳에 건립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시관이나 박물관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현재까지 봉화나 철을 주제로 하는 전문 박물관은 없다<sup>44)</sup>. 따라서 장수군에서는 봉화와 제철을 테마로 한 전문 박물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문 박물관의 건립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삼국시대 봉화와 한반도 고대제철을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봉화박물관이나 철박물관 이외에도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에서는 매우 중요한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는 바, 유구와 유물의 출토에 있어서도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고분의 성격을 담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고분 전시관의 건립 위치는 유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고분 주변이 적합할 것이며 위치를 정할 때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서 전시관의 규모와 형태

43) 유철, 2013, 「문화유산의 · 보존 · 관리와 활용방안」 『전북사학』 제42호, 전북사학회.

44) 봉화박물관은 국내에 건립된 바 없으며, 철과 관련된 박물관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건립된 사립박물관 1개소밖에 없다.

등은 유적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sup>45)</sup>

마을 주민들이 장수 가야 유적을 보존하면서 마을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가야 마을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sup>46)</sup> 가야 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특화지역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또는 문화재청 소관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의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재청의 사업인 경우에는 사적 제552호 장수군 장수읍 동가야 마을 주변이 해당될 수 있다. 가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이 주축이 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을 운영해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가야 문화마을 사업은 문화 공간 및 장소(하드웨어),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공동체 육성 및 활동(휴먼웨어)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가야 마을 조성은 장수 가야의 역사와 생활을 재현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의 생태, 고대 동서교류 및 동서화합벨트, 농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장수 가야 마을의 주변으로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각 시·군에서는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 45) 국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박물관·일본 장식고분박물관 전시 내용 및 장수가야박물관 건립 계획 개요

##### (1) 국립김해박물관

명 칭	국립김해박물관
위 치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
개 관	1998년 7월 개관 2006년 12월 가야관 개관
건축개요	대지 : 53,266m <sup>2</sup> 건물면적 : 16,607m <sup>2</sup> (본관 9,639m <sup>2</sup> , 교육관 6,968m <sup>2</sup> ) 전시장 : 실내전시장(2023m <sup>2</sup> ), 기획전시장(826m <sup>2</sup> ) 야외전시장 공간구성 : 일반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강당 및 교육실, 사무실체험실, 보존처리실 건축 : 공간건축(장세양)
전 시 장	일반전시실, 기획전시실, 시각전시, 영상전시, 모형전시 체험
전시내용	가야 유적 및 유물 - 무덤모형 및 순장형태, 출토유물, 패널
기 타	김해수로왕비릉 인접

##### (2) 대성동고분박물관

명 칭	대성동고분박물관
위 치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26
개 관	2003년 8월 개관 2017년 5월 재개관
건축개요	대지 : 65,331m <sup>2</sup> 건물면적 : 2,902m <sup>2</sup> 전시장 : 실내전시장(2023m <sup>2</sup> ), 기획전시장(826m <sup>2</sup> ) 야외전시장 : 212m <sup>2</sup> 공간구성 : 기획전시실, 연구실, 사무실, 시사편찬실, 유물정리실
전 시 장	일반전시실, 기획전시실, 시각전시, 영상전시, 모형전시 체험
전시내용	대성동고분군(금관가야 고분) : 무덤모형 및 순장형태, 출토유물, 패널
기 타	김해대성동고분군, 김해수로왕릉, 봉황동유적 인근

##### (3) 장수가야역사관 건축

명 칭	장수가야역사관
위 치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527-30일원
건축개요	부지면적: 2,984m <sup>2</sup> , 건축규모: 1,800m <sup>2</sup> (지상 2층)
전 시 장	상설전시실(유물, 영상), 기획전시실, 수장고, 세미나 실
전시내용	고분군, 봉화, 제철유적, 출토유물 전시 등
기 타	삼봉리, 호덕리, 장계리 가야 고분군과 인접

46) 전라북도, 2018,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 방안」.

하는 것과 역사성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에 기인한 것도 있다.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수군 역시 가야라는 지역 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계획되어야 한다. 김해·고령·함안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야 관련 축제<sup>47)</sup>와 공주·부여·익산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백제 관련 축제<sup>48)</sup> 등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의 방안을 검토하고 이 축제가 장수 가야의 왕도로서의 장수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수군은 여러 축제를 통합하여 매년 9·10월경 의암공원과 장수군 일원에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는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장수 한우와 사과품평회, 사과수확체험, 농촌체험 등 대부분이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사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농·축 축산물의 대외적 이미지 재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우와 사과는 모두 붉은 색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레드 페스티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삼국시대 제철유적<sup>49)</sup>이 자리하고 있는 장수군에서는 제철 역시 붉은색을 띠고 있으므로 제철을 포함하여 레드 페스티벌로 확대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아울러 가야시대 봉화는 전북 동부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그 종착지는 장계면으로 드러난 상태여서 고대시대 통신수단이었던 봉화를 테마로 하는 축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장수군에서는 축제를 가야 문화와 연계하여 장수 가야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장수 가야문화유산의 활용과 진흥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관광전략과 연계를 강화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정기반의 확충,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내의 관광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여 관광권역별 특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장수군이나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문화유산 보존·관리나 활용, 관광 개발계획<sup>50)</sup> 그 어디에도 가야 문화유산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장수군에서는 장수 가야 조

47) 가야를 중심으로 한 축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해 가야문화축제(고유제, 혼불채화, 가야역사 ICT체험관, 가야유적탐방, 가야뱃길체험, 철기문화체험 등) 허황후신행길축제(신행길 퍼레이드, 가야 거리문화체험, 수전놀이 등), 고령 대가야체험축제(대가야 칼 방패 토기 가야금 등 제작 체험, 대가야왕릉제, 왕들의 행진 등), 함안 아라가야문화제(아라가야 역사문화체험, 먹거리 홍보 등) 등이 개최되고 있다.

48) 백제를 중심으로 한 축제로는 공주·부여 백제문화제(투어프로그램, 테마버스 운영, 백제문화퀴즈이벤트, 백제거리도보, 퍼레이드 등)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축제, 익산 서동축제(서동선발대회, 무왕행차퍼레이드, 서동선화 사랑의다리, 먹거리 등)

49) 제철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축제는 울산광역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쇠부리축제이다. 이 축제는 50여 가지 체험과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고대 원형로 복원실험이 대표적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쇠부리 불꽃 행렬도 중요한 문화행사이다. 또한 철을 주제로 한 전시와 학술행사도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제철축제를 통해서 발전된 공업화의 이미지와 부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50) 전라북도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1-6차.



사·정비·복원에 대한 기초연구<sup>51)</sup> 및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 계획 수립<sup>52)</sup>과 함께 가야유적 정비 및 활용방안<sup>53)</sup>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장수군의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에 가야유적 정비 사업과 장수 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지역문화유산 개발 등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장수 가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사업들은 기존에 수립된 『가야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안』과 경상지역에서 추진<sup>54)</sup>하는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그리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6개 문화권 중 가야역사문화권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정책 방향과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미비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존의 보고 듣는 차원의 관광과 체험·교육의 관광을 넘어 이제는 자기 주도의 학습적인 성격을 갖는다.

## V. 맺음말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접어들어 유적에 대한 가치 인식과 보존 및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 가야문화유산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학술조사에 많은 조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가야 홍보관을 마련하였다. 장수군은 더 나아가 가야 역사관(전시관)을 현재 건립하고 있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가야문화유산의 연구 및 보존, 활용 사업에 비해 장수군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한 단계였다. 하지만 최근 장수군의 가야 정책을 보면 비록 늦게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와 지역민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장수군은 풍부한 자연경관, 도심화가 되지 않은 농촌지역, 문화자원이 갖고 있는 역사·고고학적

51) 장수군, 2017, 『장수가야 조사정비·복원 기초연구』, 전북전통문화연구소.

52) 장수군, 2015,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군, 2019,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전주문화유산연구원.

53) 전라북도, 2018, 『전북 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용역보고서』.

54) 영남지역 가야문화유산 정비사업 현황

시 군 명	정 비 사 업 내 용
부산광역시	북천동 고분군 정비사업 및 북천박물관 개관
양산시	북정동 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비
창녕시	교동·송현동 고분군의 발굴조사와 정비, 창녕 박물관 개관, 계성고분 이전복원관 개관
합천군	옥전 고분군의 정비 및 합천 박물관 개관, 다라고분 공원 계획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 정비 및 대가야박물관 개관, 대가야 왕궁터 발굴조사, 주산성 정비사업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의 발굴조사 및 정비
함안군	도항리·말산리 고분군의 정비와 전시관 건립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의 정비와 전시관의 건립
거창군	개봉리·석강리·무릉리·지동·성북 고분군 정비, 거창박물관 개관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장수군에 산재되어 있는 가야 문화유산은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접근성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 성격이 규명된 것과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 등 여건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이 유적들의 보존 및 활용 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성격 규명이 시급한 것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성격이 확인된 유적은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분명한 성격이 규명된 가야 유산은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유산은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훼손과 파괴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여서 보존과 활용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다만, 지속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 적극적인 홍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사결과 정리 및 보급, 문화재 지정 등의 기반이 충실히 구축될 때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채택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국정과제는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야사의 구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없지 않다. 그간의 국정과제 기간 중에 장수군에서는 봉화와 제철유적이 속속 확인되었다. 이 유적들은 가야국들이 자리하였던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어 가야사 구명은 물론이요 장수 가야의 실체를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장수 가야의 조사·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오랫동안 가야의 통설로 인식되어온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하고 엄격한 노력을 통해 장수 가야의 객관성을 담보해 내어야 한다. 장수 가야의 본질적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었을 때 보존과 활용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토론편

안선호(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란 주제로 유철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에 있는 가야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학술조사를 통해 장수군의 가야 세력에 대한 성격이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유적에 대한 가치 평가와 보존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정책은 무조건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의 발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장수군에 분포되어 있는 가야문화유산에 대해 고분군, 산성, 봉화, 제철유적으로 구분하여 유적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유적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더불어 관광 및 홍보전략,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루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토론자의 역할을 위해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문화재의 특성과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들이 백두대간 동쪽 경상도 지역의 가야 유적과 차별성이 있는 것은 봉화와 제철유적이 많으며, 『일본서기』에 기록된 반파국으로 비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수지역의 가야세력에 대해서는 ‘장수가야’라 칭하고 있고, 전북지역에 분포한 가야세력에 대해서는 ‘전북가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임시적인 것일 뿐 장수지역의 가야세력의 실체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목적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장수지역의 가야세력이 반파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나 아직도 많은 가야사 전공자들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수지역의 가야세력이 반파국이다.’라고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기 위해 유적지의 정비와 활용 측면에서 추가로 진행해야 되는 조사연구와 정비에 대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면 장수군에 소재한 모든 가야문화유산들을 중

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존과 활용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대표 유적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정비·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동촌리고분군을 제외하고 장수군에서 집중적으로 정비·활용이 진행되어야 하는 유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과 지형적 탐방 환경이 좋지 않은 산성과 봉화, 제철유적에 대한 정비 및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적지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탐방객들이 외면한다면 활용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방객들을 위해 각 유적지마다 전시관 또는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유적들을 연결하는 탐방루트 개설과 정비도 필요하지만 소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근성과 탐방 환경이 좋지 않은 유적지에 탐방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넷째, 동촌리고분군 주변 마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야 마을과 테마파크 조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정부기관의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여 지자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테마파크가 조성되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테마파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적지 주변에 테마파크가 개설될 경우 오히려 유적지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야 마을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파 가야 역사성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

종합토론

---

- 좌장 : 최완규(전북문화재연구원)
-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김용문(장수군의회 의장),  
최재원(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장)





## 토 론 문

김용문(장수군의회 의장)

장수지역의 가야문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매우 뜻깊게 받아들이며 의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자유토론으로 참가하게 되어 장수군 가야 역사에 대한 한층 깊은 애정과 관심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들에게 한 번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 관심을 통해 역사의 실체 규명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장수군에서도 가야 관련 국가사적이 지정되었고 가야유적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타지자체 7개 시·군이 준비 중인 가야고분 세계유산 등재에 장수군 가야고분이 등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 등재가 어렵다면 장수가야만의 세계유산 단독등재의 가능성은 있는지? 그럼 그 등재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2. 역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라는 성과도 중요 하지만 그 만큼의 군비도 투입 되는데요 이를 위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군 가야역사 규명을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무엇이며 많은 예산투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또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할 듯한데요 가야역사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우선시 해야 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장수지역 가야 역사에 대한 답사를 통한 인식개선 이라든지 하는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픈 현실 이긴 하지만 말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장수지역 가야문화에서 확인되는 마구류 등 역사적 사실을 접목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토 론 문

최재원(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장)

대한민국은 탈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수군도 여러 뉴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장수지역 가야 문화에 대한 실체 규명입니다.

과거 장수군은 고랭지배추를 시작으로 한우와 사과라는 농축산품을 통해 경제 여건을 마련하였고 장수군의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후의 변화, 시대의 변화 등으로 농축산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탈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수지역의 매력있는 가야역사문화를 통한 역사문화자원 명품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장수군에서도 가야라는 역사성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적은 무엇이며 이를 통한 자긍심 외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2. 고대역사의 중심지라는 사실에 장수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요 장수군에 흠어져 있는 가야유적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또한 역사자원을 통한 군민의 소득창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적 방안은 무엇인지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의지가 가야문화 부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장수군은 가야문화팀이 가야역사와 일반 문화재의 연구, 정책수립, 보수 정비 등을 전담하고 있고 전문 학예인력은 2명 시설직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관 개관,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등 많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현 가야문화팀만으로 장수가야 역사자원을 통한 관광명품화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의견 여쭙니다. 확대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반파 가야 역사성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인 쇄 | 2021년 06월 25일

발 행 | 2021년 06월 28일

발행처 | 호남고고학회

제 작 | K2디자인 T.063)229-8510